

建築士



K.I.R.A

vol. 409

2003

05



대 관 안 내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7만5천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은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는 건축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대 관 문 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지점)

Tel _ 02-581-5711~4 Fax _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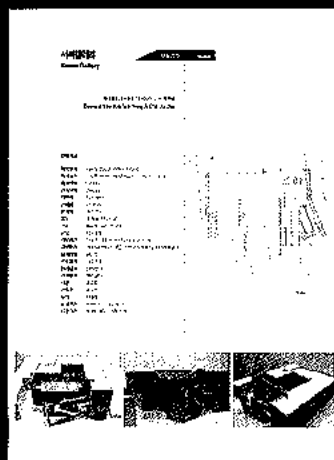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10컷 내외, 설계개요, 설계소요 (200자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배치, 단면, 평면)〉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요 (간략하게 200자원고지 2매 내외)〉
계획작품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미준공 작품)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요 (간략하게 200자원고지 2매 내외)〉
회원동정 및 기타소식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회원 및 회원사를 소개할 만한 신변잡기,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원고마감 : 매월 5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팀
(우편번호 137-070)
문 의 : 「건축사」지 편집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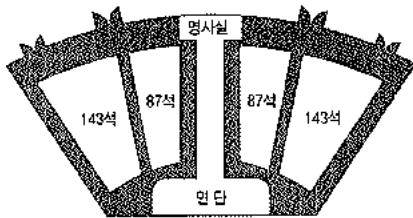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대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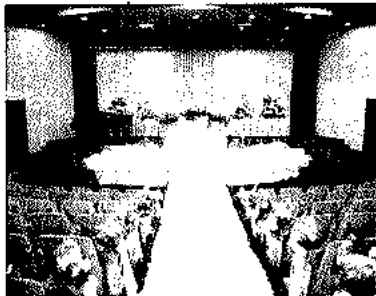
■ 대 강 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 / 세미나 / 강연회 / 교육 / 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 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석(좌석수)
- 부속설비 : 녹음 / 음악 / 영사실 / 무대 / 무대영사막 / 흑판 / OHP / VPM / SP



대강당(460석)



1. 사용료

(단위 : 원, VAT별도)

구 분	좌 석 수	사 용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요금(시간당)
대강당	460석	400,000	80,000

※ 사용기간 :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

(연 30일 또는 연 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 할인

※ 야간 및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 상기금액의 20%를 할증

※ 예식행사 : 90,000원

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890cm × (세로) 9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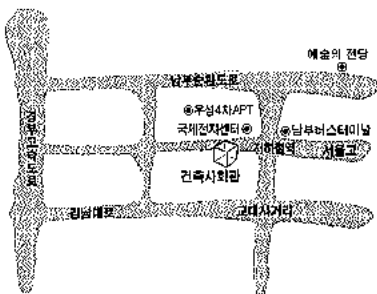
■ 대 관 문 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l _ 581-5711~4

Fax _ 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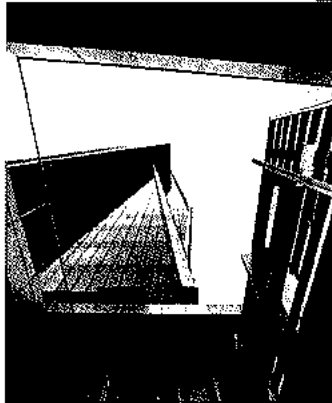


약 도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3년 5월호, 통권409호

차례 2003 5 40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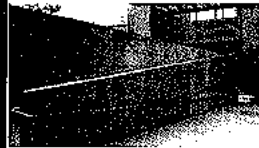


동부체육센터(이기범 + K.P.F 作)

42

51

56



컬럼	대구지하철 참사를 바라보며	이광만	24
건축만평		유원재	27
회원작품	동부체육센터	이기범 · K.P.F	28
	장유 도서관	김우영	40
	방배동 다세대주택	김복지	46
	잠원동 금강현	김복지	54
작품노트	스펙트럼	최동호	60
계획작품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김원규 · 심우근	66
기고	사대문(四大門)안의 도시와 건축	최승원	68
	피카소에서 스피버그까지	이재림	70
	『프랑스 레알(Lez Halles)시장 재개발 사업과 청계천 복원사업』	송복섭	72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79
	해외잡지동향		83
	현상설계		88
	세무안내		98

발행인: 이세훈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취재·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이홍식 팀장)

88



92



96



Column

My Opinion on Tragic Subway Accident in Daegu Lee Kwang-Man 24

Cartoon Yoo Won-Jai 27

Works

Dong Bu Financial Center Lee Ki-Beom & K.P.F 28

Jangyu Library Kim Woo-Young 40

Bangbae Dong Multi-family Housing Kim Bok-ji 46

Jamwon Dong Gumgang-Hun Kim Bok-ji 54

Design note

Spectrum-Autistic Disorder Clinic Center Choi Dong-Ho 60

Process works

Kangbuk-gu Complex Gymnasium Kim Won-Kyu, Shim Woo-Keun 66

Feature

The Architecture and Urban Planing of Central Seoul Choi Seung-Won 68

What do you think of Pablo Ruizy Picasso and Steven Spielberg Lee Jae-Rim 70

The Les Halles Redevelopment Project of France and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Shong Bok-Shub 72

Architects' Plaza

Archi-Net 79

Overseas Journal 83

Competition 88

Taxation business 98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9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대구지하철 참사를 바라보며

My Opinion on Tragic Subway Accident in Daegu

이광만 /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g-Man

많은 인명피해로 언론매체들을 떠들썩하게 하던 대구지하철 참사가 어느덧 3개월이 되어간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잊혀진지 오래인 듯 하다.

우리는 과거 여러 해 동안 씨랜드화재, 인천호프집 화재, 천안 축구부 화재 등 크고 작은 화재사건들에 많은 인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근본(根本)은 우리가 만들어 냈으며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채 우리 건축사들은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아닌 화재에 관해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TV나 신문지상의 논평을 통해 잘못을 질책하고 있다.

참사 이후 신문기사 중 '멀티플렉스 영화관 화재 때 탈출구가 없다'라는 기사에 묵묵히 동감한 적이 있다.

도심상가건물 8층에 위치한 A멀티플렉스.

밤 11시쯤 영화가 끝난 뒤 200여명의 관객들이 극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출구는 폭 2m도 안 되는 조그만 문 하나 뿐... 줄의 맨 끝단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나오는데까지 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한참을 기다린다. 계단은 출입금지라는 프린트물 하나로 굳게 잠겨 있다.

최대 78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 극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밖으로 연결되는 3곳의 비상계단이 모두 셔터로 잠겨 있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모두 고립되는 공간이다. 화재 시 대규모 참사를 기다리며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극장연합회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멀티플렉스 극장은 전국에 59개, 주말이면 2~3만명의 관객이 찾는다고 한다. 대부분이 대규모 참사에 노출된 것을 모른 채 영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하버드대 대학원 학생 및 교수들이 한국을 찾은 적이 있다. 이들은 영화관의 기능이 복층 혹은 다층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또한 주유소 등의 위험물 저장시설 위에 주거, 업무 등의 복합기능을 갖는 건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최근 준공된 쌍둥이 빌딩의 주상복합 건물은 당당한 외관과 48층의 높이로 강변의 랜드마크(Landmark)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내부에 우리(건축사)들이 만들어 낸 문제를 안고 있는 건물이다. 48층에 비상계단이 하나뿐인...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할 당사자인 설계자가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어낸 결과이며, 이로 인해 최대의 전용률을 만들어 냈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다. 과연 경제논리의 노예가 되어 사람들의 목숨을 경제논리와 바꾸려는 행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물어보고 싶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필자와 이 글을 읽는 바로 우리 건축사들의 자화상이다.

우리(건축사들)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의 계획안들을 사람들의 안전을 뒤로한 채 법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 심지어는 힘의 논리(인맥)까지 동원하여 허가 및 심의를 통과시키려고 발벗고 뛰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시대의 최대 히트상품이라고 하는 공동주택,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판상형 아파트를 생각해보자.

이 판상형 아파트 한세대는 건축법에서 최소 1개의 피난계단만을 요구하고 있다. 화재 시 2방향 탈출구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발코니, 측세대와 연결된 2방향피난을 유도하고 있지만, 발코니에 설치된 새시(최근엔 외장재가 고급화되어 유리 커튼월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피난이 가능하게 되어야 할 가변축벽에 위치한 창고 등으로 인해 현관부분 화재 시 자력에 의한 피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소극적 방안으로 완강기 설치가 대안일 수 있지만 구조적 대안은 아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남의 탓인 양 '경제의 논리 때문에' 라고 하거나 '사람들이 아직 안전에 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라고 핑계를 대고 만다.

정작 잘못된 문제를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볼멘소리로 우는 아이처럼 말이다.

과연 이대로 팔짱을 낀 채 남의 집 불보듯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일까?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만들어내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우리 건축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씩이라도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사고를 변화시키며, 잘못된 정책을 바꾸어 가야 한다.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 구조, 안전, 피난에 관한 최소한의 법 규정에 맞추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법의 규정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필요사항(기본골격)만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 건물의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살을 붙여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방재 전문가 및 소방 관계자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천편일률적으로 규정된 정책(안전에 관한 건축법규)의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

「외국의 법규가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건물전체의 수용인원이 500명이하인 경우 2개, 500~1000명인 경우 3개, 1000명 이상인 경우 4개 이상의 피난 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수용인원 220명과 비상구의 폭 1,050mm를 기준으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mm씩 비상구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있다. 건물면적만을 기준으로 마련한 우리와 달리 면적과 별도로 수용인원에 따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종래 일본의 피난계단, 계단폭을 사용인원과 면적, 층수 비례로 규정한 건축법규를 한국적인 현실, 즉 경제의 논리에 밀려 획일화된 계단 폭, 피난 계단의 수, 피난 거리 등으로 통일되고 대폭 완화되었다.」

우리 건축사들은 사람들의 삶을 만드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른 직업인들과는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우리의 임무를 스스로 저버려서 한순간에 수많은 인명을 해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사고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우리(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ps. 우리가 빛은 수많은 참사로 사라져간 분들의 유족들에게 가해자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동부금융센터 Dong Bu Financial Center

이기범 / (주)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K.P.F
Designed by Lee Ki-Beom & K.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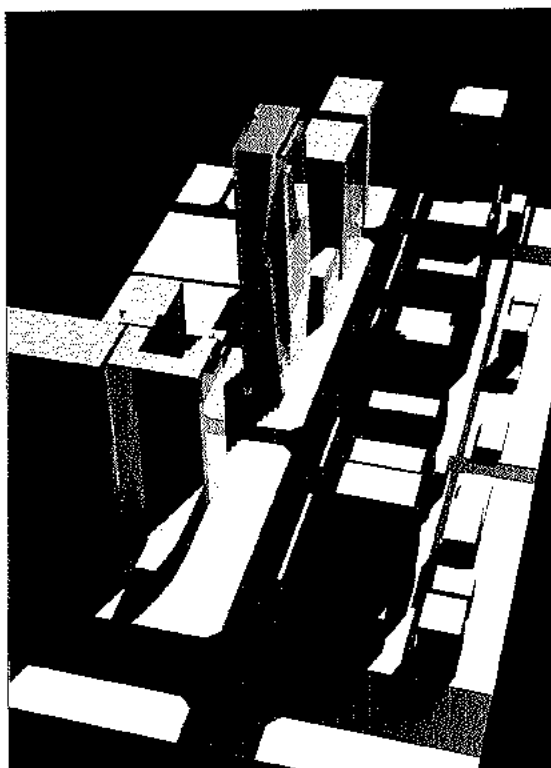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번지외 8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대지면적	3,351.70㎡
건축면적	1,288.09㎡
연 면 적	57,020.51㎡
건 폐 율	38.43%
용 적 륜	1,102.24%
규 모	지상 35층, 지하 7층
외부마감	커튼월(AL + SST + GLASS)
내부마감	바닥 - 라임스톤, 카펫타일 벽 - 미라톤, 수성페인트
구 조	지하 - 철골철근콘크리트 지상 - 철골구조 + 가새골조
설계담당	김갑수, 김혜란, 홍광기, 김재국
설계기간	1993년 1월~1999년 2월
공사기간	1993년 1월~2001년 12월
기계설계	한일M.E.C + F.K
전기설계	한양전설 + F.K
소방설계	미동엔지니어링 + F.K
구조설계	동양구조 + WEIDLINGER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동부금융센터는 서울의 새로운 심장부, 테헤란로의 수평 수직의 확일적 건물군에서 벗어나 조형적 이미지로 그리고 새로운 건축적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건물의 조각적인 형태들은 테헤란로의 새로운 시각적 중심을 형성하는 동시에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룹사옥으로서 상승과 미래의 비전을 나타내는 확실한 상징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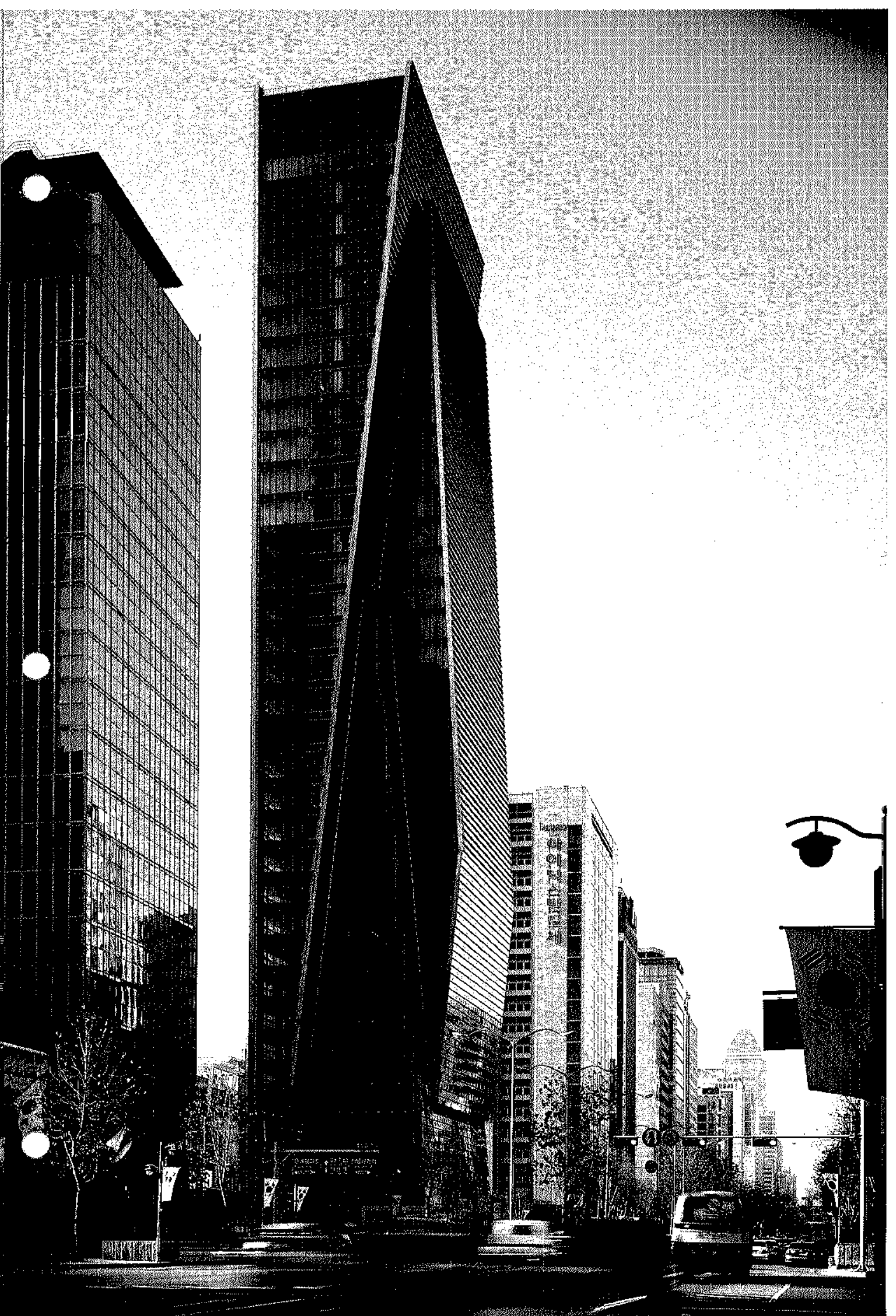
기존 대지의 법규적 제한으로 최소한 3 : 1 비율 이상의 조형적 PROPORTION을 찾기위해 건폐율을 40%(실제38%) 이하로 낮추고 도로한계선으로부터 SET-BACK(법정 3M에서 9M로) 시킴으로서 현재의 MASS가 도출되었고, 전면과 측면에 구성된 공개공지와 OPEN SPACE는 도심의 휴게소처럼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며, 포스코 CENTER의 광장과 연계되어 하나의



도시 구성 요소로 묶어 둘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보행자와의 동선 간섭을 최소화하고 각 동선의 마찰을 피해 측면도로에 주차진입을 갖으며 240대의 자주식 지하주차공간의 효율을 위해 9.0M SPAN의 모듈이 선택되었다.

건물의 외관은 교차되고 기울어져 포개진 형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테헤란로를 따라 걷는 사람에게 건물의 외관 디자인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

57,020.51㎡의 고층건물은 은행기능을 수용하는 1,2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용 공간이다. 지하 1층은 조각공원을 겸유하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공간이며, 지하 2층은 광범위한 종류의 공공행사나 개인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기의 회의실과 모임장소로 계획하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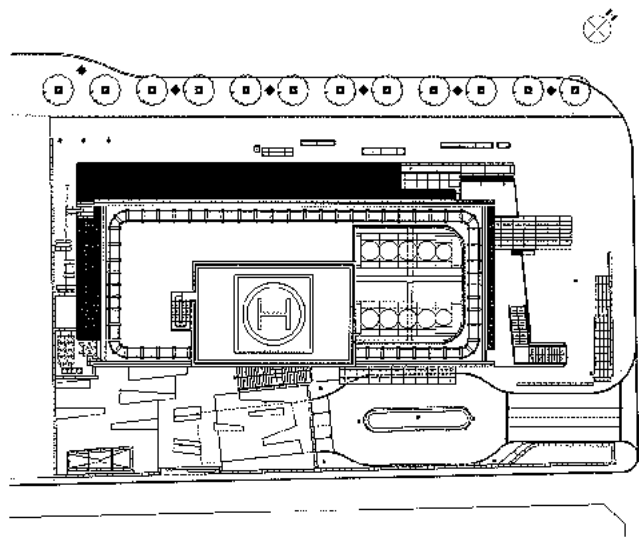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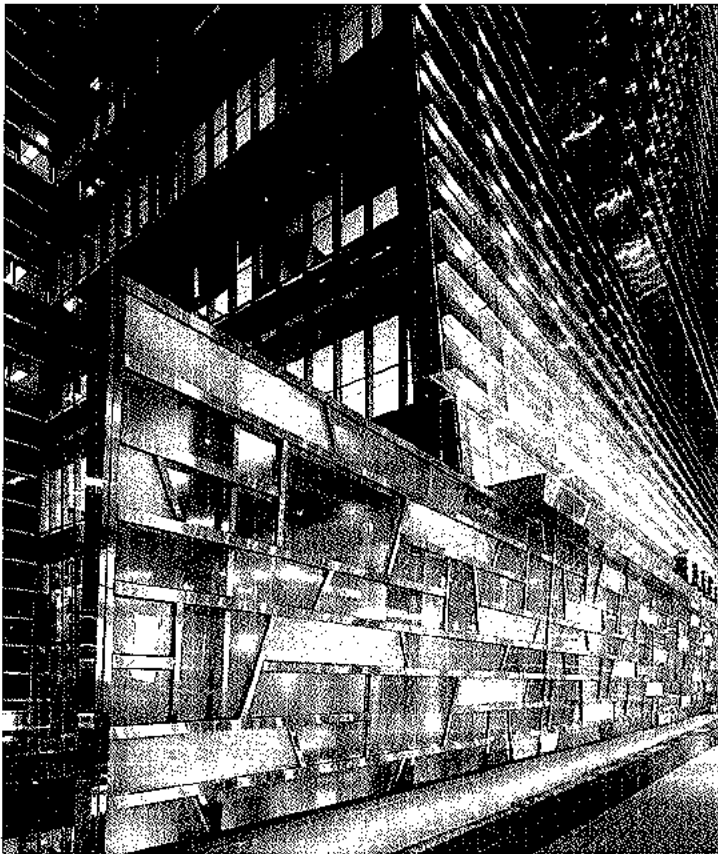
hynix

하이닉스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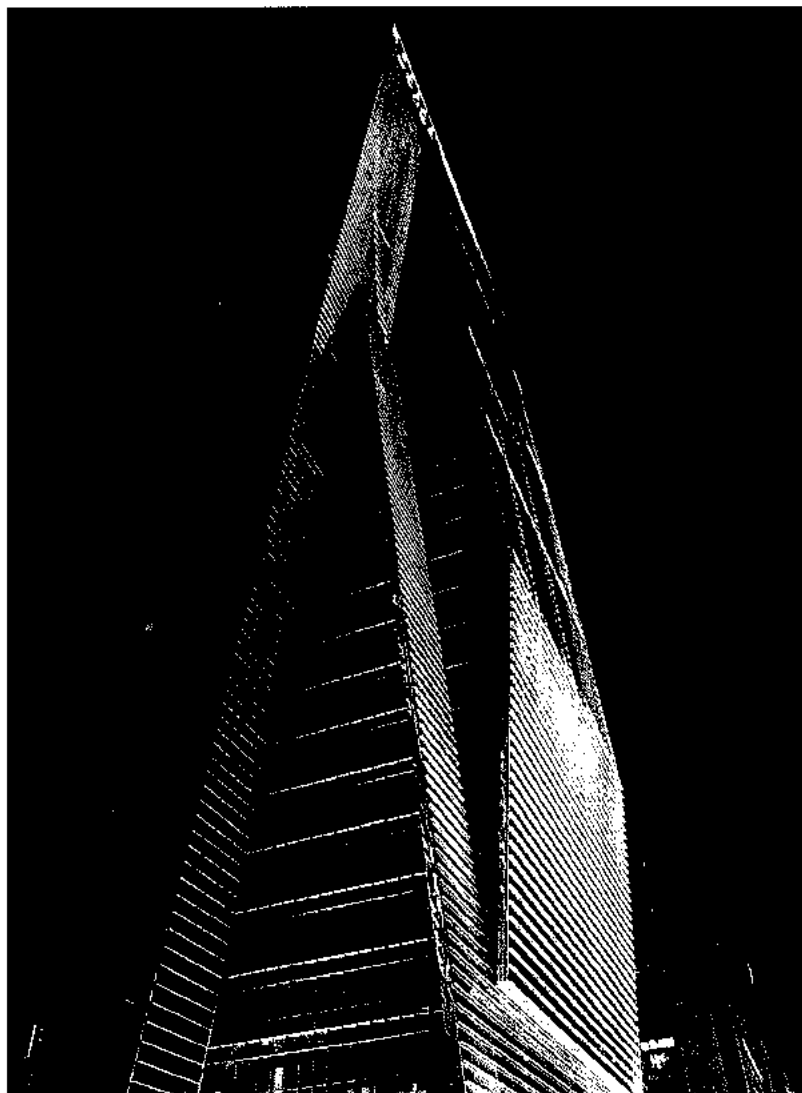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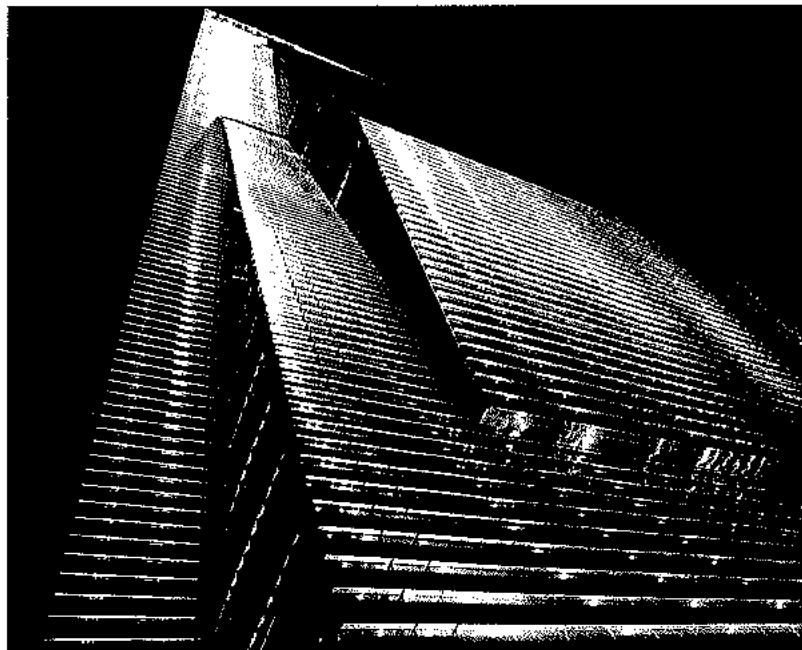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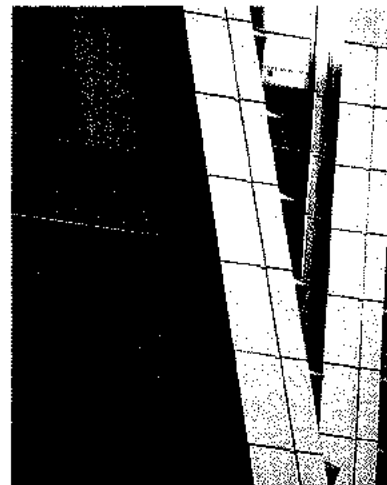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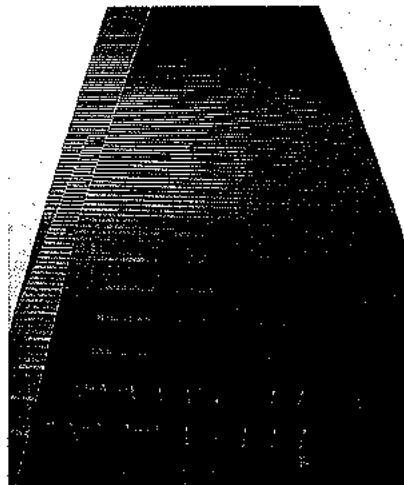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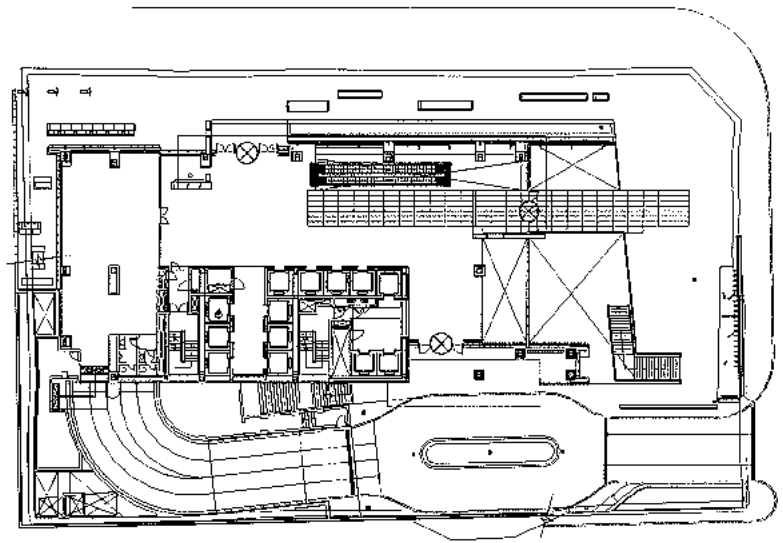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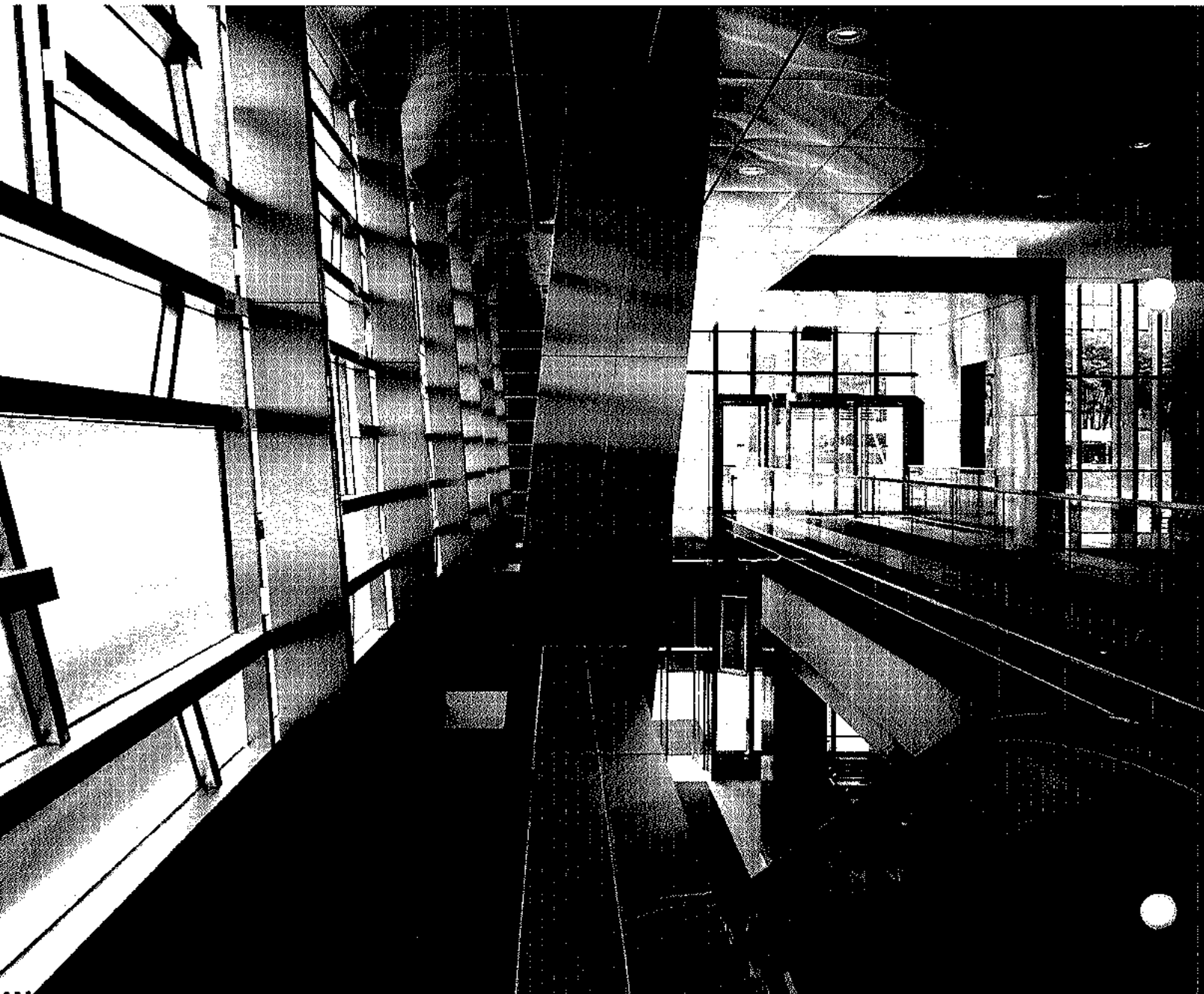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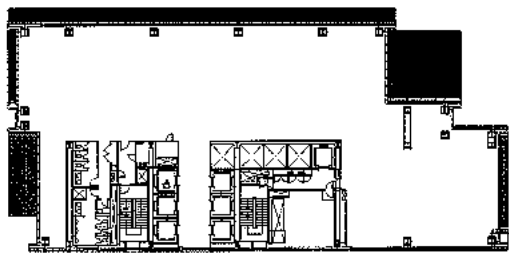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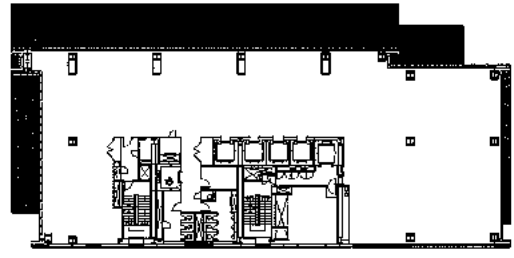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0층 평면도



3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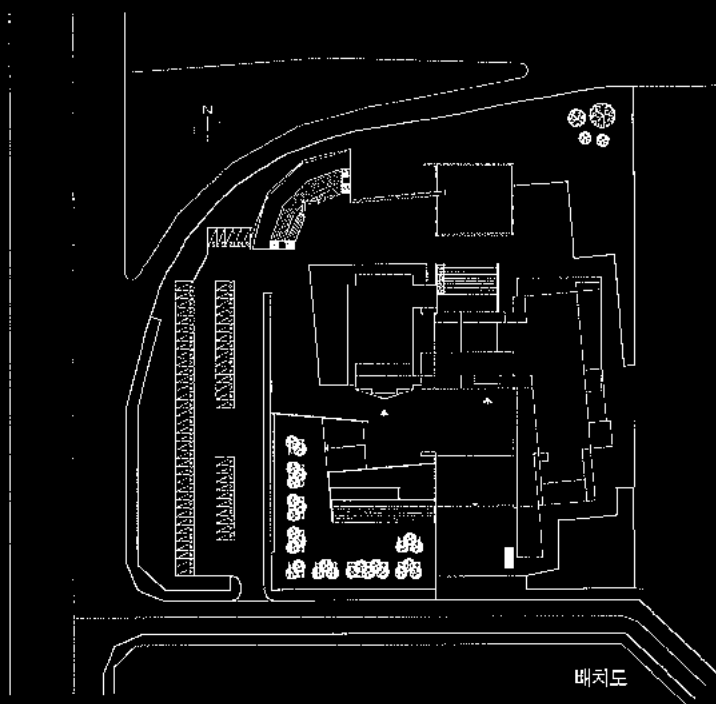
장유 도서관 Jangyu Library

김우영 / 성균관대 교수 + 이경훈 / 단국대 교수 + 정명석 / 창명건축
Designed by Kim Woo-Young + Lee Gyeong-Hoon + Jung Myung-Suk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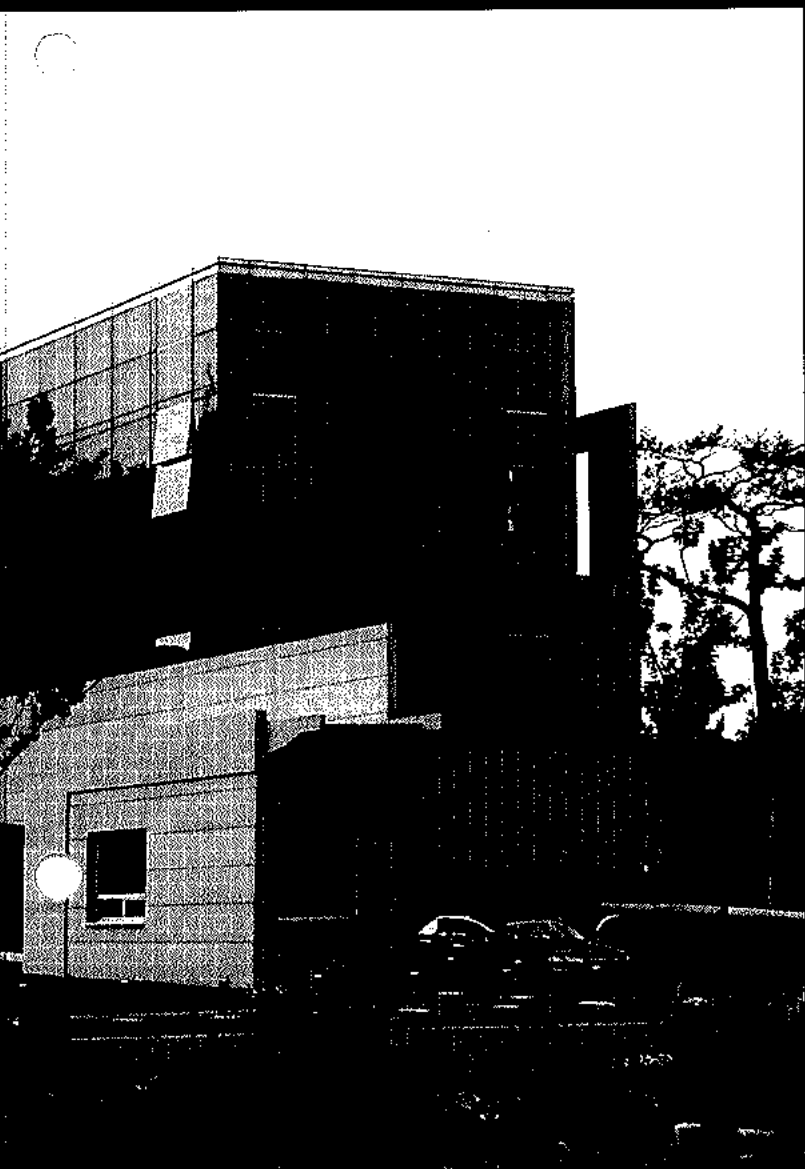
대지위치	김해시 장유면 택지개발 11블럭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연 면 적	6,356.39㎡
대지면적	16,529.00㎡
건축면적	2,075.22㎡
건 폐 율	12.56%
용 적 륜	27.77%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드라이비트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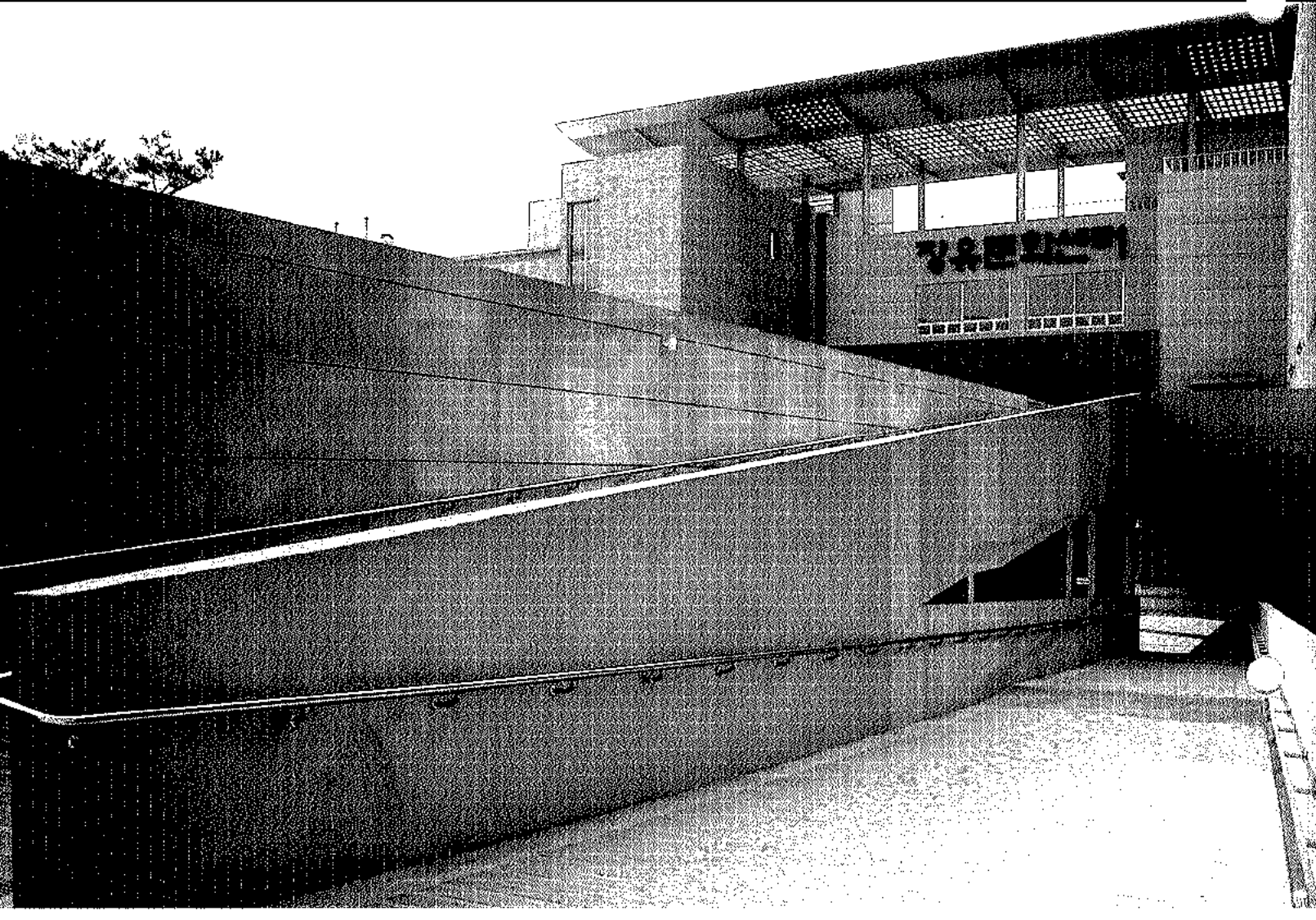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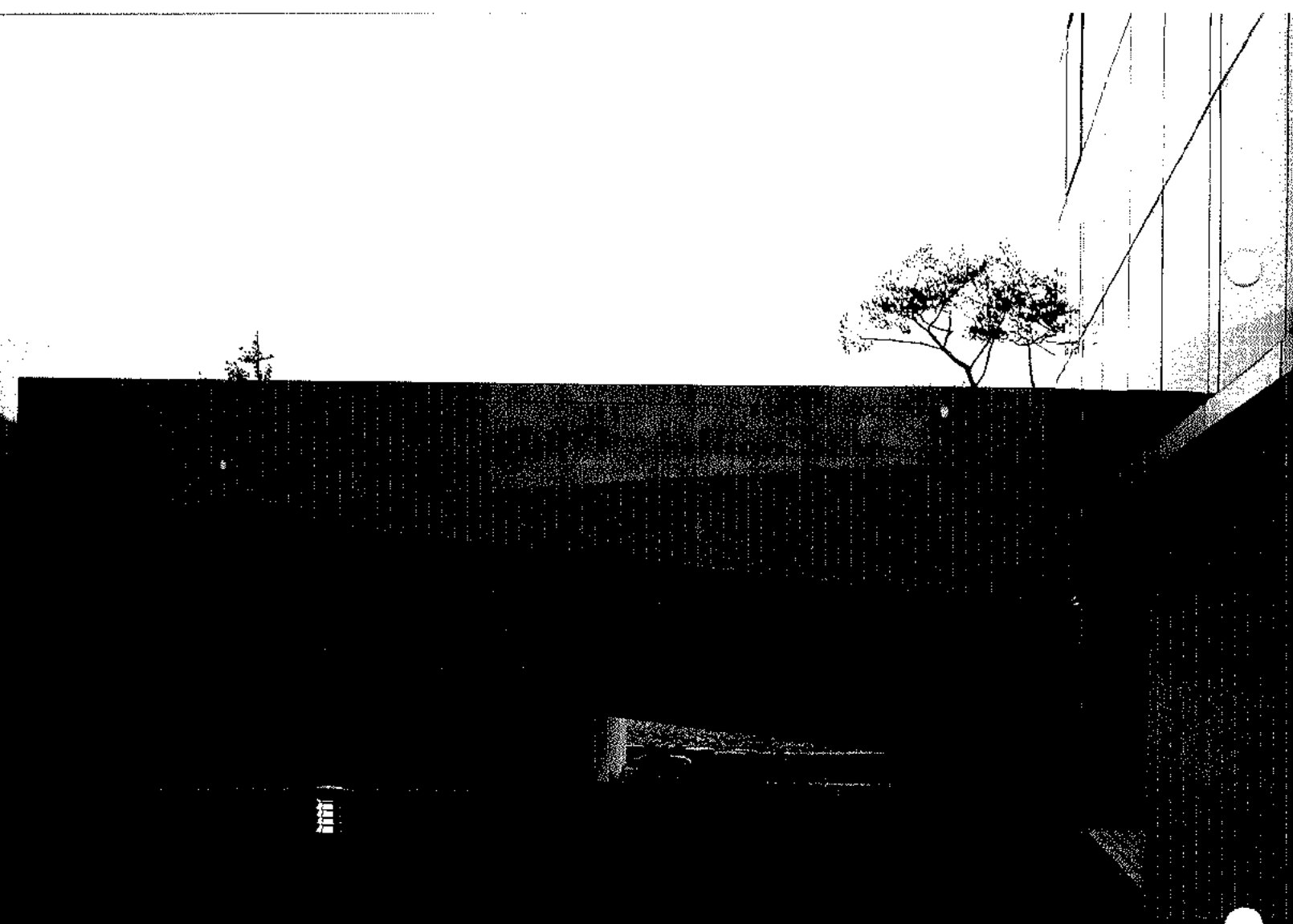




마산과 창원,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변의 이 건물은 현상설계 당선 안으로 최근에 완공되었다. 국어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 공적문서를 백성들에게 널리 읽혀지게 하기 위해 한글로 쓰여져 '지식전파'라는 상징성을 갖는 '선조국문교시' (강해서 보물제951호, 1593)에 찍힌 옥새의 형상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3개의 옥새를 잇는 형상으로 건물 매스를 디자인하였다. 진입동선의 축을 따라 앞마당-중간마당-본건물-뒷마당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공간체계는 서쪽 공터와 동쪽 일람실 매스의 사이공간을 편근으로 비움으로서 행로가 하나의 축이 아닌, 다양한 외부 공간들과 사람들의 동선들의 연계로써 형성되는 다양한 축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유리로 마감된 일람실은 채광문제 해결을 위해 골스노린을 설치하였고, 각종 삼부 창문을 열 수 있게 계획하여 대류를 통한 공기 순환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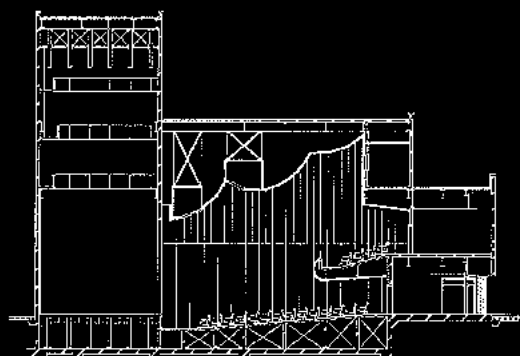
지역 주민에게 무색의 두멍 유리두브로 마감된 일람실은 '진리의 등불'을 은유하며, 또한 고속도로를 통해 지역을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저장고'로서의 기단위 플랫폼의 형상을 은유하고자 하였다.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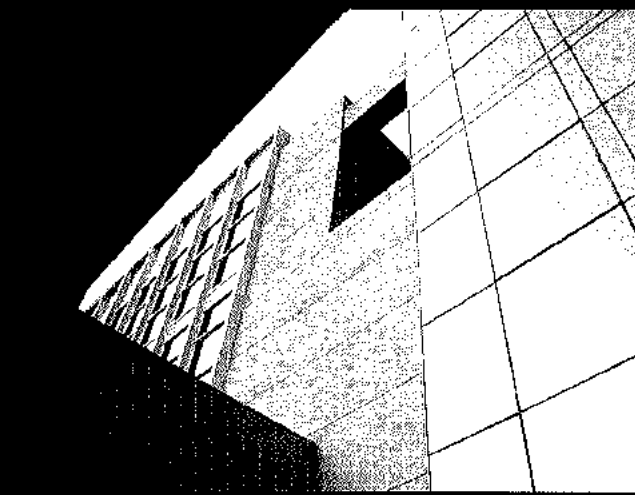
공연장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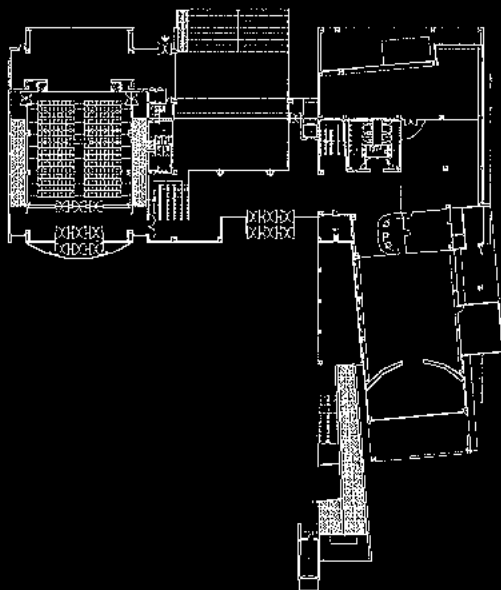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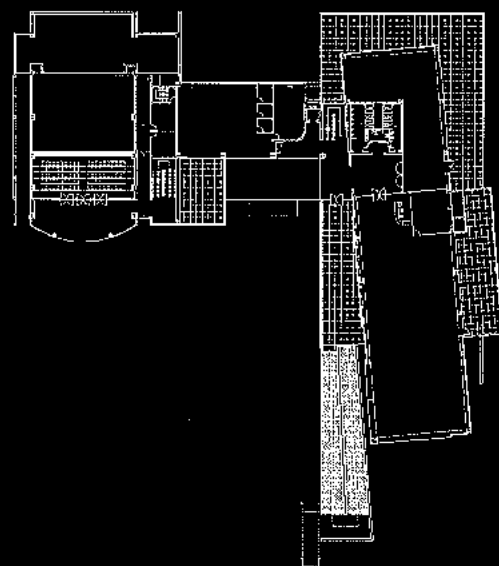
정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형제들이 각기 1세대씩 입주하였는데, 4층은 북측면이 줄어들게 된 손실을 다락공간과 높은 거실 천정으로 보상하였다.

이는 공사비를 공동분담하는 형제들간에 공평성을 기하고자 한 고려이기도 했었다.

대신 이로 인해 옥상에는 특별한 누마루 형식의 데크가 생겨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남쪽의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보기 드문 전경을 누릴 수 있어 온 가족이 내내 행복을 나누는 명소가 되리라 기대된다.

각 세대는 2개의 방과 1개의 욕실로 된 아이들의 영역, 거실과 부엌·식당 등의 공용영역, 그리고 주인침실 및 욕실로 된 부부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현관에서부터 구분되어진다.

실내에서의 동선축을 쫓아가면 항상 곧장 열려 있지 않고 벽면에 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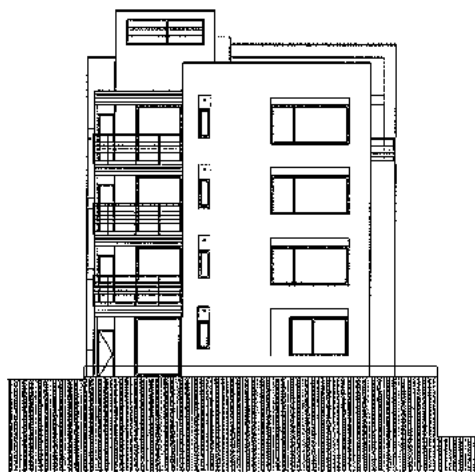
저 사진이 닿게 한 연후에 다음 공간으로의 암사를 통해 이동되게 하였다. 이는 공간간의 영역성 확보를 염두에 둔 것뿐 아니라 공간적 깊이를 더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거실과는 별도로 아이들만의 쉼지공간을 두 개의 아이방 사이에 두기를 제안하였으나 방 크기가 적어진다라는 이유로 무산된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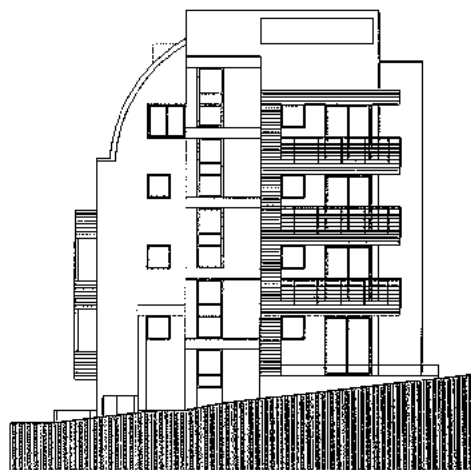
또 주변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만큼 이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하는데 주력했다.

거실은 남측 숲의 조망을 향하여 열려 있고, 내부에서 다 갖지 못한 조망은 옥상에서의 조망과 함께 북측 경사지붕사이로 마련한 전망대에서 멀리 한강까지의 조망을 가끔씩이라도 처음으로써 달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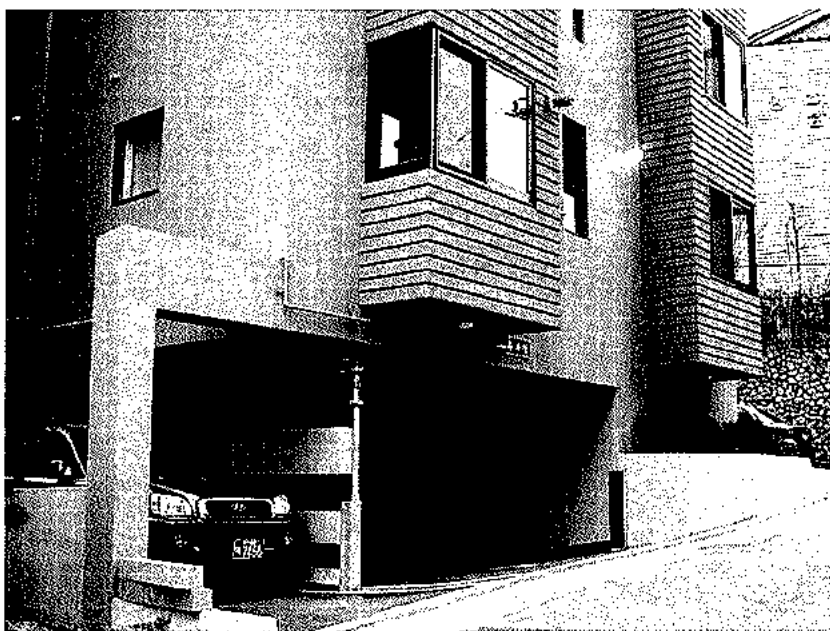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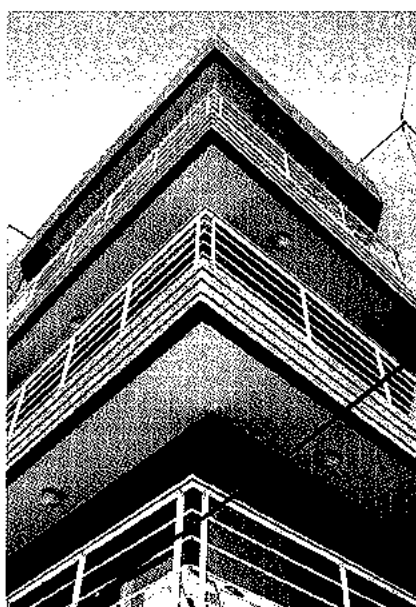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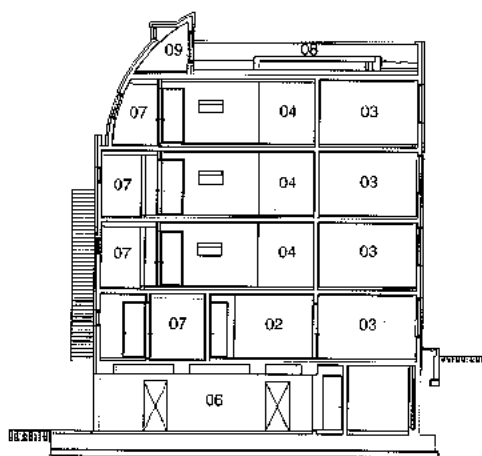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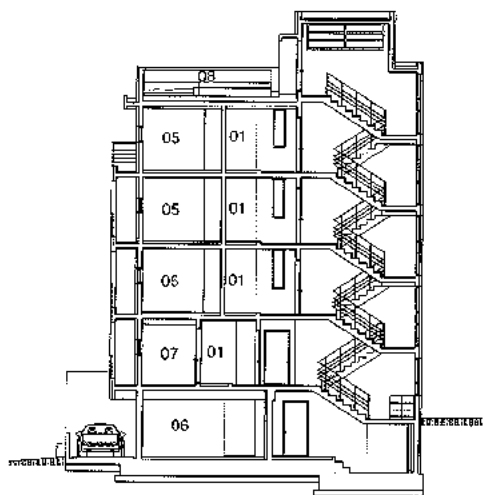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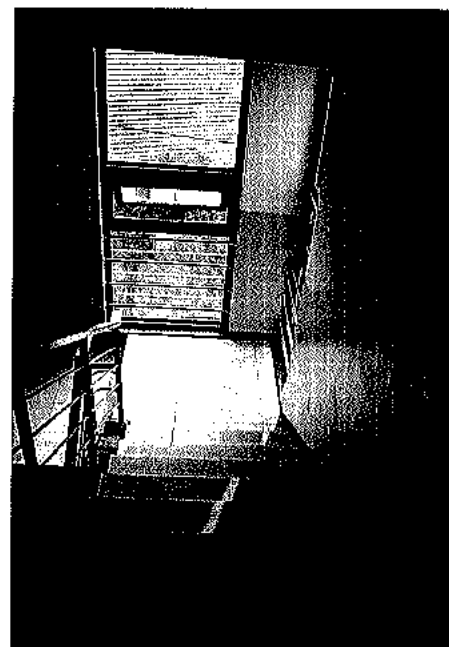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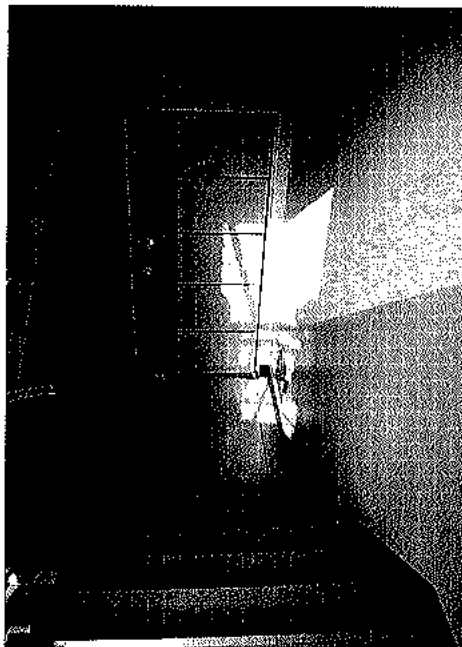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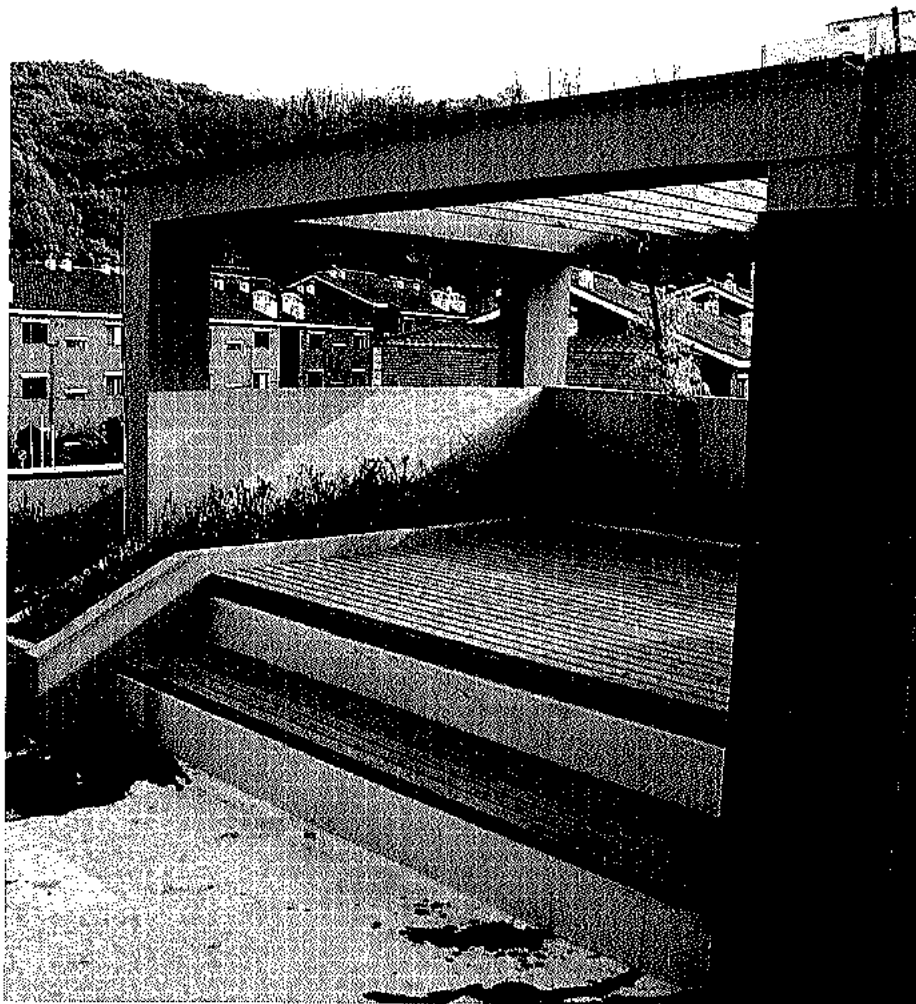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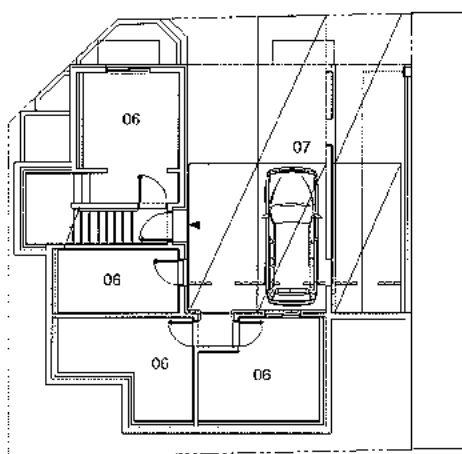
종단면도

- 01_전관
- 02_거실
- 03_방
- 04_식당
- 05_주방
- 06_주차장
- 07_화장실
- 08_욕실
- 09_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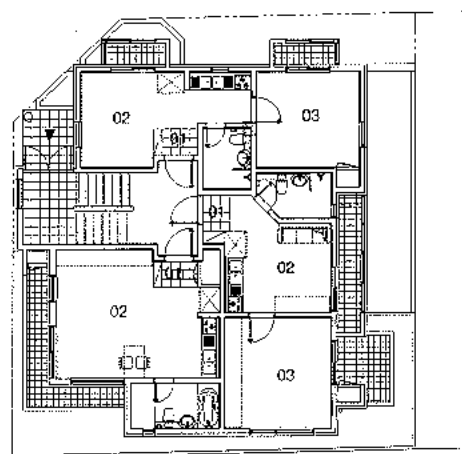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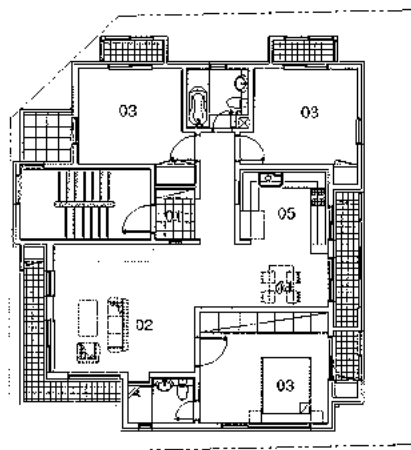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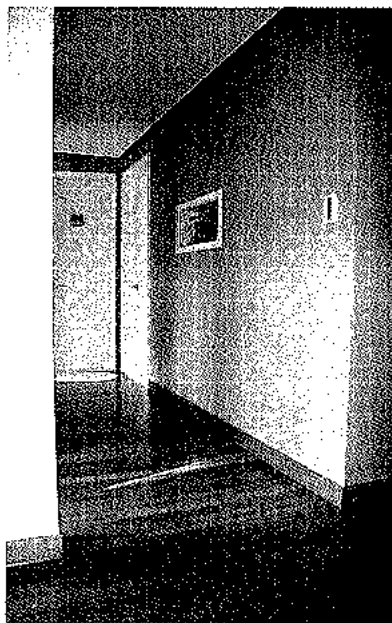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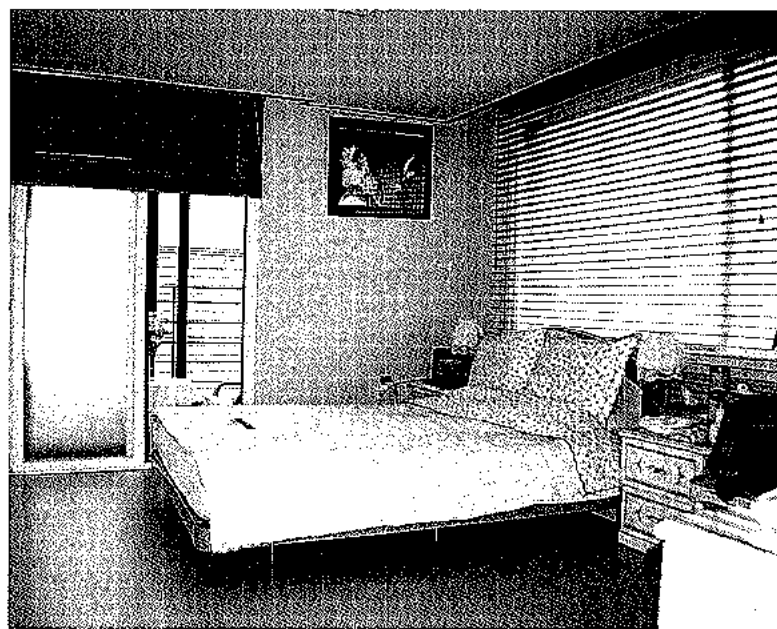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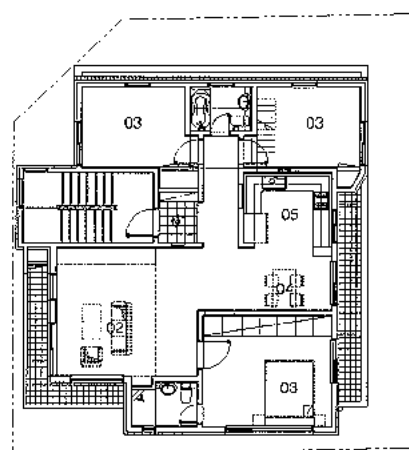
- 01. 전
- 02. 방
- 03. 방
- 04. 식탁
- 05. 주방
- 06. 창고
- 07. 주차장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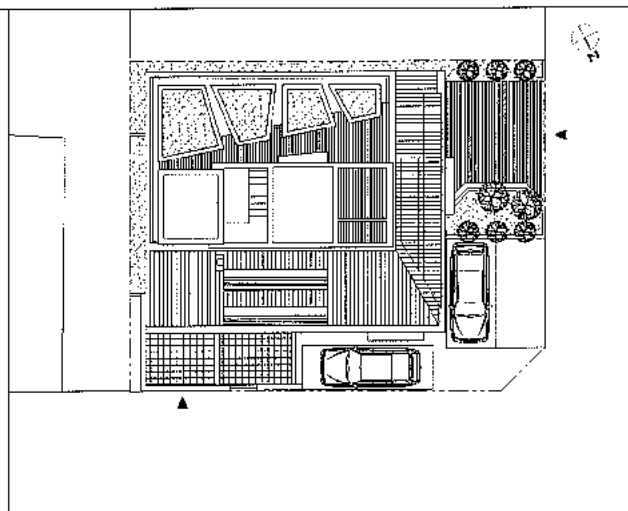
잠원동 금강헌

Jamwon Dong Gumgang-Hun

김복지 / 건축사사무소 건축포럼
Designed by Kim Bok-ji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6-1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5가구)
대지면적	291.4㎡
건축면적	172.7㎡
연면적	1,018.6㎡
건폐율	59.3%
용적률	299.9%
규모	지상6층, 지하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	8대
외부마감	우드사이딩, 문경석 버너구이, 카파보니토 물갈기, 동판잇기
설계담당	박병수
구조설계	키스톤엔지니어링
설비설계	청림설비/ 무림설비
시공	예림건설(주)
설계기간	2002. 3~2002. 5
시공기간	2002. 6~2002. 11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골목길은 추억의 산책로이자 동심의 저장소이다.

변화와 현대화의 모습들이 도시의 얼굴을 드러내 주는 광채일 것이지만, 골목길이 있으므로 삶의 체취, 마음의 교감을 느끼게 해 준다.” (정목일 ‘골목길’)

도시의 골목길마다 때아닌 건축열기로 극심한 몸살을 앓아야 했던 2002년 초 이 집을 처음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었을 때 ‘골목 집’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웃 간의 주요한 교류의 장이었던 골목길은 더 이상 통로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서울 강남의 중심가로에서 불과 20m 안쪽의 골목길에 면한 부지 주변 역시 대로변의 매머드스케일과는 사뭇 다르긴 해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속박(고밀도 개발)이 강할수록 이 속에 사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거의 예외 없이 옛 것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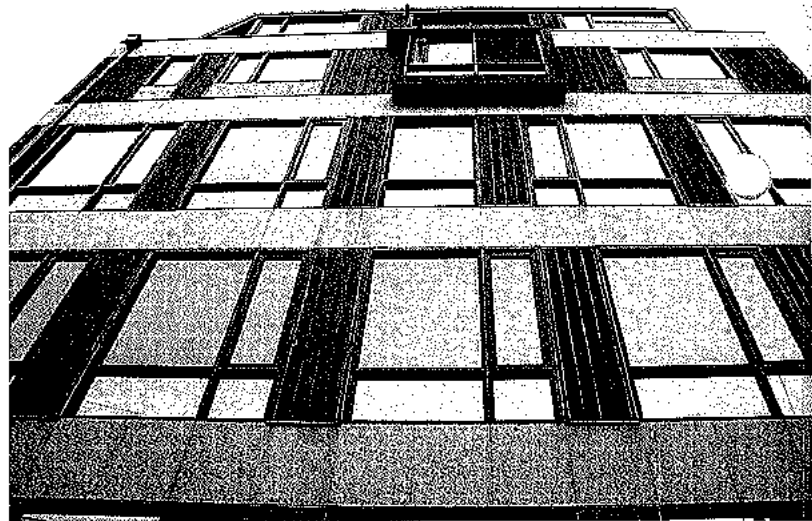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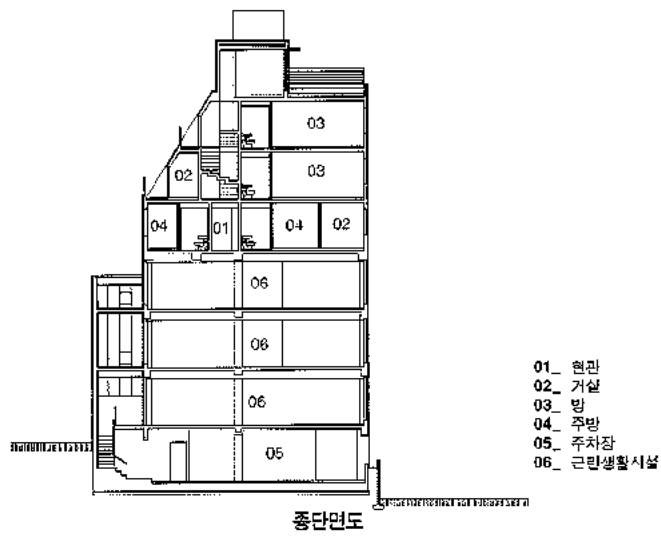
한 향수 같은 것이 강렬하게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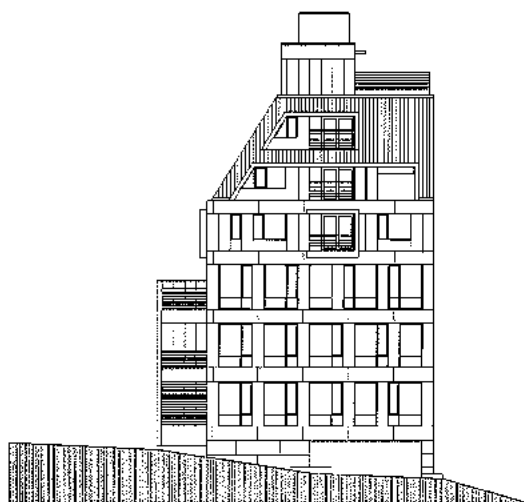
그러기에 건물 속으로 골목길의 향취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여러모로 탐색해 보았다. 지하층에서 옥상까지 전층을 연결하는 주계단, 수직 쪽창을 낸 엘리베이터, 전면 출입구 상부의 휴게공간, 옥상 휴게공간 등을 통하여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은밀함, 끊어질 듯 이어지는 아련함, 온기가 전해져 오는 살가움 등을 품고자 하였다. 전면의 돌출매스는 작지만 여러 가지가 압축된 것으로 행로의 시작이요, 마침표가 된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은 모두 분가한 터라 무척 홀가분해 보이는 노부부 건축주에게 옛집이 있던 이 땅과 이 집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떠하기를 소망할까 자못 궁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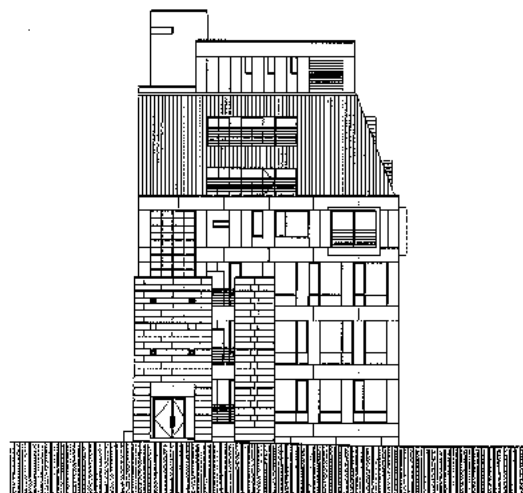
조용한 전원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던 그들의 발길을 이 곳으로 돌려놓은 결정적 동인은 그들의 왕성한 사회활동무대가 도시였던 까닭이었던 한편, 삶의 질을 중시하는 그들이기에 낯다른 감회가 숨어 있을 터였다.







우측면도



정면도



그럼에도 디자인에 있어 꽉 채우는 것보다는 조금 덜 찬 것이 훨씬 내용상 풍족할 수 있다는 역설적이지만 보편적인 진리를 설득하기는 어려웠다. 최대규모로 할 때 상부의 경사지붕은 거부할 수 없는 결과였기에 주거공간에서 기울어진 벽면의 수용 및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사용공간을 그나마 보충해도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경사진 측면도로 덕에 쉽게 해결된 지하주차장 위로 3개 층의 임대용 근린시설과 3개 층의 주택을 올려놓았다. 주변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4층 이상은 조망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도 주거의 독립성 등과 함께 이런 구성을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였다.

평면적으로 4층은 전용 10평대 규모의 임대용 3세대로 정하였으나, 5층과 6층은 우선은 각1세대가 사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각기 2세대로 나눌 수 있게 해 달라는 까다로운 요구가 있었다. 이는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대비해야하는 현실의 반영이었다.

도로사선제한과 일조권 고려에 따라 5층과 6층 외곽선의 두 면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상황은 더욱 이 같은 요구조건을 해결하기 쉽지 않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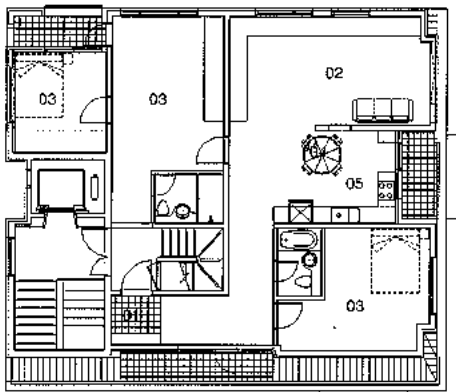
또한, 주거와 근?생 기능이 비슷한 비율로 복합됨에 따라 외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그래서 실 기능과 크기가 각기 다른 주거와 다양한 용도에 대응해야 하는 근린시설의 외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수평밴드의 적층형식을 사용하였다. 층간을 구분 짓는 화강석의 수평 띠를 통일된 고정요소로 하고, 그 사이를 층고나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된 개구부를 가변요소로 보아 벽면과 창외배열이 일정치 않은 또 하나의 수평 띠를 두었다. 크기는 60cm를 기본모듈로 하여 일관성과 정체성, 또 다양성을 겸비한 외관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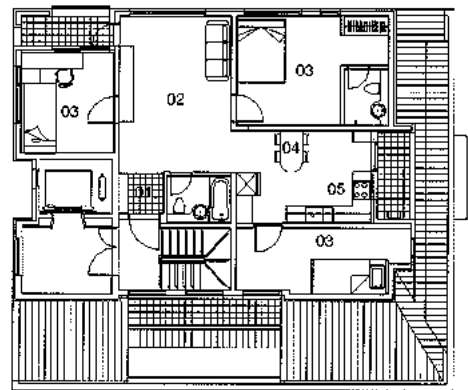
주택이 있으므로 해서 특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자연재료를 적극 도입하여 외벽과 바닥일부에는 화강석, 목재사이딩(홍송)을, 지붕에는 동판 기와가락이음을 채택하였다.

벽면에 쓰인 외장용 목재의 경우, 내구성에 대한 건축주의 염려로 인하여 공사하는 내내 세심하게 확인했었고 결과적으로 만족감을 얻게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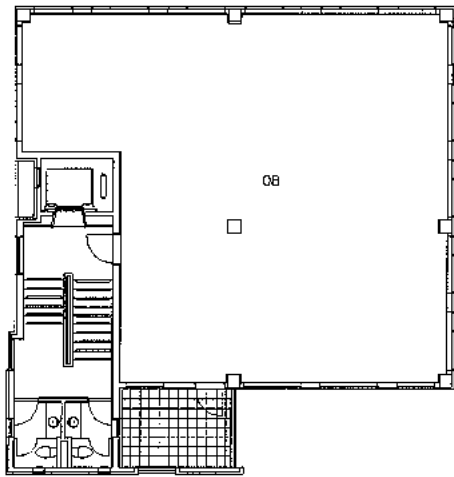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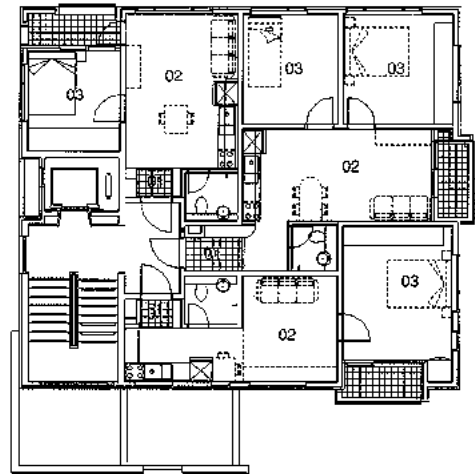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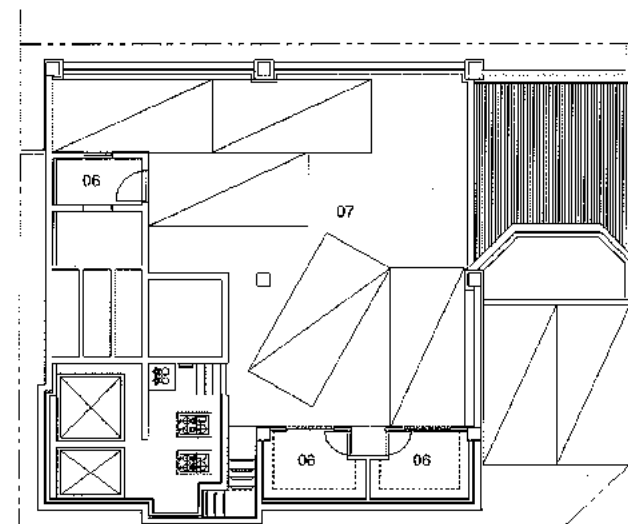


2~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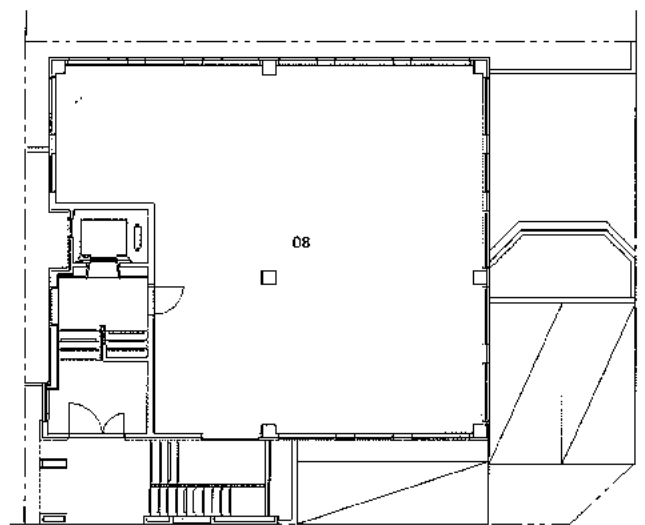
- 01. 원판
- 02. 거실
- 03. 방
- 04. 식당
- 05. 주방
- 06. 창고
- 07. 주차장
- 08. 근린생활시설



4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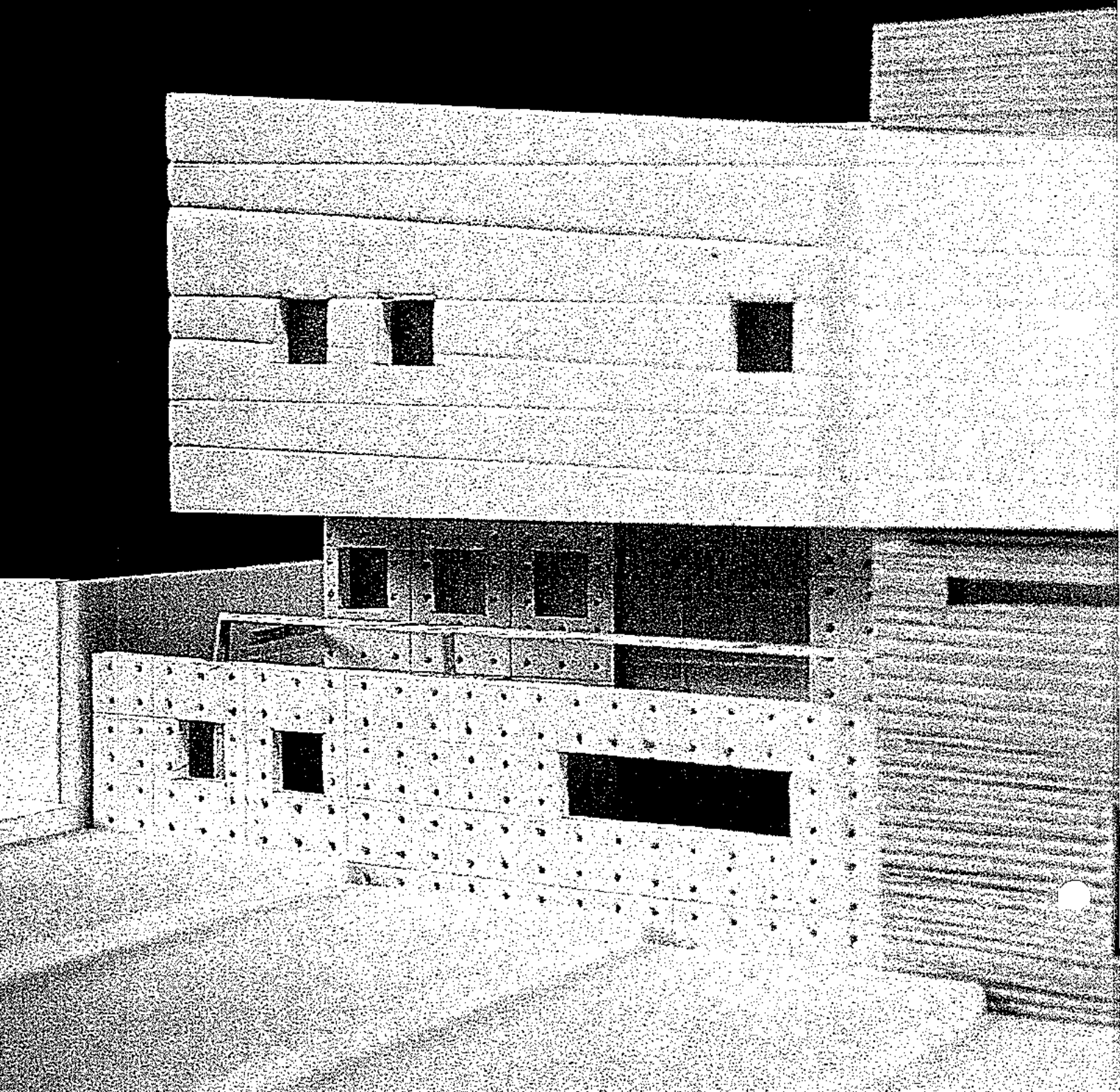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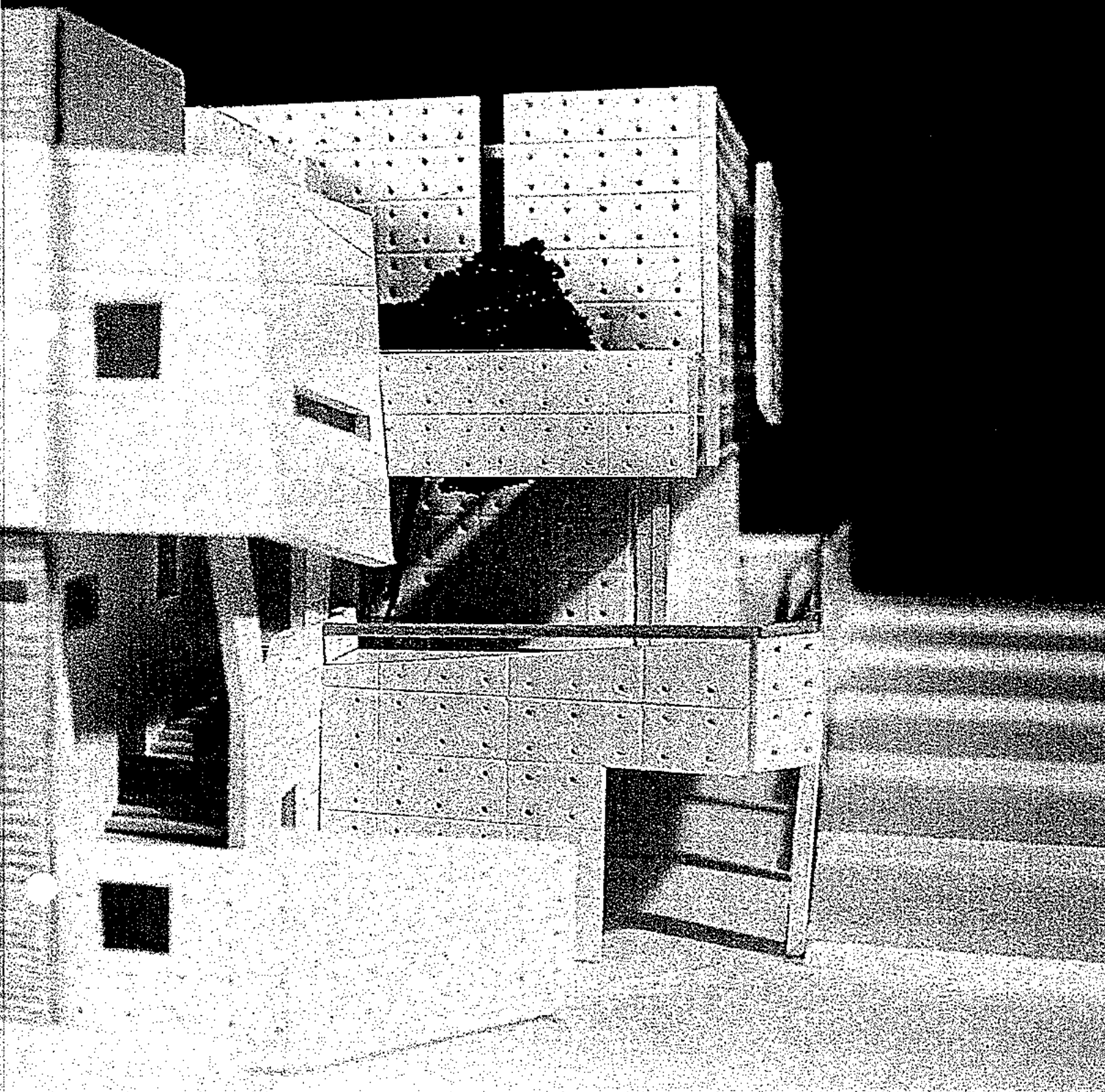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스펙트럼

Spectrum-Autistic Disorder Clinic Center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100. 열린 自開/ 닫힌 他閉

열려짐은 곧 닫혀진 것을 말하고, 그 반대의 개념도 동일한 이치다. 더욱이 전통 한옥의 마당 구성원리를 잘 눈여겨 보면 더욱 그러하다. 분디 마당은 채에 의해서 분화되면서 마당의 공간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마당은 그 속성 자체가 열려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 마당은 언제나 닫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열리고 닫히는 신비한 공간이다. 이러한 전통마당의 열림과 닫힘의 원리가 건축개념의 힘이 되는 것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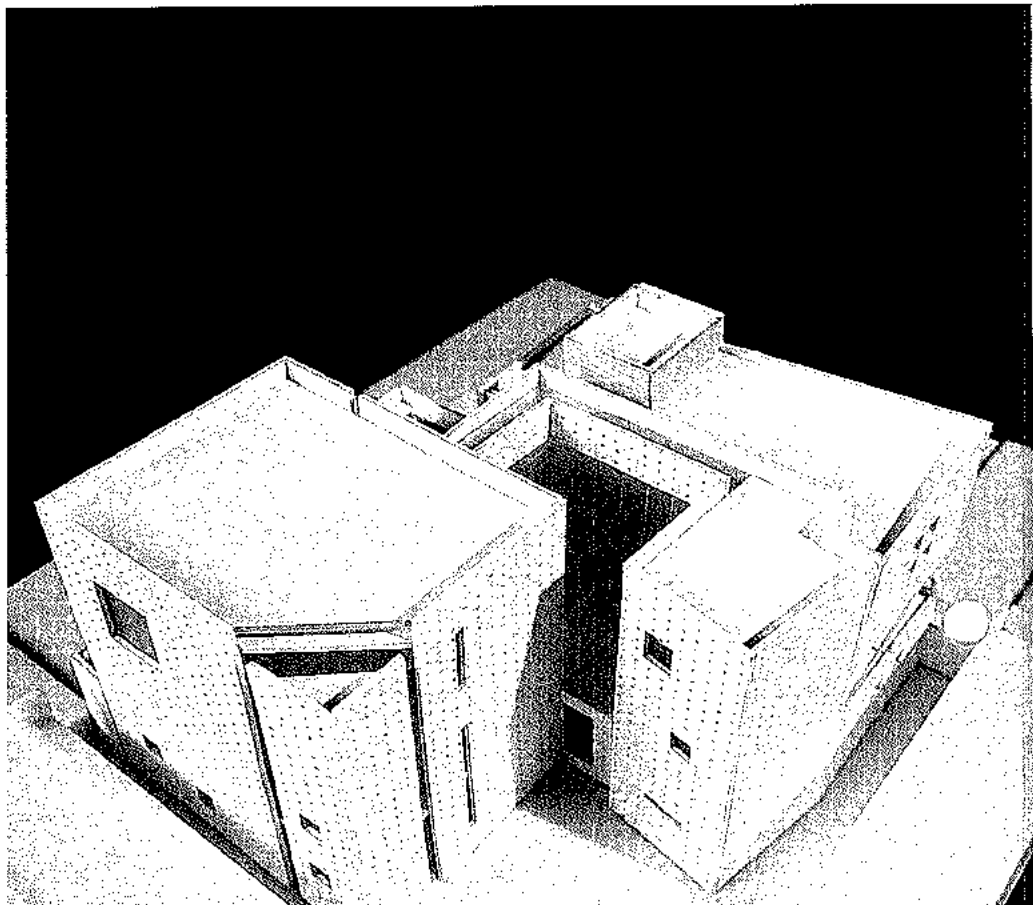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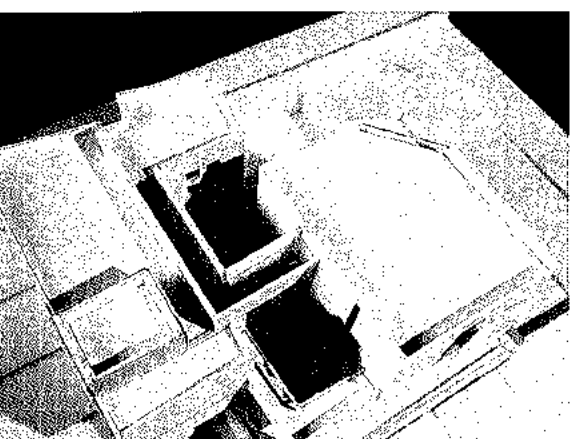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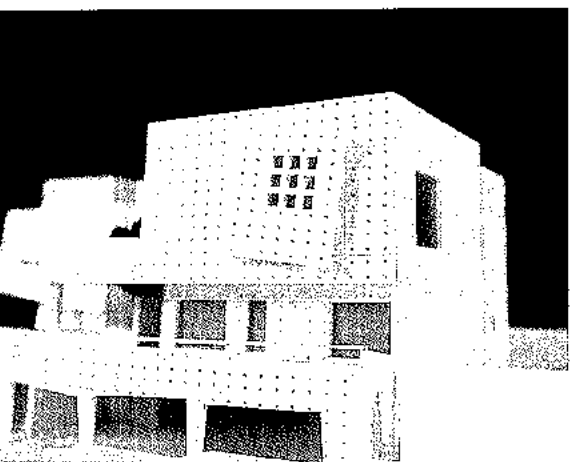
자신을 폐함은, 내적으로는 혹독하게 자기 스스로를 열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보통 정상적인 사회활동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자신을 감추는 사람을 보고 왜 그들을 '자폐성'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들이 만든 객관적인 기준일뿐 그 범주는 정확하지가 않다. 아니 옳바른 기준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만든 카테고리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가상의 기만 속에 나쁜 판단이 우선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자폐에 관한 여러 보고서를 살펴보면 < 자폐증으로 진단받은 아동들 중에는 거의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괄적 커리큘럼의 치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적합한 치료가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치료후에 비자폐로 진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증세(symptom)는 없어졌으나 성향(tendency)이

아직 남아 있다면 치료가 완전히 되었는가의 판단은 어떻게 내리는가 하는 문제이다./ 성향만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할 수가 없는 점은 만약 특정한 것에 집착을 보이거나 수시로 몸을 흔드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사람에 비해 심하게 관찰된다고 그것을 자폐의 장애로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폐스펙트럼의 장애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성 기술에 있어서 남달리 지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12세가 될 때까지 의사소통 기술이 크게 떨어진 아인슈타인 박사에게는 너무나 많은 자폐적 성향이 있었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로만 보았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자신을 폐한다는 것은 실재는 자신 스스로가 폐하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폐함으로 인한 자폐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외부로부터의 폐는 자신이 열어놓은 것을 남들이 폐함으로서 상대를 자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타폐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데 헤겔사유의 방식으로 보면 실제 가상과 기만을 통한 대립의 통일로서의 변증법은, 모두가 폐하고 그리고 열린 세계로 가는 두 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순의 극복이라고 본다. 모두가 자폐이고 모두가 열려져 있다.

200. 스펙트럼(spectrum) 사유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를 통과한 빛이 무지개처럼 여러가지



의 연속체적인 합성체를 이루어 나타나는 빛깔의 띠를 보고 스펙트럼이라 한다. 이렇게 차례로 늘어 놓은 파장의 연결과 마찬가지로 자폐증의 증상 또한 다양한 분류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자폐증(autism)이란 말 대신에 자폐성 장애(autistic disorder)로 그 용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 태양 스펙트럼(solar spectrum)은 가장 위에 위치한 빨간색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보라색까지 그 어떤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의 색 변화만 연출하는 연속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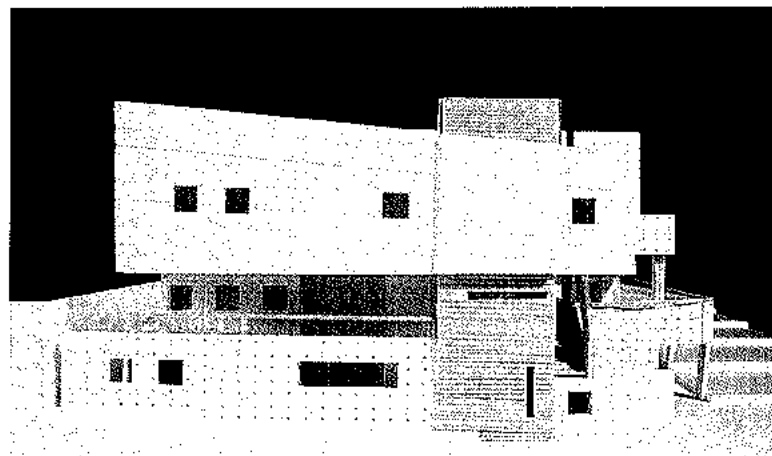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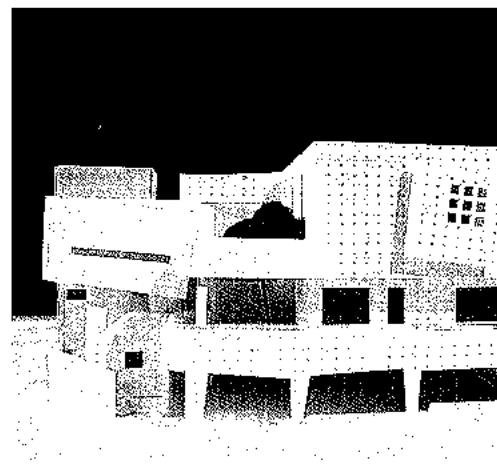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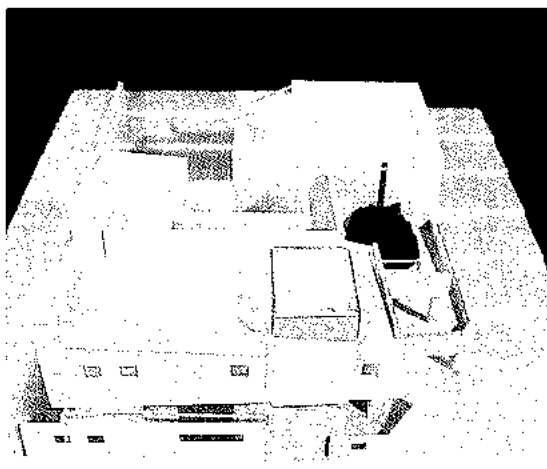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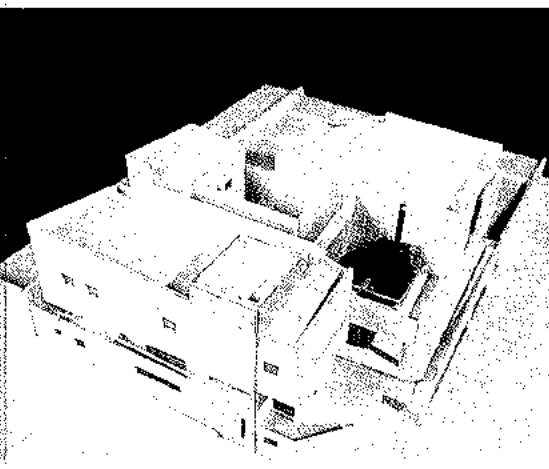
전자기파(電磁氣波)중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체로 380-770nm의 범위의 파장을 가지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자외선은 태양 스펙트럼에서 보라빛의 바깥에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복사선이다. 또한 공기중의 투과력이 강하고 파장이 가시광선 보다 긴 적외선도 보지 못하는 비가시광선이다. 이렇게 다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비가시광선도 역시 우리 앞에 존재하는 빛이다. 단지 볼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 있을 뿐이다.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식한다는 것 보다 우선이다. 즉 존재가 공간에 공허한 진리의 가상속에 현현한다. <“즉자(Das An-Sich)는 어떤 것을 위한 가상화(Scheinen)속에서 그의 진리에 도달하며 반면 헛되이 공허한 즉자인 내적-외적 자연 및 정신의 직접성은 어떠한 진리도 자립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은 본질에 대해 본질적이다.”(Szondi, 헤겔미학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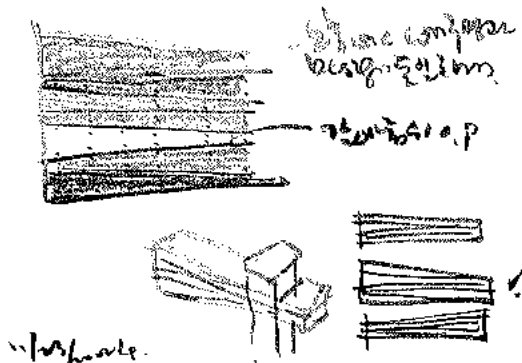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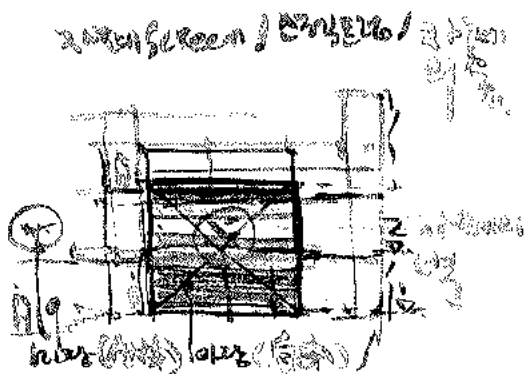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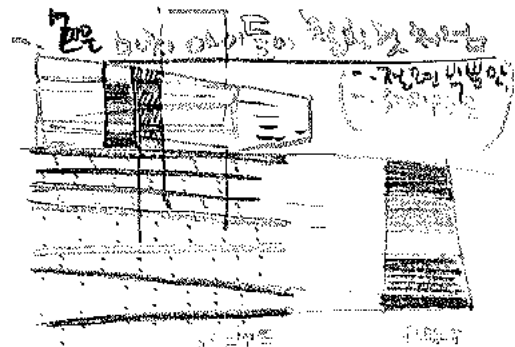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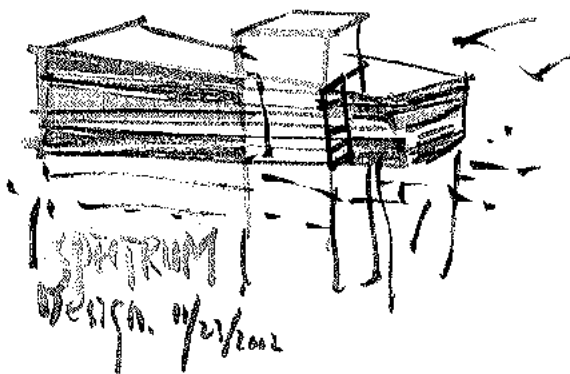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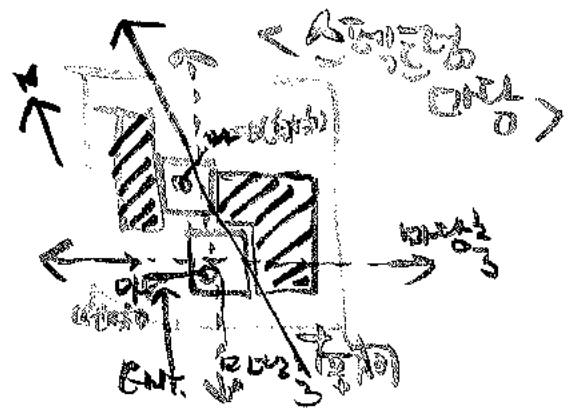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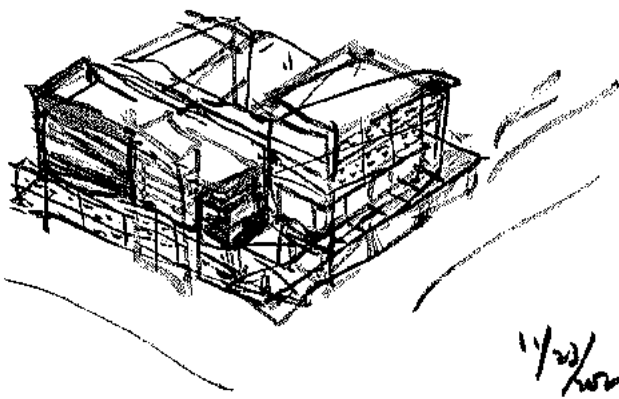
p.80)”> 라는 헤겔의 말처럼 가상의 문제는 진리가 우리 옆에 존재한다는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광선의 레이어는 수만가지이다. 스펙트럼에서 볼 수 없다는 그 빛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성적 가상은 기만은 아니다. 가시광선으로서 볼 수 있다는 현실과 가상 속의 비가시광선 또한 모두 공간 구조에 존재한다. 베르그송도 지속의 공간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다. <공간이란 칸트에서처럼 감각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만들어낸 허구이다. 우리는 멜로디 속에 공간적 이미지를 집어 넣고 있으며, 또 동시성을 지닌 계기를 수태시키고 있다. 공간속에, 오직 공간에서만, 서로 외적인 부분들의 명확한 구분이 있다. 더욱이 내가 아는 바로는 우리는 보통 공간화된 시간 속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다. (송영진 편역, 베르그송의 생명과 정신의 형이상학, P.45-46)>

태양 스펙트럼은 공간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형식으로서 우리가 스펙트럼적인 존재자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그 공간은 공간화된 시간 속에서 그 시간성의 공간 속에서 모두가 존재하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유사자폐증, 동질적 증후군, 복합적인 증후군등의 복잡한 장애 진단을 내리고 있으며, 그 원인 또한 세로토닌(serotonin-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도파민(dopamine-신경세포간의 메신저기능)의 불균형, 엔도르





핀(endorphin)의 불균형등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수많은 빛의 연속체처럼 스펙트럼의 전 영역은 마치 인생을 보는 듯한 레이어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분류되는 아동들은 스펙트럼과 같이 다양한 증상적 특성을 보이는데 대체로 의사소통(communication),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적절한 행동패턴(appropriate behavior pattern), 여가와 놀이기술(leisure or play skills)등의 4가지의 영역에서 어

려움을 보인다고 한다. 자폐성 장애를 스펙트럼식으로 분류하면 우리는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무지개 빛 어느 지점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인간은 스펙트럼 장애아가 아니라 다만 스펙트럼 선상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300. 자폐의 숲

자폐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인가? 그곳은 땅인가 하늘인가 아니면 숲인가. 하늘은 하늘에

속하고, 땅은 땅에 속하며, 숲은 숲에 속하지만 모두는 공간 구조 속에 있는 공간화의 개념에 존재한다. 공간을 떠난 곳은 있을 수 없으며, 공간 또한 시간 속에 공존한다. 이런 공간에서 숲은 건축에서 건축 공간화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닫지 않게 하고, 아니 열고 있는 아이의 호흡을 더욱 마음껏 발산하게 만드는 공간이 필요 할 것이다.

자폐의 숲을 만들기로 한다. 태양 스펙트럼처럼 굴절된 광선의 레이어에 모든 사람이 다 속해 있고 어떤 사람도 그 연속된 범위를 벗어 날 수는 없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그 속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열려져 있고 어떤 범위까지 닫혀져 있는가?

이렇게 자폐의 숲은 태어났다. 이곳은 자폐가 아니라 타폐가 존재한다고 할수 있다. 결국 누구나 자신에게는 자폐일 뿐이다. 오히려 자폐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폐아는 정상이고 그 타폐아의 입장이 더욱 타폐적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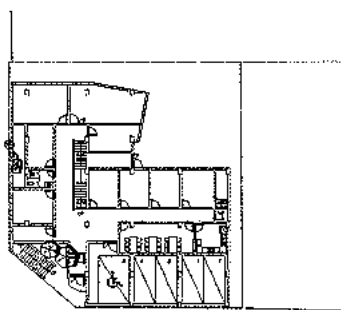
자폐의 숲은 일곱가지의 가시광선으로 디자인을 한다. 이 스펙트럼의 색은 마치 아이들이 칠한 것처럼 한다. 세련되지 않게 한다. 텅텅하게 한다. 무지개의 색의 화려함은 벽의프리즘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의 세계이다. 스펙트럼의 의미는 은유적인 알레고리를 갖는다. 그것은 '자폐성 (붉은) 파장'을 상징하는 하나의 빛이다. 내가 속한 곳이 어떤 빛이라도 나는 어떤 경계선에 있겠지. 그것은 하나

의 빛일 뿐이다. 아름다운 광선일 뿐이다. 그리고 노출콘크리트는 둔탁하게 아이들이 마감한 것처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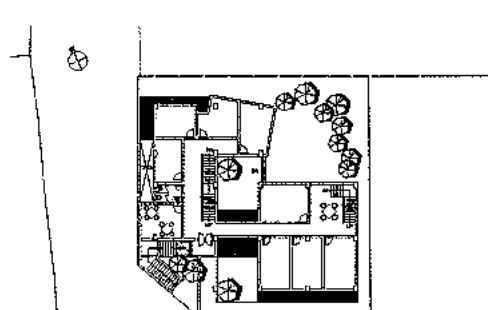
이곳에 오는 스펙트럼 장애이는 결국 모두의 레이어에 속한 인간 속에 나도 다만 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되길 바란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폐의 아름다운 숲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아를 자폐아라고 한다는 사실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레인맨의 석학적 행동의 천재성도 우리 주변의 모습이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폐의 숲은 비가시광선까지도 담아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정신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폐의 벽은 자폐의 마당과 일체가 된다. 여기가 스펙트럼 마당이 되는 곳이다. 자폐의 마당은 스펙트럼 공간이 된다. 이곳은 물론 안마당으로서 자폐의 벽으로 둘러싸였지만 또한 자폐의 벽으로 열려진 공간이다. 여기에 있는 마당은 자폐의 숲으로 둘러싸인 그 속에 존재한다. 마당이 마당인 것은 열린공간과 닫혀진 공간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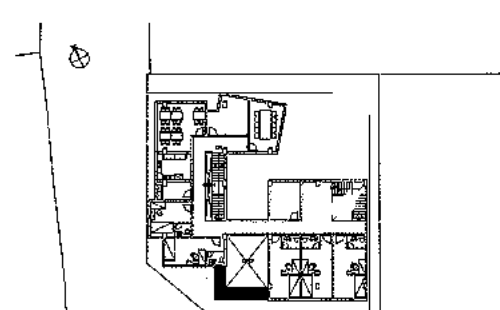
이제 이 자폐의 스펙트럼 마당은 이번 설계에서 자폐의 숲과 함께 자폐 아이들이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 된다. 아들이 인식해야 될 일은 자신을 폐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폐함을 벗고 열려진 이 공간의 숲에서 그 마당에 존재하는 일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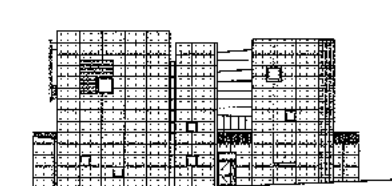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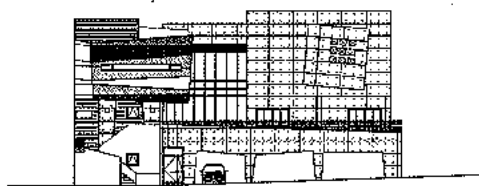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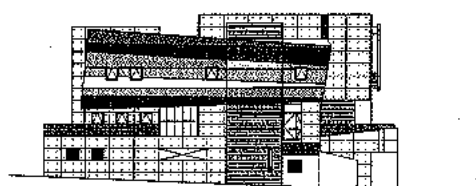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Kangbuk-gu Complex Gymnasium

김원규 · 심우근 / (주)단우건축사사무소 + 박천정 / (주)그림원 + 서기영/ 성균관대 교수
Designed by Kim Won-Kyu, Shim Woo-Keun, Park Chan-Jeong & Seo Ki-Young

현상설계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단기간의 프로그램 해석과 아이디어, 주변 CONTEXT에 대한 적절한 대응, 형태와 공간의 구성 등을 주어진 기간-보통 한달 남짓-동안 끊임없는 고민, 반복된 작업을 거치면서 해내야 하는 피곤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대로 건물이 제 형상을 갖추어 나갈 때의 가슴 설레임은 긴장감과 완성된 제출도서를 접수할 때의 뿌듯한 개운함,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의 설레임과 기대, 당선되었을 때의 현용할 수 없는 즐거움은 현상설계만이 가질 수 있는 큰 매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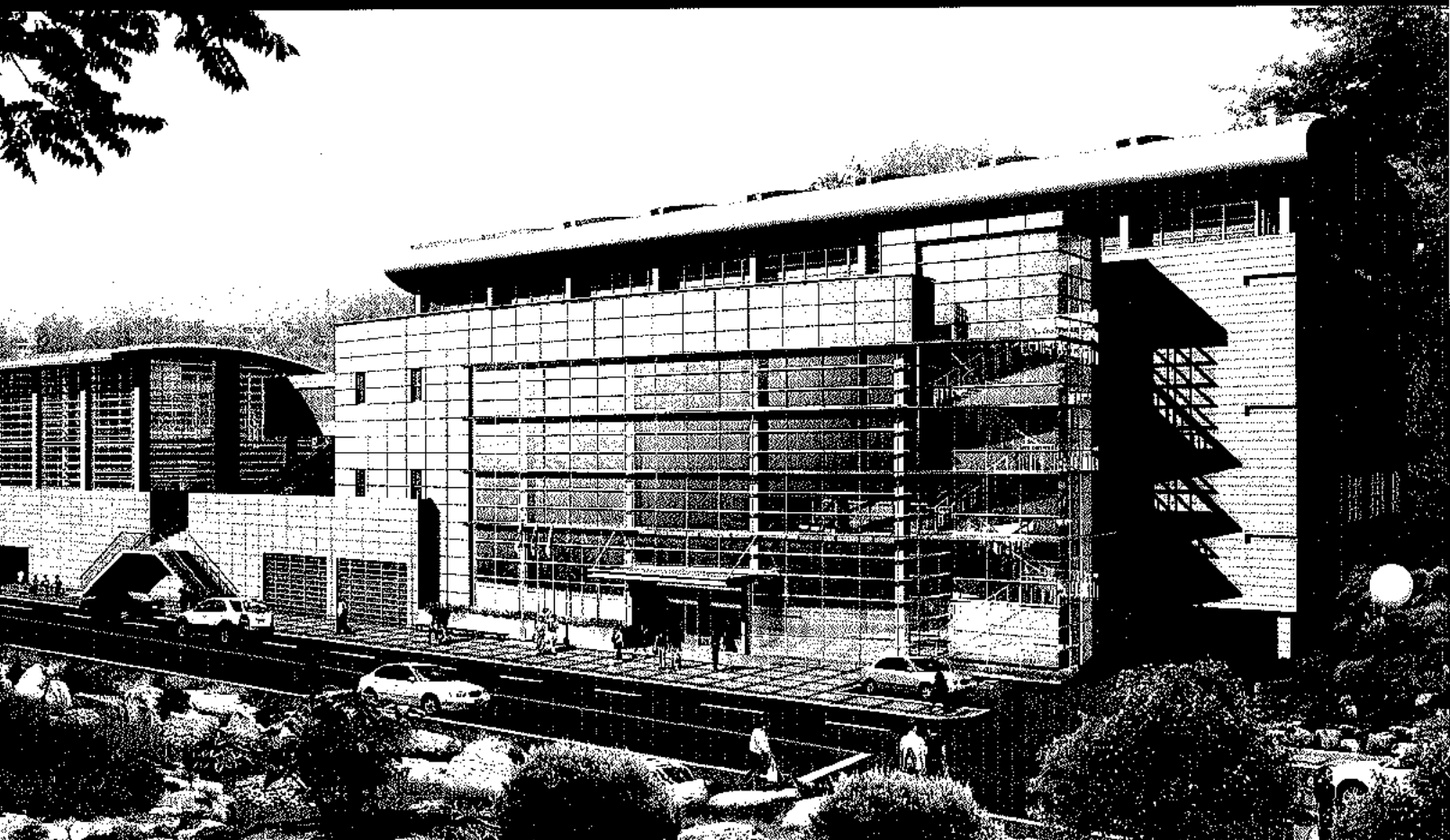
마치 한달 뒤의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처럼, 그 피곤하고 복잡한 결혼준비와 더불어 약간의 설레임과 기대를 갖게 되듯이 말이다.

물론,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의 당혹감과 당선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현상설계와 관련해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심사의 방법과 적절성, 공정성의 문제와 상관없이, 당선되었을 때의 그 즐거움은 다시 현상을 하고 싶게 만드는 중독적인 요인인 듯 하다.

강북구민 종합체육관은 2001년 12월, 일반 공모로 진행된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프로젝트로 공동작업을 통한 많은 토론과 문제 제사, 건축적인 ISSUE, 공간 구성상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본, 나름대로 즐거운 일이었다.

건물이 서게 될 땅은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오동근린공원의 진입부로 전면 6M 도로에 면해 있고, 도로 건너편으로는



주공 아파트 단지가 측면을 맞대고 위치해 있어서 주거지역과 근린공원의 연계가 중요한 곳이었다. 또한 강북구민운동장이 인접해 있어, 주차장 문제 등 공공시설과의 연계 또한 무시 못할 사항이었고, 대지 후면에 울창한 숲과 경사면이 있으므로 지형을 적절히 활용하는 계획이어야 하고 지질이 대부분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절성토량을 최소화하는 공사비 절감 또한 중요한 문제였다.

요구된 프로그램은 종합체육관과 다목적체육실, 스쿼시장, 수영장, 헬스실과 에어로빅장 등 종합 체육센터로서의 기능에 유아방, 식당 등의 편의시설 기능으로 보통의 체육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솔직히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보다는 건물이 서야 할 땅에 대한 해석이 더 까다로운, 그래서 더 재미있을 것 같은 프로젝트였다.

대지가 놓여 있는 위치상, 아파트 단지에서 오동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대지 내에 적절히 형성하는 아이디어와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두 볼륨, 체육관과 수영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가장 큰 ISSUE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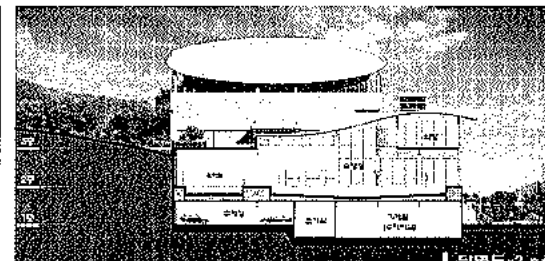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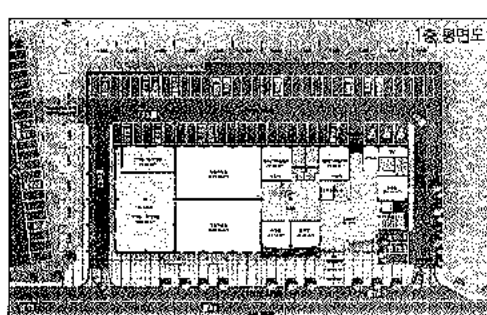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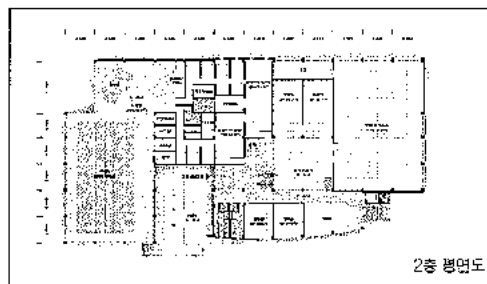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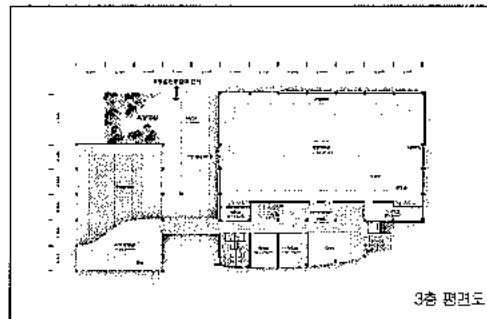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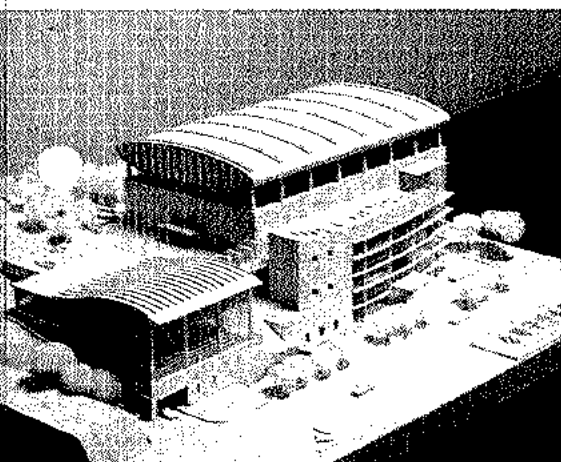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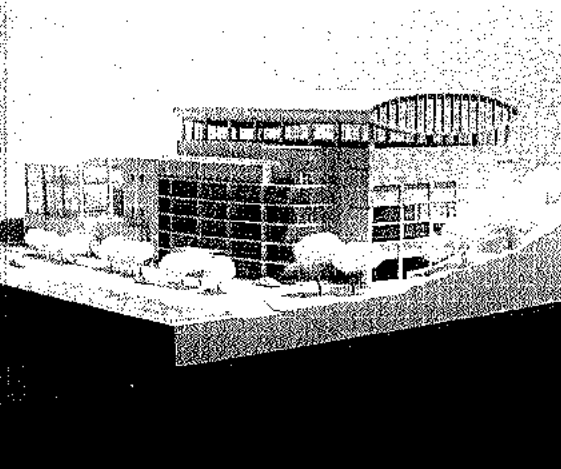
우리가 제시한 안은 수영장과 종합체육관을 지상에 두 개의 볼륨으로 이격 배치하고 그 연결부에 DECK와 계단을 두어 오동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보행흐름을 유도하자는 것이었고, 주차장도 대지의 지반을 고려하여 지하층 계획을 지양, 1층 필로티를 이용함으로써 토공사 비용을 최소화하는 야

마도 이런 점들이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듯 하다 방법이 었다.

일반적으로, 대지에 신축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건폐율 등의 규정상 체육관과 수영장을 두 볼륨으로 이격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강북구민 종합체육관은 오동근린공원 내에 신축하는, 법적으로 대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땅이어서 건물 배치상 지하에 배치되기 쉬운 수영장을 지상으로 끌어 올려 환기 및 채광을 크게 개선하였다.

층별로는 일반인의 접근이 가장 편한 1층에 이용 빈도가 높은 헬스실과 에어로빅장을 배치하고, 2층에는 수영장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 다목적체육실(베드민턴, 체조 등) 및 스쿼시장을, 3층에는 종합체육관과 식당(수영장 상부)을 배치하여 용도별 이용자의 동선이 혼잡하지 않도록 고려하였고, 오동근린공원으로 연계되는 외부 DECK에서 각 층별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현상설계 당선 이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담당구청의 요구 사항으로 건물규모가 800㎡ 정도 커진 것 이외에는 애초의 안대로 마무리되었지만, 오동근린공원 입구에 위치한 관계로 공원심의를 2번이나 받아야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일이었다. 아직 건물이 완성되려면 2년여의 시간이 더 지나야 하겠지만, 강북구민의 여가 활용과 주민 복지에 작으나마 기여를 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건축 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북구 반동 318번지 외 1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4,539.60㎡
건축면적	3,462.36㎡
연면적	6,828.31㎡
구 모	지상3층
구 조	최근콘크리트조, 일부철골조
외부마감	화강석, AL, 쉬트, CRC PANEL, 칸라목충유리
구 조 비	장·민우구조
설 기	하나기연
전 기	하나기연
설계담당	최용연, 박기선, 조진형, 윤제환, 조성진, 최승림

사대문(四大門)안의 도시와 건축

The Architecture and Urban Planing of Central Seoul

최승원 / 양기주망 건축사사무소
by Choi Seung-Won

정부청사가 옮길 예정이고 청계천 고가도로와 복개를 없애고 있고 시청 앞이 시민의 광장이 되려고 움직이는 것은 서울의 역사 이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커다란 경주가 변하여 역사 속의 작은 도시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서울의 건축과 도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서울을 손질할 수 있는 기회는 6.25전쟁 직후 한 차례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5.16직후 경제 재건 전에 있었으나 모두 기회를 놓치고 현재에 와 있다. 지금은 큰 기획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며, 문화·관광·금융·교육의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 중 교육의 개방 및 교육 시스템의 자유로운 도입 실천이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서울이 100년 전에는 초가집이 주축을 이루는 생태적인 고도이었으나 중국의 몰락으로 문화권이 바뀌고 주변 강국들이 넘나들면서 4000년의 문화 환경이 빠른 변혁을 시작한 것이다. 60년 전에는 일본집들이 꽤나 많이 보였으나 소멸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전후 10년 간은 매우 어렵고 빈궁한 도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전쟁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으로 문화 유산이 난도질당한 나라가 되었다.

말과 마차의 시대에는 사람이 주택과 도시의 중심에 있었으나 지금은 50~60년대 영화(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나 그 일부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자동차가 도시의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기는 오염되고 스모그·안개·황사 등이 겹칠 때는 아름답고 활기 있는 서울의 기운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 공공시설에서 금연하듯이 서울도 금연의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 대구시가 조경정책으로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있듯이 서울도 서울의 철학을 세워 변화하는 도시에 힘을 실어야 한다.

도시는 생로병사 하는 것이다. 병든 다음에는 죽는 것이다. 대도시들이 병들어 있어 갑자기 전쟁이나 질병, 기아 등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 외과적 수술도 필요하겠지만 서울의 수명연장을 위해 서서히 서울에 새 기운을 넣을 필요가 있다.

서울의 환경에 대하여 실망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면 50년 후에는 새로운 서울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울을 병들게 하는 것은 자동차의 동맥경화증이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겠지만 우선 사대문안에는 주말에 자가용차의 출입을 금지하자. (자동차를 서울에서 비워보자) 이것이 시행되면 공기는 맑아지고 보행자의 거리가 확대되고 도심의 식물녹화에 도움이 되고 캠페인으로 관광객이 증가 될 것이다. 또 일방통행 강화로 2개 차선을 녹지화할 수 있고 1개 차선을 자전거에게 주자.

사대문 안에 건축 시 더 이상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 건축법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없애자. 주차장 건설이 차를 부르면서 악순환 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은 무조건 전차도 좋고 GAS 튜브 버스도 좋다.

하천 위에 지은 아파트들을 철거하고 사대문안의 새로운 고층 아파트 건설을 중지하여 사대문 안의 경관을 살려 나가자. 일본 강점 시대에 잘린 성을 더 복원하면서 공원 개념을 추가시키고, 각 대문의 양쪽날개를 복원하고 날개 밑으로 반지하 도로를 만들어 차가 다니게 하자. 남아있는 달동네도 보호하고 한옥 마을도 살려 나가자.

건축은 정체성이 있으면서 사대문안에 어울리는 건축이 필요하다. 동경이나 뉴욕의 축소판 식을 버리고 우리의 서울을 꾸며 보자. 간판 없는 도시를 정보 통신 기술로 만들고 간판 낭비와 어지러움을 벗어나 보자. 거리 이름과 건축 번호도 간판 전화 번호 옆에 추가하여 그것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궁궐을 복원하면 문화 시설로 사용하자. 고궁으로 역사극이나 만들어 옛사람들이 암투를 벌이는 모습만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면 현재와 같은 정치를 치유할 수 없다고 본다. 복원된 수원 행궁에 기대를 걸어본다.

현대 건축은 지하 주차 문제로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위한 계획이 아니 되고 지하 주차장 건설 때문에 7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는 실정이다.

현재의 교통시스템이 바뀔 때가 되었다. 과소비의 비만증 건축·도시가 다이어트를 하여 사대문안을 비워 나갈 때 현재 도시의 현대병이 치료되어 나갈 것이다.

경기도청 서울시청도 없애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합하여 수도권청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정부청사 이전 후 과천 청사로 입주할 수도 있다. 행정조직 축소와 효율

적 운영은 국가 경영에 중요하다.

사대문 안이 사람 위주로 다시 살아난다면 동아시아 중심도시로 파리나 부다페스트 같이 세계 사람이 가고 싶은,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받고 싶은 메카 도시로 꾸밀 수 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관광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투명한 건축과 도시가 보일 것이다.

정부청사도 옮기게 되고, 청계천도 변하고 시청광장이 변하는 것이 현실인데 정치인·행정가·전문가들이여 무엇을 망설이는가? 청계천 복원에 불만이 있으면 생태적으로 하지고 적극 나서자.

우리에게 무엇(대운 또는 악운)이 오고 있다. 현실로 그림을 그리자.

백제의 수도 같이 후퇴하지 말고 정부 청사의 위치도 서울과 평양 중간에 20년 목표로 건설되면 자연스럽다. 100년간 홍콩을 빌려 쓰듯이 50년간 빌리고 힘을 내보자. 통일 준비금도 필요하기에 정부 청사 이전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베를린이 섬 같이 동독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요란하게 꾸미고 있는가. 금강산을 사용하듯이 인구밀도 적은 북한 지방을 청사 기지로 정하고 브라질 신수도와 같이 새로운 국제 관광지가 되게 하자. 그리고 고속기차를 연결하자.

도시 내에 성이 있는(수원, 전주 등) 모든 도시는 나아갈 바를 고민해 보자. 물량 위주의 설계를 버리고 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일할 때 건축과 도시가 튼튼해 질 것이다.

건축 혼자 잘 해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북의 정치인들이여, 건축 도시 전문가들이여, 민족의 그릇을 키워서 문화 대국의 천년을 시작합시다! ㉮

피카소에서 스피버그까지

What do you think of Pablo Ruizy Picasso and Steven Spielberg

이재림 / (주)지담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Jae-Rim

I. 작년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한 학생이 사무실로 찾아와 몇 개월 후면 입대를 해야하니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익하겠는지 조언을 구했다. 강의를 들 때부터 총명해 보였던 터라 가 볼만한 곳들을 이곳저곳 알려주고 자료도 챙겨주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몇몇 일들, 예컨대 테마를 정해 전시회를 관람한다든지, 우수한 영화들을 장르별로 감상해본다든지 하는, 아무튼 꼭 건축관련해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런 것들이 건축공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내게 부연하여 설명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그 동안 막연히 해보고는 싶었으나 구체적인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탓에 막상 말은 했지만 뒷수습하기가 그리 간단치 않았다. 피카소에서 스피버그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학생이 내게 피카소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건축인들이라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다행이다 싶어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뒤이어 스피버그 감독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대한 찬사도 덧붙였다. 더불어 이들의 우수함은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이미지창조에 있으며, 우리도 창의적 환경을 경험하여 건축의 창조력을 이어가야 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말을 맺었다. 처음에는 좀 두서가 없었지만 말을 하다보니 자아도취 되어 제법 그럴듯하게 끝맺음을 한 셈이었다. 이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질문하기가 어려웠는지 학생은 여러 번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피카소에서 스피버그까지...

모두 좋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니 그 학생에게 해주어야했던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다.

II. 시립미술관은 건축물의 가치만큼이나 내게 감동을 주는 전시회가 많이 기획된 곳이다. 특히 지난 3월에 열린 밀레의 작품전은 오랜만에 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던 전시회로 기억되고 있다.

나는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를 건축가로서 뿐만 아니라 미술가로서 좋아한다. 레오나르도다빈치에게 열등감을 가졌고 평생을 우둔하게 살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인간적 고뇌가 오히려 친근감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빈센트 반 고흐도 매우 좋아하고 있다. 그의 화풍은 거칠고 다분히 공격적이다. 그래도 나는 그의 힘있는 터치나 자극적

인 색상을 보며 감동을 받는다. 그 안에는 자신의 귀를 자르고 자살을 결행할 만큼 갈등을 겪었을 그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 프랑스와 밀레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밀레는 군대를 살았으나 신화에 몰입되지 않았고 정치나 혁명의 세력도 거부하였으며, 보여지는 세상 그대로에서 주제를 찾아 일관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혹자는 그를 사실주의자라 말하며, 그의 지나친 리얼리티를 예로 들어 이발소 그림작가로 폄하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미술전문가가 아니니 그 견해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삶을 사랑했던 그는 신에게서 인간으로 정치이념에서 휴머니즘으로 주제를 혁신시킨 조용한 혁명가였다. 그리고 그는 전통주의와 인상주의 사이에 다리를 놓은 화가로 재평가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밀레전을 보며 밀레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통하여 선을 사용하는 기법을 익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고흐는 밀레를 흠모하여 그의 그림을 수 십 편 모작하였음도 알게 되었다. 지난번 암스텔담에 있는 고흐미술관에 들렀을 때 전시면에 밀레의 이름이 자주 쓰여있는 것을 보았다. 불어에 문외한이라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혀 다른 개성으로 작품세계를 가졌던 그들에게는 음지에서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시대를 살지는 않았으나 인간의 본성에 접근하고자 애썼던 그들은 자신을 닮았던 또 다른 그들을 알아보았던 것 같다.

현대예술의 상징적 존재는 아마도 파블로 피카소일 것이다 그의 예술적 위업은 대단한 것이며, 그의 그림은 천재의 번뜩이는 기치와 예지로 가득하다. 그러기에 나 또한 그를 존경한다. 다만 한 가지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을 사랑한 절절함이나 휴머니즘까지를 내가 읽어낼 수 있다면 나는 그를 자연인 피카소로서 좋아하게 될 것이다.

미켈란젤로, 밀레, 고흐처럼...

Ⅲ. 신지식층의 대표적 인물로 스피버그가 자주 거론되곤 한다.

그는 영상에 기술력을 집착하여 영화를 문화산업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며, 인디애나존스 시리즈에서 "E.T" 그리고 "Catch Me If You Can"에 이르기까지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소재들을 영화화하여 전 세계에 보급시킨 아메리칸 드림의 일등공신이다. 그의 영화는 재미있고 기발하며 뛰어난 기치가 있다. 「창의력」, 「상상력」은 이제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나 또한 한때 그의 매니아였

다. 그러나 나이가 든 탓일까? 감동적이었던 그래서 기억에 남아있는 영화를 곰아보니 스피버그의 작품은 단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었다.

1980년대 중반에 소개되었던 "애정의 조건 Terms Of Endearment" 이라는 영화가 있다. 제임스 브룩스 감독에 의해 제작되어 그 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고, 주연을 맡았던 셸리 맥클레인이나 대배우 잭 니콜슨의 조연연기가 일품인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미망인으로 살아온 엄마와 엄마로부터 탈출하고자 철없는 결혼을 한 외동딸과의 30년에 걸친 삶의 이야기이다. 마음에 차지 않는 사위, 엄마의 뜻을 저버리고 선택했던 남편의 외도, 그 사이에서 증폭되는 갈등 그리고 화해 이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진부한 스토리이지만, 이 영화는 눈물을 자극하는 장면도 없고, 관객들에게 감정이입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화면은 빠른 템포로 진행되며 엄마보다 앞선 딸의 임종도, 자식들을 대면하는 마지막 순간도 전혀 드라마틱 하지 않다. 그저 삶의 한 모습이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객관적으로 그리고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스피버그식 기발함도 부수는 장면도 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다. 닥터지바고나 이라비아의 로렌스처럼 장대한 스케일도 아니고 줄거리도 단순하다. 이런 영화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정한 감동으로 남아있다.

일상에서 특별한 무엇을 찾아낸다는 것은 분명 창의적 사고를 필요하다. 그러나 평범함 속에서 진실을 발견해내는 것은 더 많은 노력과 더 깊이 있는 사고가 요구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 아카데미가 스피버그에게 유독 인색한 것인지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Ⅳ.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가 천재성이나 창의성에만 있는 것인지, 혹은 독창적이고 기발한 것에만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건축의 본질은 무엇일까?

건축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감동이 없는 독특함이란 평범의 수준을 넘을 수 없고, 진솔한 인간의 삶만큼 타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조금은 쉽게 해답에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프랑스 레알(Les Halles)시장 재개발 사업과 청계천 복원사업

The Les Halles Redevelopment Project of France and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송복섭 / Paris 8 대학 박사, 건축 및 도시계획 전공
by Shong Bok-Shub

도시를 온통 콘크리트로 막고 덮던 개발 전성시대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생태 도시환경의 질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성장과 개발이 곧 행복의 보증수표임을 믿고 달려온 어느 지점에서 그 신기루를 허무하게 채취하며, 유토피아는 현실의 환경 가운데에서만 창조될 수 있음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개발독재 시대에 복개되었던 청계천과 고가도로는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던 청계천 복원운동은 급기야 서울시장 선거의 첫 번째 정책공방거리로 부상하고, 건설인 출신의 시장 당선과 더불어 2005년을 목표로 일사 천리한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걱정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된 기술적, 경제적 문제들 외에도, 이 시대 도시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게 될 사업이기에 심사숙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과는 아랑곳 않고, 서울시는 사뭇 독선적이고 저돌적인 추진을 진행시키고 있다.

과연 청계천 복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비록 역사와 문화를 달리하지만, 1970년대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의 레알(Les Halles)시장 재개발 사업은 우리의 자금의 현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교훈으로 삼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 주)

정부 주도의 레알(Les Halles) 재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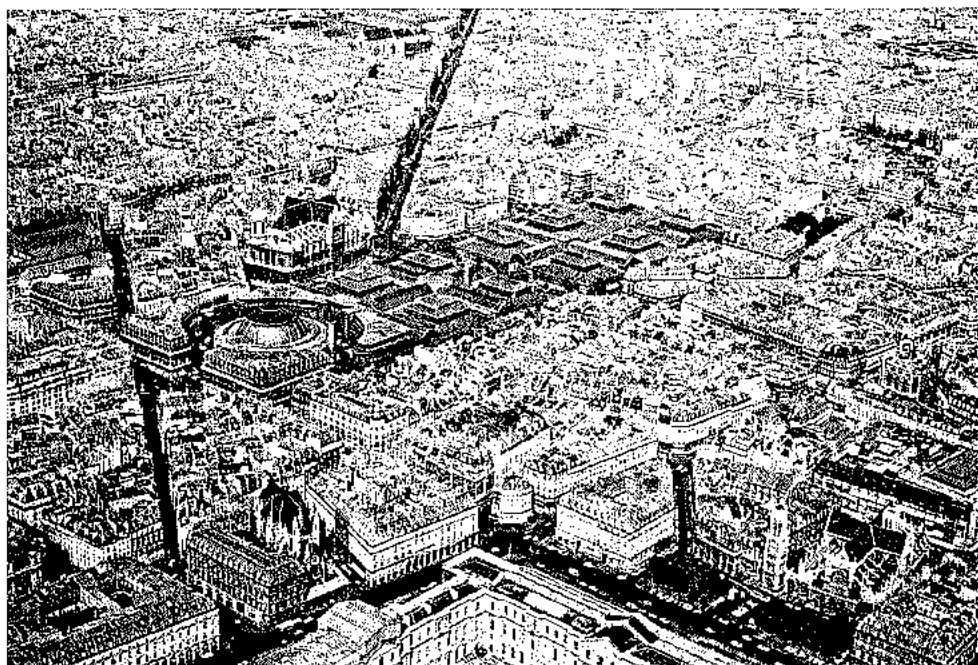


사진 1 철거전의 레알지역과 발미호판

우리의 남대문시장에 비교될 수 있는 레알시장은 그 지리적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오랜 역사를 통해 파리의 가장 큰 시장이 된다. 19세기 후반, 건축가 빅토르 발타르(Victor Baltard)에 의해, 노천시장이었던 이곳에 10동의 철골조 시장건물이 지어진다. 이 건물들은 곧 발타르(Pavillon Baltard)관이라 불리게 되는데 1936년에 2동의 건물이 더 지어짐으로써, 당시 10%의 프랑스 인구를 먹여 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식료품 시장이 되었다. 2차대전 이후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1950년 무렵에는 그 공급비율이 무려 20%에 육박하여, 이 지역은 극심한 교통난과 함께 이제 포화상태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이 지역의 혼잡 해소를 위하여 1962년 현대식의 대형 시장을 파리시 남쪽 뢰기스(Rungis)라는 지역에 건설하여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이후 1969년 봄까지 모든 입주상들이 뢰기스로 떠나고, 이 지역은 끊임없는 논란과 계획안들로 점철되는 오랜 부침의 역사를 시작한다.

우선, 시장이 떠나고 난 자리의 발타르관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정부는 전후 재건사업 이래로 강력하게 추진하던 대단위 개발시대의 여력을 몰아, 기존 발타르관을 전부 헐고 그 자리에 “세기에 남을” 사업을 구상한다. 한편으로, 새로 입주하게 될 시설의 내용 선정도 중요한 문제였다. 교통, 인구, 관광객 등이 집중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이 파리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고밀도 업무시설의 건설이 유익하겠지만, 도심의 교통난과 야간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고, 도심 내 대단위 녹지공원의 건설도 매력적인 사업이었지만, 주변지역을 공원으로 차단시킴으로써 상호 유기적이던 주변지역을 서로간 단절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업무시설이 우세하던 주변지역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을 위주로 건설할 수도 없었다.

1967년 1월, 정부는 여섯팀의 건축가들에게 각각 계획안을 의뢰한다. 그 결과 각 안의 모형이 전시되었는데, 당시 60,000명에 달하는 시민이 이를 관람한 것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은 이 안들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이 지역이 파리시내의 역사적 중심으로 인근의 루브르궁, Saint-Eustache 성당, 증권거래소 건물 등과 연결되는 등 주변과의 조화가 가장 큰 건축적 숙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시된 안들에는 이러한 ‘도시적 맥락의 배려가 드물다’는 것이 가장 큰 비판의 내용이었다. 한편, 정부의 사업추진과는 별도로, 파리시 도시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의결권한을 갖고

있던 파리시의회는 “도시계획 연구소(APUR)”를 설립하고 별도의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이듬해, 파리시의회는 정부가 건축가들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안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건축가들과 협의한다.

한편, 시민들은 당시 정부와 파리시의회가 추진중인 ‘레알 재개발 사업’이 경제논리에만 근거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에 방치될 것임을 지적하고 나선다. 아울러 정부가 주관하는 도시계획 정책이 시민들에 대하여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그동안 실행해온 건축사업이 소수의 관변 건축가들 중심으로 협의됨으로써, 소위 ‘관변 건축스타일’이라는 비개성적이고 독창적이지 못한 건축만을 생산하였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계획안들 중에서 창조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선 현상설계의 개척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이 주장을 프랑스에서 1970년대를 통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였고, 급기야는 1985년 공공발주의 대부분을 현상설계를 통하여 실행하도록 건축법의 개정을 이끈다.

발타르관(Pavillon Baltard) 철거 반대운동

1969년 3월 3일까지 레알의 시장이 모두 뢰기스로 이전되고, 3월 24일 파리시의회에 의해 발타르관의 철거가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여 발타르관을 보존하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지역주민의 발의로 작가, 철학자, 가수 등 문화계 원로인사들이 성명을 내고, 이 지역을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것을 주장한다 : “파리의 중심에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조건이나 신분을 초월하여 만나고 교류하며, 문화와 예술의 장이자 현대적 요구에 합당한 문화시설을 창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이곳은 파리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¹⁾ 이 운동에는 뜻을 같이하는 다수의 정치인들도 참가한다. 그들 중에는 후에 대통령이 되어 많은 대형 건축사업을 지시하게 되는 사회당 당수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and)도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작가이자 역사가인 미셸 하공(Michel Ragon)은 한 잡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 “에펠탑보다 25년 앞서 건설된 19세기 대표적 철골 건물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르코르뷔지에의 사보아주택을 철거의 운명으로부터 구해냈던 앙드레 말로 장관께 나는 이제 이 발타르관을 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²⁾ 이 운동에는 유명 외국 건축가들도 가세하여, 미스 반데로(Mies van der Rohe)는, “나는 프랑스 건설기술 황금시대의 상징인 발타르관의 보존을 적극 지지한다”³⁾

1) Pierre-François Large, Des Halles au Forum : Métamorphoses au cœur de Paris, L'Harmattan, Paris, 1992, p.55

2) Idem p.54

라고 르몽드지에 쓰기도 하였다. 한 미국인 은행가는 이 건물을 구입하여 프랑스 또는 미국에 이전하겠노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렇게 발따호관은 철거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후, 1969년 5월부터 1971년 6월 발따호관이 철거되기 전까지 약 2년동안 그 안에서 연극, 콘서트, 서커스, 전시회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때까지 시장 건물로만 사용되던 이 건물은 어떤 종류의 문화행사에도 손색이 없는 다목적 예술공간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식하지 못하던 이 건물의 새로운 가치를 철거를 목전에 둔 마당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이 발따호관 철거 반대운동은 프랑스 현대건축사에 있어서 건축유적의 보존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비록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철거를 막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건축유적 보존과 관련한 대중 여론을 환기시키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들면, 거의 같은 시기이지만 레알보다는 조금 늦게 진행되어 오던 오르세 미술관의 건설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19세기에 지어진 철도역사였던 이 건물은 1970년까지만 해도 완전한 철거와 그 자리에 현대식 호텔을 세우는 계획이 확정되었었다. 발따호관 철거 반대운동의 여파로 1971년 호텔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역사를 보존하여 미술관으로 개조하기로 한 것이다.

레알 재개발 사업의 부침

여러 시민단체와 정치, 문화계 인사들의 반대운동과는 아랑곳없이, 파리시의회는 발따호관 철거를 골자로 하는 시립 '도시계획 연구소'의 안을 채택하며, 1969년 10월에는 개발주체가 되는 '레알 재개발회사(SEMAH)'를 설립한다. 1971년과 1972년 사이에 발따호관 12개 동이 모두 철거되었고, 그중 한 동만을 여론을 의식하여 파리시 외곽으로 이전한다. 1973년에는 각각 다른 건축가들에 의해 구상된 지하 상가광장(Forum)과 90,000㎡ 규모의 '국제 상업센터'가 건축허가와 더불어 건설이 착수되었다.

그러나 1974년 5월 이 사업의 첫 전환점이 되는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 발생한다. 모더니즘의 거부 및 고전의 선호와 환경보존을 정치적 입장으로 견지하던 발레리 지스까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곧,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행정재판소를 통해 이미 건설중인 국제 상업센터의 공사를 중지시킴과 동시에, 대신 녹지공원이 건설될 것을 지시한다. 이어서 스페인 출신으로 프랑스 건축계에 막 데뷔한 젊은 건축가

리카르도 보필(Ricardo Bofill)을 발탁한다. 리카르도 보필은 고전적 장식을 공장생산 방식을 통해 현대건축에 도입함으로써, 고전적 외관의 현대식 건물로 특징지어지는 자신의 스타일을 개발하여, 고전적 양식을 선호하던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독단적 행보는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파리시의회와 충돌하게 된다.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싫었던 파리시의회는 1974년 11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명분으로 리카르도 보필을 포함한 3팀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지명현상설계를 개최한다. ①안으로 통하던 장끌로드 베르나(J.-C. Bernard)팀의 안은 대각선 형태의 공원이 특징적이었는데, '지역주민연합회'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②안인 리카르도 보필 팀의 계획안에는 대지 중앙에 고전적 구조물을 배치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만 관료들은 경제적 수익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③안은 건축가 베르나 드라투도베르뉴(B. de la Tour d'Auvergne)가 구상하였는데,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었던 '레알 재개발회사'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이렇게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선호가 대립하자 '레알 재개발회사'는 그해 5월, 원로 건축가 에밀 아이오(Emile Aillaud)를 조정자로 임명하여 ①, ②, ③안을 모자이크하여 최종안으로 결정한다. 즉, 전체 계획을 녹지공원, 집합주택, 호텔, 업무시설들로 나누어 각 팀의 건축가들에게 맡긴 것이다. 이 선택은 카탈로니아지역 출신 리카르도 보필을 싫어하던 시의회 내 다수당 '공화국 민주연합



사진 2. ①안 : 장끌로드 베르나 팀



②안 : 리카르도 보필 팀



③안 : 베르나 드라투도베르뉴

3) Ibid. p.55

(UDR)'을 만족시킴과 동시에,⁴⁾ '지역주민연합회' 및 대통령의 선호도 반영한다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던 것이다.

1977년 3월, 다시 두 번째의 전환점이 찾아 온다. 자크 시락(Jacques Chirac)이 최초의 민선 파리시장에 당선된 것이다. 이로써 레알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법적으로 그에게로 넘어가고, 지스까르 데스탱 대통령은 이 일로부터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때에, 둘 사이의 타협이 있었다고 한다. 즉, 대통령이 레알에서 물러나는 대신 시장은 당시 또다른 대형 건축사업이었던 라빌레트 과학관 건설에 참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신임 시락 파리시장은 곧 새로운 강당(auditorium)의 건축을 제안하고, 이듬해 4월 이 강당의 설계를 또 다른 건축가에게 맡긴다. 그러나 시장의 새로운 행보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정부는, 1978년 8월 음향 시설 계획의 미진함을 들어 강당 계획을 반려함과 동시에, 비밀리에 별도의 건축가들과 협의함으로써 이 사업의 주도권을 다시 행사하고자 한다. 그러자, 시락은 대통령이 지지하던 리카르도 보필을 해고하고 그가 맡고 있던 공사를 중지 시킴과 동시에, "레알의 책임 건축가는 바로 나야!"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레알 사업의 총 책임 건축가로 임명한다. 그 때 그가 남긴 이 말은 이후 건축계로부터 공공 건축사업과 관련한 정치인의 태도를 비교하는데 인용되는 유행어가 된다.

1979년 2월 시락은 '도시계획 연구소'에 의해 새로 작성된 안을 시의회에 승인을 얻어 최종안으로 언론에 발표한다. 이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상의 공원과 지하에 광장(Forum)을 중심으로 하는 지하 4층의 현대식 고급 상가를 구성하고, 이를 7개 노선의 고속전철 및 지하철과 연계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 레알 지역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 상징성, 지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체적으로는 현대식 지하상가로 대표되는 무미건조한 안이 되고 말았다. 이는 상가건설과 관련하여 개발 이익을 노리는 개발업자들의 요구, 녹지공원의 건설을 원하던 시민들을 유권자로 두고 있는 시의원들의 요구, 당시 신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되던 고속 전철망이 파리의 지하중심에서 환승역이 필요했던 정부의 정책 등, 모든 관련 이익집단의 요구를 동시에 방어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이 안은 곧 건축가들로부터 대단한 반대여론을 몰고 온다.

대안으로서 민간이 주최한 국제 건축현상설계
시락의 최종안이 발표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대대적

으로 전개된다. 당시 이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건축 잡지 '오늘의 건축(L'Architecture d'Aujourd'hui)'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파리의 중심에 실행중인



사진 3. 파리스장 자크 시락의 최종안

레알 재개발 사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건축가들이 문의되었고, 여러 계획안이 구상되었으며, 무수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가 취소되었고, 공사중인 건물은 완성되기도 전에 철거되고 있다. 이런 임의적인 시행과 계속적인 사업의 지체는 건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정부에 의해 결정된 안은, 루브르궁, 뮈세움 아달, 뽕뽕두센터 등을 지척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특징도 없는, 그저 건축이 무시된 공원뿐이다."⁵⁾

젊은 건축가들이 중심이 되어, 1978년 '건축인 조합(Syndicat des architectes)'이란 모임을 결성하는데, 이 단체가 시락의 최종안에 대해 "건축이 배제된 계획"이라 비판하고,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곧,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n), 비토리오 그레고띠(Vittorio Gregotti), 레옹 크리어(Leon Krier), 찰스 무어(Charles W. Moore), 오스카 니마이어(Oscar Niemeyer), 알도 로시(Aldo Rossi), 로버트 벤츨리(Robert Venturi) 등 세계 유명 건축가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한다. 1979년 4월 2일, 강연회를 열어 정부안의 취소를 요구함과 동시에 국제 현상설계를 개최할 것을 발표하고, 앙리 시리아니(Henri Ciriani), 장 누벨(Jean Nouvel)등이 주축이 되어, '레알 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 현상설계 협회'란 단체를 발족시킨다. 이 현상설계는 제출되는 안들을 통해서 건축과 도시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고, 그 결과를 레알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공개 현상설계의 실시와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정부가 택해 왔던 공공 건축사업 진행의 비 공개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하고자 의도되었던 것이다.

4) 카펠로니-아지방이 오래전부터 전개하던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운동은 인근 프랑스지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우익인 '공화국 민주연합'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출신 리카르도 보필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달가운 일이 될 수 없었다.
5) L'Architecture d'Aujourd'hui, n° 202, avril 1979, p. vii.

이 현상설계에는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일반에게는 240F(40,000원), 학생에게는 120F의 참가비가 요구되었다. 애초부터 당선안의 건설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서, 1등에게는 50,000F(8,000,000원), 입선자에게는 각각 10,000F의 상금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주최측이 상금의 액수를 수입 능력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말하자면 참가자가 지불하는 참가비로 진행되는 현상설계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여 팀이 등록하고, 600개가 넘는 계획안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접수되어, 이 현상설계에 대한 관심이 어떠하였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심사위원으로는 프랑스 및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 예술 및 문화계 인사, 유명 건축잡지의 편집장, 지역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파리의회의 의원들도 심사위원으로 초대되었으나 참가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심사기준으로는 주로 개방성,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역사성, 상징성, 정부안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건설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다. 1980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어, 최후 15개의 안을 1등 없이 당선 5, 입선 4, 가작 6으로 결정하였다. 제출된 안들은 내용적으로 매우 다양하여, 르코르뷔지에 스타일, 신 고전적 절충주의, 유토피아적인 안 등 당시 건축문화를 대표하는 경향들이 다 표현되고 있었다.

현상설계 후의 전시회에는 무려 40,000명이 다녀 갔으며, 시락의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모두들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은 막무가내였다: "이 현상설계는 파리와 아무런 협의없이 기획되었고, 기술적, 재정적, 공사일정상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 방식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 현상설계는 '레알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만다. 그러나 비록 정부측 안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채택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현상설계 과정에서 있었던 관심과 토론 그리고 일련의 건축문화 시민운동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레알 지역의 변질

현상설계가 한창 진행중이던 1979년 9월4일 지하 상가 광장(Forum)이 개장되었다. 150개가 넘는 상점과 20여개의 식당, 극장, 올림픽 수영장, 체육관 등이 지상과 지하 3층에 걸쳐 건설되었는데, 당시의 여론은 두 편으로 갈리고 있었다. 주로 우익 성향의 신문들은 고급상가와 식당가로 구성된 이 광장에 대해 기대하는 분위기였고, 좌익성향에서는 '미와 주민의 행복에 대치되는 돈의 승리'라는 표현처럼 매

우 비판적이었다. 어쨌든 고속전철의 개통 및 주변 지하철 노선과의 연계공사가 완료되고 지상의 공원이 조성되자, 이 지역은 곧 번질되기 시작한다. 신도시 및 시 외곽을 파리시와 빠른 속도로 연결하고자 건설된 고속전철(RER)은 이곳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그 곳의 부랑자들을 파리 시내로 유입시키는 역기능도 야기시켰다. 이 지역에 마약과 사창의 출현은 그 귀결이었다. 한편, 3개 노선의 고속전철과 4개의 지하철은 지하 4층에서 상가광장과 복잡하게 연결됨으로서 미로식 지하구조를 형성한다.

초기 최고급을 목표로 문을 연 상가광장은 곧 중급 상가로 변모한다. 이곳은 거울에는 지하공간이기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시설에 의해 시원하다는 사실로 하여 집없는 자들에게 연중 "피난처"를 제공한다. 게다가 지상의 공원은 이들에게 더할나위없는 휴식과 생업의 공간이 되었다. 이렇게 차차 레알은 오명을 얻어가고, 급기야는 1981년 12월 순찰 경관이 한 거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이 지역의 치안문제가 주요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레알이 청계천 복원사업에 주는 시사점

우리는 이상에서 프랑스 도심 재개발 사업 중 하나였던 레알의 역사적 진행과정과 사업 후의 변모에 관해 알아 보았다. 이 글의 작성의도가 그러하듯, 현재 서울시민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우선, 정책선상에서 진행되는 도시계획 및 건축사업은 다분히 "정치적 과정을 따른다"는 것이다. 사업의 내용이 문화적 또는 건축적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정치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그 사업은 여러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비록 레알의 변질이 건축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각 사업에 임하는 건축가가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는 하지만, 결국 총합적 결과로서의 레알사업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천년의 문" 사업과정을 통해서 이를 역시 확인한 바 있다. 당선안의 독창성 사비를 떠나서 그 사업 자체가 갖는 정책적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건축가들이 헛 고생을 하였음을 실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건축가가 그 사업의 정치적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도시생산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과 접근방식이 우리 건축가들에게도 필요하다. 도시생산의 정치 사회적 인식 후야 전문가로서의 비판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건축가가 그저 주문을 받아서 수행하는 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문 자체의 사회적 당위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보며, 나아가 주문

을 개발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청계천 복원사업도 결국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이슈화가 되었지 않은가?

이미, 많은 제약조건을 간직한채 출발하는 도심 재개발사업은, 그 사업시행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개발이익 추구하고 필연적으로 연계됨으로서 건축 이외의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필요이상으로 복잡한 레알의 지하상가는 그 사업시행과 관련한 개발업자들의 이익 추구에 편승한 결과였다. 우리의 도시환경이 풍요롭지 못함은 바로 여기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초에 서울시가 고밀도 개발을 기획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그 개발이익이 대부분 영세한 입주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개발로 인해 생긴 이익은 소수의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지만, 세입자들은 일정의 보상금과 함께 떠나던 것이 그동안의 도시 재개발 사업의 실체였지 않은가? 또한 고밀도 개발에 따른 피해는 온 시민에게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개발과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이기적 논리의 허구성에 빠져서는 안된다. 개인의 이익추구가 사회적 이익추구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 기능이 시장을 통해 조절된다는 자유주의 이념은 최소한 도시개발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역사가 말해주듯 일치하지 않는다. 선진국일수록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적용이 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면 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은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시개발 사업은 심사숙고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관심으로 인하여 성급하게 사업이 실행된다면 곧 시행과정과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예견과 대책의 마련에 소홀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그 과정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면,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비록 시략의 결정이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여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다던 정치적 결단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를 통해 후에 야기되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상실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개발의 폐해를 그동안 너무도 많이 경험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연구위원의 지적대로, “공약에 밀려 서울시장 임기중에 줄줄이 시공만 낸 청계천 복원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10년 후 우리모두가 꿈꾸는 그런 명당수 청계천 복원을 위해서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10년, 15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다.”⁶⁾

복원사업의 결정과 계획안의 구상 과정 중에 시민과 전문

가들을 참가시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계획하는 사업에 주인으로서의 서울시민의 참여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인 것이다. 이미 모든 계획을 확정된 후에 “웃 입히기 식의 공청회”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장한 또다른 형태의 독재이다. 지역의 도시 환경의 질에 대해 제안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만큼 그 지역의 환경을 잘 알고 아끼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의 과정은 시민들에게 도시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제안하기 위한 학습장으로서의 역할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전문가(건축가)들은 그들의 전문적 지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⁷⁾ 청계천 복원사업을 제안한 이들도 결국은 소수의 전문가들이었는데, 이 사업이 정치적 쟁점화한 이후로는 정책담당자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현상설계의 실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소수의 조직만이 참여함에 따라 또다른 관변스타일을 생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 도시환경을 위한, 창조적 해결책을 찾는 아이디어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참신한 건축가들이 독창적인 계획안을 내놓고(물론 정당한 대우와 함께), 시민들은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어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청계천의 복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현상설계는 서울시민의 민주적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서둘러 계획되어 서인지 서울시가 2005년을 원공목표로 발표한 안에는 별다른 건축적 특징이 없다. 3D 애니메이션의 화려한 선전 이면에는 창의력의 부족을 실감하게 된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단지 역사적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기에, 현재적으로 재창조하는 독창적인 계획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 환경 창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건축 현상설계를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

한편, 정부안에 반대하여 국제 현상설계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던 당시의 프랑스 건축가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없을까?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태도를 개인적으로는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눈에 띄까하여 입장의 표현에 소극적이지는 않았는지? 게다가 주문의 수주에만 급급하여 전문기적 기술을 빛나간 정치적 건축사업에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이제 건축가가 사회와 도시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때이다. 圖

6) 김선희, 「대기만성형 청계천 복원」, 도시문제 제 37권 제 407호, 2002.10, p.94.

7) 건국대 이상현 교수는 건축가들의 경우 ‘관전히 소외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건축을 통해보는 2002 한국의 사회상」, 건축, 2002.12, p.25.

건축계소식 / 79

해외잡지동향 / 83

현상설계 / 88

세무안내 / 98

건축계소식 archi-net

FIKA, 건축교육인증 국제세미나

오는 6월 5일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에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은 오는 6월 5일(목)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건축교육인증 모델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2005년 건축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건축교육의 인증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 실무 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등의 인증기관 책임자들도 초청해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다. 임창복, 아산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 건축교육인증 기준과 절차서안(최재필/서울대 교수), 피실사 기관의 준비경험과 제언(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의 건축교육 국제화를 위한 제안(Kenneth Schwartz/미국 버지니아대 교수 전 NAAB회장, Paul Hyett/영국 RIBA회장, Qin Youguo/중국 청화대 건축대학장 NBAA회장)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제2회 부산국제건축공모전

‘광안리 일대 아이덴티티’ 주제로

2002년 UIA의 공인을 받아 Busan

Tower Complex를 주제로 시작한 부산국제건축공모전이 2003년 BiArc(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ompetition)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2회째 개최된다.

“THE CAPTURED OCEAN: Redefining The Busan Urban Water Front”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공모전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공모전 운영위원회는 BiArc 2003을 통해 광안대교와 함께 21세기 부산의 문화, 해양도시 이미지를 다시 정의하는 광안리 일대에 관한 도시, 건축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교량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심해수욕장의 모습, 해안과 광안대교와의 관계, 교량의 양극단에 남겨진 모호한 공간들의 활용 등은 이 공모전의 주요한 접근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외의 다양한 창의적 제안을 역시 광안대교를 포함한 광안리 일대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절의응답: 2003. 6. 1.~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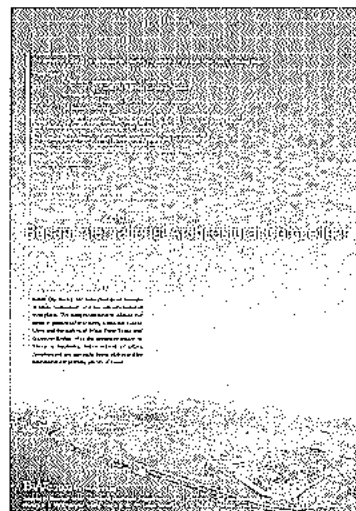
-신청마감: 2003. 8. 12.

-작품마감: 2003. 9. 6.

-참가자격: 건축관련 재학생, 대학원생, 전문건축인

-문의: 부산국제건축공모전 운영위원회
전화 82-51-759-9496

www.biarc.org,



2003 공간대상

제21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제3회 스페이스인스타일 국제학생
실내건축상

공간사에서 주최하는 공간국제건축상과 국제학생실내건축상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올해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는 김준성(M.A.R.U건축)과 크리스 R. 샵플즈(SHoP Partner, New York)가 위촉됐다. 응모신청서는 공간사 홈페이지(www.vmspace.com)에서 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공간국제학생건축상〉

- 주제: 오아시스-혁신적인 박물관 (Innovated Museum)/가상의 황폐한 대지(사막 등) 100m×100m 안에 연건평 1,000㎡내외의 물박물관과 외부 공간계획
- 자격: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전공무관/한 팀 3인까지 공동작업 가능
- 시상: 대상 1점 500만원, 최우수상 1점 300만원, 우수상 2점 각 100만원, CG특별상 1점 100만원, 입선작 다수
- 신청 접수기간: 2003. 4. 7.~8. 11.
- 작품 접수마감: 2003. 9. 15. 오후 5시(당일 도착분에 한함)

〈국제학생실내건축상〉

- 주제: 소호(SOHO)-독립 아틀리에 (Independent Atelier)/ 창조성, 개인성, 독립성을 확보한 젊은 실내디자인의 작업 공간 계획
- 자격: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전공무관/한 팀 3인까지 공동작업 가능
- 시상: 대상 1점 500만원, 인스타일상 1점 300만원, 우수상 3점 각 100만원, 입선작 다수
- 신청 접수기간: 2003. 4. 7.~8. 11.
- 작품 접수마감: 2003. 9. 15. 오후 5시(당일 도착분에 한함)

제2회 생태마을 주택설계 학생공모전 2003

「숨쉬는 집, 살아있는 마을」 주제로

생태마을 만들기와 생태주택에 대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숨쉬는 집, 살아있는 마을」이며, 우리나라 산촌지역에 적합한 생태주택의 모델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분야는 우리나라 농산촌지역의 지역적 전통과 문화 그리고 지형에 적합한 생태주택 설계모델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여 공모한다. 생태건축 개념으로 주위자연과 어울리는 유형 및 건축형태, 물이용의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 자연재 및 폐자재 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을 권장한다.

- 참가신청: 2003년 5월 30일
- 작품접수: 2003년 7월 7일~11일
- 문의: 생태산촌만들기모임
02-747-6009 www.ecovill.org

배재대 김종현 교수, 철골조 한옥 디테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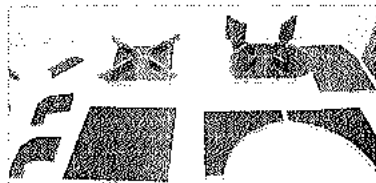
유병구(씨엔유)회원,
이주나(배재대) 교수와 함께

배재대학교 김종현 교수가 한국전통건축의 공포 결구 시스템의 원리를 적용하여 철골조 한옥 디테일을 개발했다. 씨엔유 건축의 유병구 소장과 이주나 배재대 겸임교수와 함께 진행된 이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로 2003년 4월 1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산학연 컨소시엄 발표회에서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옥의 공포 시스템이 첨차와 소리가 맞춤과 이름을

통해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착안하여 철골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포가 갖고 있는 의장성을 표현한 이 연구는 한국적 이미지를 얻는 철골조 건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으로 여겨진다. 단순한 의장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공포의 결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철골조 공포 유형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결구 시스템을 통해 철골조 디테일의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첨차를 활용한 디테일을 통해 H형강의 보를 첨차 위에 걸쳐놓고 시공을 하게 됨으로써 크레인이 기둥과 보를 용접하는 동안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지금의 시공방법에서 탈피하게 됨으로써 시공성이 좋아지게 되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종현 교수의 설명이다. 향후 공방이나 철도 역사, 경기장 등의 대형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유소 등의 중소규모 철골조 건물에 적용하여 한국적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김종현 교수는 일반인들도 한국건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건축의 이해 (http://203.247.211.211/kjh)」라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2003년 4월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등 한국전통건축을 한국현대건축과 연계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한국건축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2003 키벡스(KIBEX) 특별세미나 개최

지난 4월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난 4월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건설시장 변화와 대응전략에 주제를 키벡스 특별 세미나가 주요 전문건설업체 CEO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최근의 어려운 건설 경기 하에서 키벡스 출품업체를 비롯한 관련 전문건설업체의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국 건축 산업의 시장환경 변화 추세와 이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효율적인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업체 상호간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첫번째 섹터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운영선 박사(선임 연구위원, 산업연구부장, 리모델링 연구팀장)가 2003 건설 시장 추이 및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여 대내외 경제 여건과 정부의 정책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두번째 섹터에서는 대림산업의 이병찬 상무이사가 설계 합리화를 통한 구매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발표, 설계와 구매 시공 부문간의 의사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Integrated Design 활동을 통해 고객 만족과 내부적인 원가 절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효과적인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SBA Korea의 이근직 지사장이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전

문건설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여 변화하는 건설시장에 따른 개별 전문건설업체의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키벡스 사무국은 이 행사와 관련해 기존 키벡스 참가 업체들의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고, 이번과 같은 세미나 이외에도 KIBEX 참가 업체들의 영업 고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atabase System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2003 일본 신건축 주거디자인 공모전

오는 9월 1일 마감

일본의 신건축 주거디자인 공모전 (Shinkenchiku Residence Design Competition) 일정이 발표됐다. 이 공모전은 1952년부터 시작된 국제공모전으로 지난해에는 293명이 참가등록 (일본 152, 외국 141)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 1일 마감하며, 수상자에게는 총 1,500,000엔이 수여된다.

문의: www.japan-architect.co.jp
ja@japan-architect.co.jp

한옥문화원, 2기 한옥과의 만남

한옥에서의 삶, 구조와 지역환경 체험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한옥문화원은 전국 한옥의 배치, 구조와 지역 환경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건축, 문화재, 역사, 고미술 등 관련 분야의 학생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문화재 가족에서 함께 한옥의 분위기를 느끼며, 밀도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충남 논산군 노성면 일대 병사(대종중 재실)를 중심으로 파평 윤씨 노승파 여러 선현들의 자취를 돌아볼 예정이다. 노성면 일대는 문종의 자녀들을 교육하여 가문의 정신과 학맥을 이을 수 있도록 한 종학당과 정수루, 명재선생의 영정을 모신 유봉영당, 공주 이씨 정려각, 호서 예학의 대가 명재 윤증 선생의 고택 외에도 많은 고택, 서원, 사우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한옥건축을 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비의 삶의 궤적을 더듬어 짐작하는, 쉽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근 마을에는 원형을 유지하고 남아 있는 초가집이 있어 좋은 탐구 대상이 될 것이다.

-기간: 2003. 8. 15.~18.

-참가대상: 건축, 문화재, 역사, 고미술 등 관련학과 학생 및 관련학과 학생 및 관련분야 종사자

-강사진: 김대벽(한옥 및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 신영훈(한옥문화원장), 유문용(단청, 실측전문가), 이왕기(목원대), 윤여인, 윤석규(파평윤씨 노승파 종중 대표)

-문의: 장명희(한옥문화원 부원장 02-741-7441)

신 자 재

◇ 타일블록

한국타일블럭(대표 신영석)에서 시멘트류 바닥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성이 좋은 타일블록을 개발했다.

이 새 타일블록은 기존 시멘트 보도블록의 문제점인 마모와 침하, 균열 등을 개선한 타일블록으로 시멘트 제품을 대체해 가고 있는 석재타일 블록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공사비와 공사기간, 개 보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타일블록은 다양한 색상의 석재타일을 여러 장으로 블록을 제작하므로 고압의 타일공 없이도 각 블록을 연결 장치로 조립, 시공할 수 있어 기존 석재타일 공법보다 공사시간을 1/6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또 공사비는 3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시공후 다른 공사나 개보수시 타일블록의 파손없이 해체, 분리 및 재활용이 가능하고 공사폐기물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4계절 시공이 가능하며 보도, 공원, 광장, 주차장 등 바닥재는 물론 차도, 터널의 양면 타일벽과 아파트 벽체 건물, 주변 화단의 벽체용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특허제품이다.

문의: 한국타일블럭(주)

영업부장 박재영(011-256-5137)

www.HK Tile Block.co.kr

정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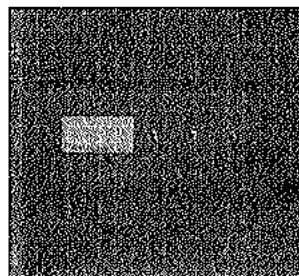
지난호(0304) 88쪽 기사 중 서울시 건축상 수상 동부금융센터 「설계: 동일건축」을 「설계: 도시건축(이거범·김갑수)」으로 바로 잡습니다.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 간 안 내

◇ 정현식 작품집

건축가 정현식의 작품집. 그는 건축보다는 삶이 중요하다고 건축은 건축일 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한다. 건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 건축을 높이한다고 한다. 그런 그가 그의 작품을 묶어 작품집을 내놓았다. 그의 건축 작품 속에는 그의 꿈이 들어있다. 자유분방하게 풀어헤쳐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대부분이 콘크리트이고 형태도 단순하다.

그는 아직은 많은 것이 미흡하지만 개인의 체취가 흠씬 묻어있는 건축을 통해 세상과 사회에 대해 이야기 싶다고 한다. 건축가 정현식은 1963년 삼천포생으로 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이람광장과 기산건축에서 건축실무를 익혔다. 이후 1996년 경남창원에 건축사사무소 소호·정현식연구소를 개설하고 꾸준하게 건축활동을 하고 있다.



정현식 지음/96쪽/170mm×170mm/7천원/비온후 퍼냄(051-464-4115)



동부금융센터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02)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02)483-7475 · 강북구건축사회/(02)303-2030 · 강서구건축사회/(0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02)77-4844 · 광진구건축사회/(02)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02)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02)899-1588 · 노원구건축사회/(02)37-1100 · 도봉구건축사회/(02)90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02)67-6052 · 동작구건축사회/(02)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02)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02)555-5552 · 서초구건축사회/(02)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02)282-5855 · 성북구건축사회/(02)22-5117 · 송파구건축사회/(02)33-9155 · 양천구건축사회/(02)63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02)32-2143 · 용산구건축사회/(02)717-6007 · 은평구건축사회/(02)33-1458 · 송로구건축사회/(02)725-3314 · 중구건축사회/(02)31-5746 · 중랑구건축사회/(02)437-33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시건축사회/(031)963-88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96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3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용인지역건축사회/(031)657-5149 · 오산시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7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원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6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609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5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4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634-3367 · 태백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3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시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시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시건축사회/(063)852-3793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5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7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383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1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3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844 · 마산시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955-1323 · 사천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3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31

신건축

a+u

domus

신건축

200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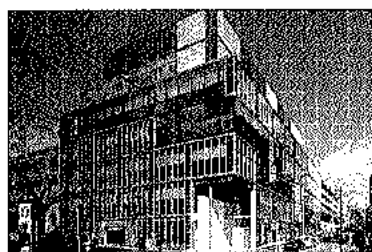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도심지형 대학 캠퍼스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본대학 이공학부의 새로운 1



호관 건물과 아키텍트 파이브가 설계한 설원에 펼쳐진 웨딩 채플 G-CREF, 케빈로쉬와 일본설계의 협력작업으로 고층 오피스와 복원된 역사(驛舎)가 하나의 블록을 구성한 시오도메 B지구 등이 소개되었으며, 연재물로는 「집합주택을 유니트로부터 생각해 본다」의 제 8회분인 「집합주택의 80년대」가 게재되었다.

▶일본대학 이공학부 1호관 - 타카미야 신스케/1호관건설위원회 + 사이토모 종합설계

이 건물이 세워진 오차노미즈(御茶の水)지역은 일본대학의 이공학부 뿐만 아니라 타 학부나 타 대학의 캠퍼스도 캠퍼스 영역의 경계나 구분이 없이 도시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특이한 도시풍경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즉 동일한 블록 안에서 대학 건물 옆에 사무소 빌딩이나 병원이 존재하는 혼재된 도시블록의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변 상황에서 대학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이 이번 설계에 있어서 최초 단계부터 부여된 과제였다. 그



일본대학 이공학부 1호관



일본대학 이공학부 1호관

결과로서는 그것을 건축의 표현에서 찾지 않고, 다른 시설과는 차별되는 캠퍼스의 다양한 장면들은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성취하고자 생각하였다. 건물에서 도로에 인접한 유리의 커튼월로 감싸인 L자형의 공간은 로비라운지와 같은 공간들이며, 또한 이곳은 학외(學外)의 사람들과 대상을 하는 연구 발표나 작품전시, 강연 등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은 기능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도시와 인터랙티브하게 교류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의 액티비티를 도시에 공개하는 것은 오차노미즈와 같은 도시풍경 속의 대학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도심형 캠퍼스의 특권이자 이공학부를 사회에 어필하는 둘도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것이 대학의 아이덴티티와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채광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로측에 목적 공간, 즉 이 경우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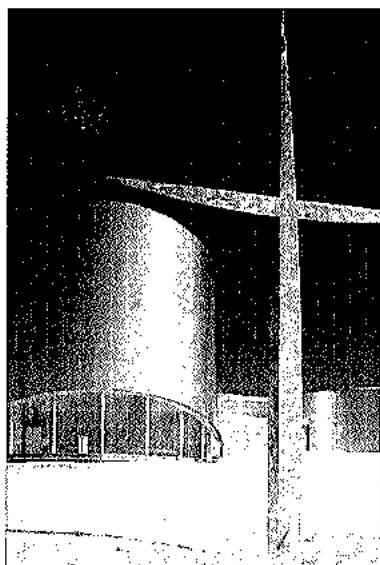
는 교실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이 계획에서는 이를 역전시켜 도로측의 가장 잠재력 있는 장소에 로비 라운지와 같은 다목적 공간을 배치하였다.

이 계획은 이공학부에 있어서 심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건축학과와 선생들이 중심이 되어 1호관건설위원회를 조직, 공동으로 설계를 담당한 사이토오중합계획의 스냅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술에 도전하였다. 특히 건물 성능의 목표로서 大스팬의 구조와 내진성(耐震性), 지속성과 가변성, 유리커튼월의 쾌적성과 에너지의 절약 등 겹으로는 서로 어울배반적인 요소를 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을 집약시켰다.

이 건물은 舊1호관의 개축으로서, 舊1호관은 일본대학 이공학부의 초대 학부장이었던 佐野利器(さのりき)박사의 건축관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는 1911년 「건축잡지」에 발표한 「건축가의 각오」라는 글에서 미적의장은 단순하고 고급스러우면서 건설해야 하며 절대 요란해서는 안된다 라고 밝힌바 있다. 70여년 후에 개축된 새로운 1호관도 이러한 그의 건축관을 계승하여 단순하고 건설한 미를 추구한 의장을 목표로 하였다.

▶G-CREF - 아키텍트 파일드

이 건물은 홋카이도(北海道)의 옹대한



G-CREF

자연에 둘러싸여 洞爺湖와 内浦灣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산의 정상에 세워진 리조트호텔에 병설된 웨딩채플이다. 이 채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첫 눈에 안도 타다오의 물의 교회를 떠올릴 것이다. 수려한 자연경관속에 둘러싸인 웨딩 채플. 채플 안에서 제단 뒤편의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외부 공간에 홀로 선 십자가. 모든 것이 안도의 것과 유사하다. 단지 '물'에 의해 만들어진 경관이 연못에서 설원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나 독창적인 구조설계와 설원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바이브레이션처리된 알루미늄판 외벽 마감은 이 건물의 완성도와 창의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아직 有珠山으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을 때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고급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강한 의지였다. 이로 인해 12개의 레스토랑과 스파의 신설과 개수, 호텔학교의 신축이 호텔의 재생 프로그램으로서의 채플신축과 함께 제시되었다. 설계자는 이들 모두에 대한 신축·개수공사를 컨트롤하여 호텔의 새로운 가치를 높일 수 있기를 의뢰받았다.

채플부지는 호텔 입구의 정면에 위치하여 이 채플의 모습은 전용로를 따라 이 호텔에 어프로치한 사람들의 눈에 최초로 다가오는 장면이 된다. 여기서 불륨감 있는 호텔의 본체와 대조적으로 경쾌함이 강조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의도하였다. '원터 웨딩으로 설원에 펼쳐지는 특징있는 채플을'이라는 클라이언트의 요망과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을 살릴 수 있도록 고려하여 긴 통과 복도에 의해 기존시설과 연결된 침례자대기실, 전실, 50석을 수용하는 예배당, 신랑신부 대기실을 배치하고, 이들의 기능이 부드러운 형태의 곡면 벽에 의해 일체화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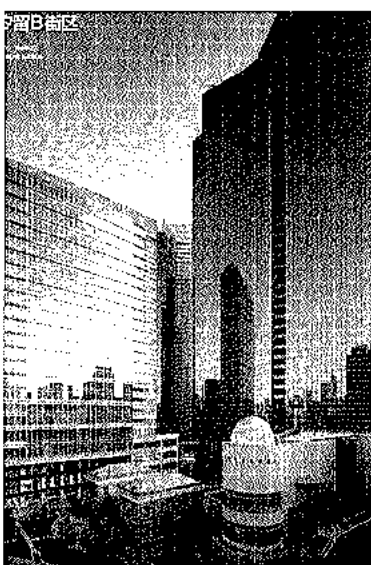
이 곡면 벽은 이전에 「SSCT시스템솔루션 센터 토치기」의 지붕에서 한번 실험한 바 있는 데크플레이트를 같은 곡률의 경량박스로 양측에서 붙여 융접한 일종의 트러스

모양의 일체형 패널이다. 이번에는 세워서(벽으로)사용하는 관계로 전체가 설과 같은 구조벽이 되었다. 이를 위해 최장 11m에 달하는 기둥의 지름은 165.2mm라는 상당히 가늘고 경쾌한 형상의 열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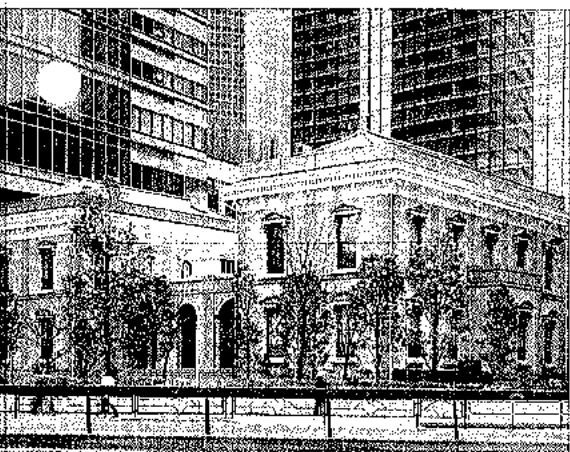
외장재는 구조체와 곡률을 맞춘 파이프의 래더프레임 밑에 바이브레이션 처리를 한 1.5mm두께의 스테인리스판을 리벳으로 고정시켰다. 또한 표면에 융접이나 조인트의 이음새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음새에 따라 잘 끼지 않는 연속되고 간결한 곡면 벽을 실현하였다. 바이브레이션 마감처리에는 2명의 인부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20일간 작업하였다. 이 마감 처리로 인해 얻게 된 차분하면서도 반짝이는 표면의 효과는 설원의 배경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시오도메(汐留)B지구(시오도메 시티 센터 빌딩, 舊신바시(新橋)승차장복원 역사, 마츠시다 전기 동경보사 빌딩) - 케빈 로쉬 + 日本設計

시오도메 B지구의 마스터 플랜에는 케빈 로쉬가 디자인한 시티센터 빌딩 등 두 개의 대규모 고층 빌딩 외에 독특한 건물이 포함되어있다. 그것은 바로 1872년에 건설된 신바시 역사(驛舎)의 복원이다. 지금은 그 건물이 사라지고



시오도메(汐留)B지구 - 케빈 로쉬 + 日本設計



시오도메(汐留)B지구 - 케빈 로쉬 | 日本設計

터만 사적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1872년 철도개업식 당시 촬영된 선명한 외관사진과 1991년 시작된 건물 터의 발굴 작업으로 그 정확한 외관과 위치를 알게 됨에 따라 복원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복원사업에는 동경대학교의 근대건축을 전공하는 스즈키 교수가 자문을 맡았으며, 두 말할 것 없이 B지구 마스터플랜의 가장 주요한 주제는 두 개의 오피스 빌딩과 이 복원된 역사가 만들어 내는 외부공간을 적절하게 연계하는 것이었다.

복원작업의 기본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복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역사의 정확한 위치와 외관은 파악이 되었으나 그 실내장식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신축되는 복원역사는 현재의 건축법규조항을 어떠한 예외 없이 따라야만 했다. 따라서 결국 장소와 외관디자인만을 복원하는 「외관복원」으로 그 방향이 정해졌다. 실내는 레스토랑으로 꾸며져 사용된다. 사진으로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건물 내부와 정면 현관의 중앙부등과 새로이 첨가되는 부분(에너지 공조배출구, 슬로프 등)은 「복원」되는 부분과는 확연하게 다른 디자인과 재료로 이루어져 한눈에 이것이 명치시대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역사 건물의 복원이라기보다는 '시오도메'라는 유일무이한 장소의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a+u

2003년 4월

이번 호의 특집은 「도미니크 베로 / Tissus(직물)」로서 최근 금속 패브릭을 사용하여 새로운 건축표



현을 실현해가고 있는 도미니크 베로의 작품들을 다루었다. 1987년 파리 근교 마르네 라 발레에 세워진 ESIEE(고등전자기술학교)의 천정부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실제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실내 천장에 사용하면서 그의 새로운 작업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그의 금속 패브릭을 사용한 대표적인 5개의 작품과 인터뷰, 에세이 등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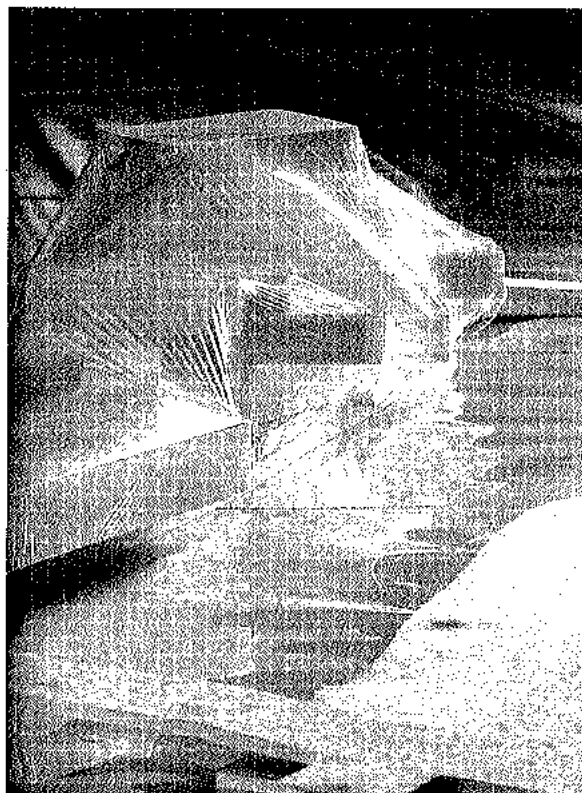
▶도미니크 베로와 금속 패브릭

근년 도미니크 베로는 메탈릭 페브릭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건축을 실현시키고 있다. 이 금속을 찌서 만든 독특한 표현은 그 짜임새에 변화를 줌으로서 무한한 변화가 가능하며, 투명성이 있고 부드러워 마치 의복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 듯이 금속이라는 직물(불어로 Tissus)을 이용하여 건축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 호에 게재한 프로젝트들도 「draped」, 「curtain」, 「veil」, 「slipcover」, 「evening gown」과 같은 의복에 관계된 키워드들이 선택되어 다양한 금속의 직물을 사용한 건축의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하였다. 이 특집은 베로 건축의 중요한 요소가 된 메탈릭 페브릭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설계프로세스를 따라 가며 왜 그가 이 소재를 선택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히려

는 것이다. 옷을 입는 것처럼 금속을 걸친 건축. 이 섬세한 건축을 이번 a+u 4월호의 특집은 소개하고 있다.

▶그는 왜 와이어 매쉬-금속의 페브릭을 사용하는가?

베로는 「건축은 무겁고, 느리고, 두꺼우며 노력을 요하는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 금속의 페브릭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그의 건축에 대한 관점을 스스로 뒤집기 위함이다. 이러한 건축에 대한 관점의 반대에 서 있는 해답은 건축의 무거움을 제거하고 광대한 면적을 함들이지 않고 덮는 것이었다. 그 예가 기존의 목재나 콘크리트, 유리 같은 재료로는 이를 수 없는 끊임 없는 거대한 천정을 매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단순히 기술적인 작업이나 건축적 발견을 넘어서 거대한 금속 패브릭을 이음새 없이 펼친다는 아이디어는 매우 논리적이고 추론적이며 동시에 교과서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편리함과 기교, 미의식의 재발견이었다. 이것을 페브릭 이외의 재료를 써서 디자인한다면 만 배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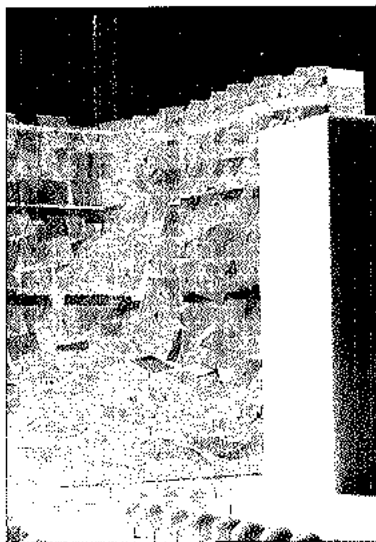


프랑수와 피노 세단의 현대미술관

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베로는 말한다. 여기서 생각되어진 것, 그리고 목표로 삼은 것은 물질로서의 존재감 있는 존재를 페브릭과 텍스처로 바꾸어 소재에 있어서의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극단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환기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극단화에 의해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처럼 건축가의 손가락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손끝이 가벼워지면 자연스레 자유로워지고, 사고가 자유로워지면 형태가 자유로워지며, 형태가 자유로워질수록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정확해진다는 이야기다. 그가 자주 쓰는 페브릭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도, 새로운 양식에 대한 주장도, 어떠한 목표도 아니며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현재에 있어서는 거의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않고 있는 건축의 경향성에서 그를 해방시킬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드레이크, 커튼, 베일, 슬립커버, 이브닝 가운

이번 특집에 소개된 금속 페브릭을 사용한 작품에는 각각 드레이크, 커튼, 베일, 슬립커버, 이브닝 가운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다. 어느 것은 그 키워드만으로 사용된 페브릭의 개념을 짐작하는 것도 가능하나 또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작품에 직접 키워드를 붙인 베로의 설명을 들어보자. 드레이크는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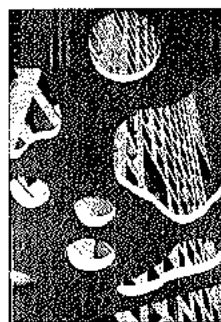
중국의 CCTV 프로젝트

랑소와 피노 재단의 현대미술관에 붙여졌다. 프랑스의 블로뉴 빌랑꾸르를 지나는 하천 한 가운데의 작은 섬인 세긴(Seguin)섬에 세워진 이 건물은 여러 개의 박스를 호트러진 모양으로 쌓은 듯한 기본적인 매스의 구성 전체를 하나의 금속 페브릭으로 감싸버렸다. 금속 페브릭이 사각의 매스들을 스타킹처럼 팽팽하게 감싼채 들쭉 날쭉한 모서리만이 도드라져 보일뿐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추상적인 오브제와 같은 형상이다. 이러한 형태는 건축도, 파사드도, 어떠한 서사구조도 담기지 않은 하나의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이는 보는 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커튼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테레시타스 비치의 호텔은 사라져 버린 산의 모습을 호텔에 금속 페브릭을 덮어 그 모습을 재생한 것이다. 랜드스케이프의 복원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주제였으며 금속 페브릭의 역할이었다. 중국의 CCTV 프로젝트에서도 평지로 구성된 베이징에 우뚝 서게될 방송국의 거대한 건물은 산에 비유되었으며, 금속의 페브릭은 마치 산의 표면을 덮은 나무들이 그 산의 상태를 알려주는 매체인 것처럼 건물물 상태를 투영하고 표현하는 매체로서 사용되었다.

domus

200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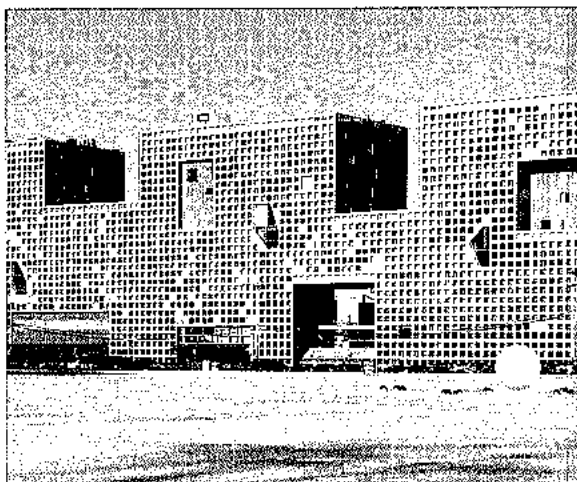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스티븐 홀의
MIT 기숙사인
시몬스 홀, 헤
르조그 앤 드
물룽의 뇌론
(Meuron)의
댄스시어터,
렌조 피아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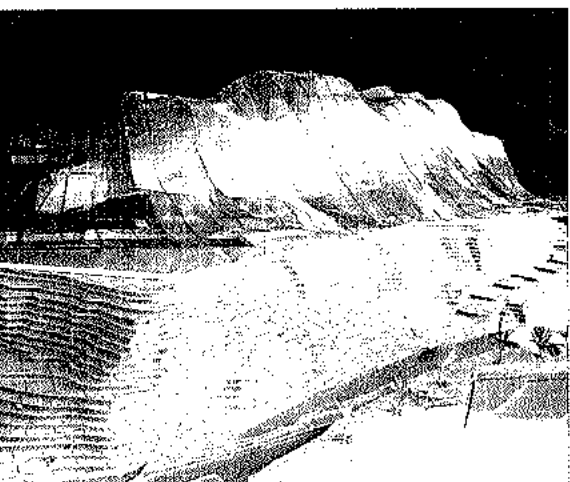
새로운 콘서트홀인 씨다 델라 뮤지카, 토키 후미오의 일본 국립도서관 관서관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스티븐 홀의 시몬스 홀은 스티븐 홀 자신이 수년전부터 펼쳐온 건축의 개념이 담긴 것으로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알바 알토, 에로 사아리넨, 프랭크 게하에 이르기까지 저명한 건축가들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MIT 캠퍼스에 더해진 또 하나의 문제작이다.

▶스티븐 홀의 시몬스 홀(Simmons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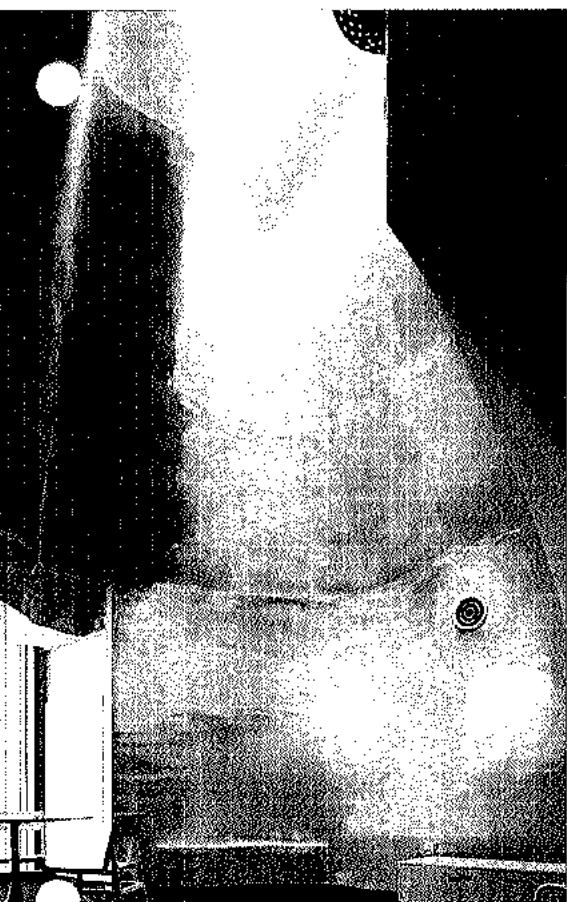
저명한 건축 비평가 콜린 로우(Colin Rowe)는 보스턴의 MIT 캠퍼스를 대학 마스터 플랜의 가장 부정적인 선례 중의 하나로 꼽았다. 알토가 디자인한 기



스티븐 홀의 시몬스 홀(Simmons Hall)



커튼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테레시타스 비치의 호텔



스티븐 홀의 시몬스 홀(Simmons Hall)

숙사와 사아리넨의 강당과 채플 등과 함께 학교는 오브제로서의 건물이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캠퍼스는 조금씩 저명한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된 서로 독립적인 건물들의 전시장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1950년까지는 전혀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이었다. 반세기만 지난 지금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또 다른 도시적 밀집의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르 꼬르뷔제가 유네스코 다비다시옹과 리투레트에서 집합주거와 수도원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줬다면 MIT의 시몬스 홀은 학생 커뮤니티에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홀에게 있어서는 기숙사는 더 이상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충분히 성숙한 사회적 프로그램이며 이는 말 그대로 사회적 응축기(콘덴서)인 것이다. 홀은 전 범위에 걸친 사회적 활동을 제공하였다. 공동 식사가 이루어지는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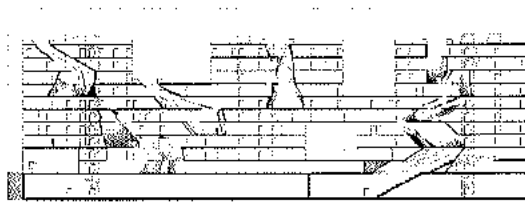
은 길과 독특한 광정(光井)을 지닌 공공실과 연결된다. 공공실은 건물의 상부로부터 여러층을 관통하여 건물의 심장부에 일광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125좌석의 극장과 종합운동시설이 들어서 있다. 만약 학생들의 삶이 미래의 사회에 대한 리허설이라면 이 프로젝트는 정치적 무관심과 개인적인 고립을 경험과 실행의 거리로 대체함으로써 대학의 일상생활을 혁신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거리와 주거에 존재하는 공공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킨다. 140m의 길이와 10층 높이의 이 건물은 스티븐 홀이 이미 도시의 한 구석에서 겪은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도시의 한 조각(슬라이스)이다. 상대적으로 넓은 복도는 각 방들을 길거리와 같은 환경에서 엮어주고 이 복도는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오프닝과 라운지, 커뮤니티 홀의 덕을 보게 된다. 이러한 집합적인 공간은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서로간의 관계와 대화를 형성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건물을 관통하는 오프닝들에는 커다란 창들이 뚫리고 통상적이지 않은 재료들이 사용되었다. 시몬스 홀의 거의 꾸며지지 않은 건물은 그 구축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색채와 대담한 표면의 분절 등에서 그 자기발랄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마 한때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지금은 모범적 예가 된 폴 루돌프의 예일대학 예술·건축동에서 부르탈리스트의 언어가 시험된 이래 처음이다. 학생들의 커뮤니티는 살기위한 기계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생활의 발견을 위해 제공된 한 조각의 도시이다. 건물의 외벽은 작은 정사각형의 창들이 빼곡히 배열된 엄격한 그리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침실마당은 가로 세로 3열씩 9개의 창이 배정된다. 외벽의 그리드는 미리 가공된 패널

들을 조립하여 이루어졌으며, 외벽에 고유한 리듬감을 부여해 주고 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Henry David Thoreau)는 학생들이 이 값비싼 게임에서 커뮤니티가 그들을 지원해주는 기간동안 놀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학창시절동안 그곳에서 진정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일시적인 삶의 실험의 차원을 넘어서 삶에 대해 배움을 얻을 것인가?' 소로우는 시몬스홀의 학생들이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그들의 이상에 다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

▶쿠라마타 시로의 인테리어 디자인

금년 4월에 밀라노에서 일본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쿠라마타 시로의 전시회가 domus에 의해 주최로 열렸다. 쿠라마타 시로는 2차 대전 후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친 첫 번째 일본인 디자이너이다. 그는 소위 잿더미 속에서 솟아난 세대로 불리는 세대에 속한 디자이너로서 미야케 이세이, 아소자키 아라타와 같은 매우 창조적인 그룹이 이에 속한다. 1934년 동경에서 태어난 그는 1991년 아쉽게도 젊은 나이에 타계했다. 그러나 그는 1991년까지 미야케 이세이 등의 건축가들을 위한 일련의 뛰어난 인테리어 작품들을 남겼다. 이번 기사에서는 키요모토 스사바(1988), 액시스 빌딩의 스파이럴 스텝(1990), 리푸타 레스토랑(1991) 등 그의 동경에서의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타다오 안도, 존 포션, 미야케 이세이 등의 쿠라마타에 대한 회고담이 함께 게재되었다. (번역/강상훈)



스티븐 홀의 시몬스 홀(Simmons Hall)

인천대학교 미래관 / 88

용산청소년수련관 / 92

인천 삼산지구 1지구 2블럭 아파트 / 96

인천대학교 미래관

Future Hall, University of Incheon

▶ 당선작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안길원) + 두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재식)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동 동춘동 994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산업기술단지)
대지면적	16,53㎡
연면적	8,224.20㎡
건폐율	15.69%
용적률	47.4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팀	서학조, 노광현, 민준식, 정성현, 김지환, 송도근, 박진성

계획의 개념

1. 건물의 규모가 대지에 비해 비교적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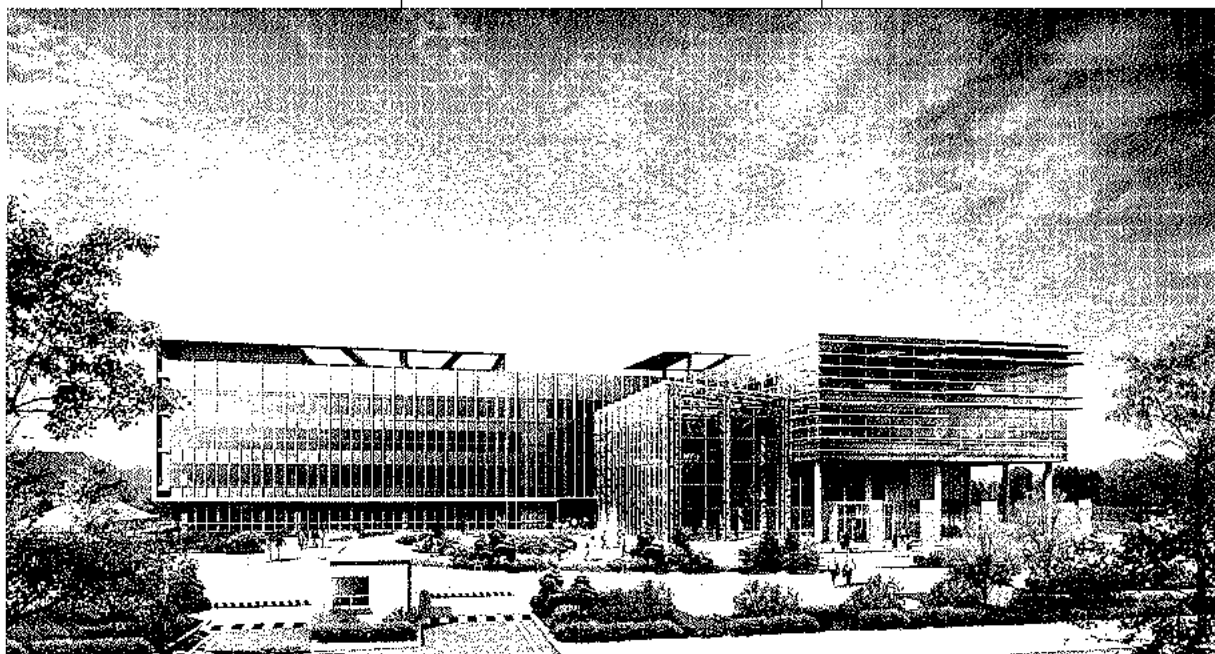
기 때문에 전체 배치에서 보았을 때 더욱 왜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Volume과 Mass를 조정하여 균형을 잡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 본 Site는 송도테크노파크 지역으로 도시계획에 따른 지침에 따라 현재 개발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변 건물들과의 Context를 고려한 예측과 제안이 필요하며 본 계획은 이러한 새로운 Context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장래의 증축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유동적인 배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였고 이것은 계획안의 앞음새를 결정할 때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의 정면성, 가로로부터의 인지성과 접근성, 내부로의 지향성을 갖는 안마당(inner court), 최대한의 자연채광을 위한 배치의 향 등이 형성되었고, 또한 인접한 대규모의 송도테크노파크 건물(무영건축 + 희림건축)과의 조형과 배치에 있어서의 어울림도 고려하였다.

평면 및 동선 계획

8개의 각기 다른 기능의 시설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독립적 영역을 갖도록 하였고 중심적 공간으로서의 아트리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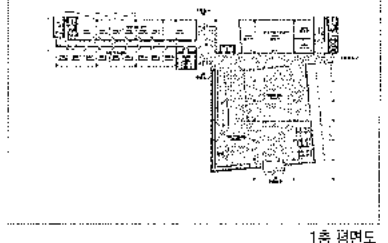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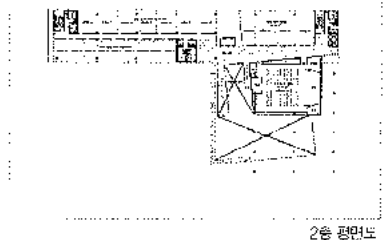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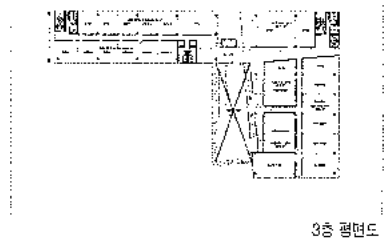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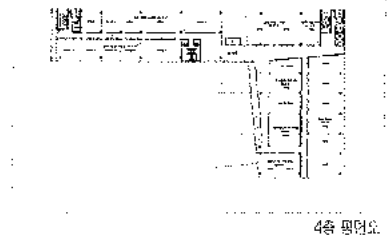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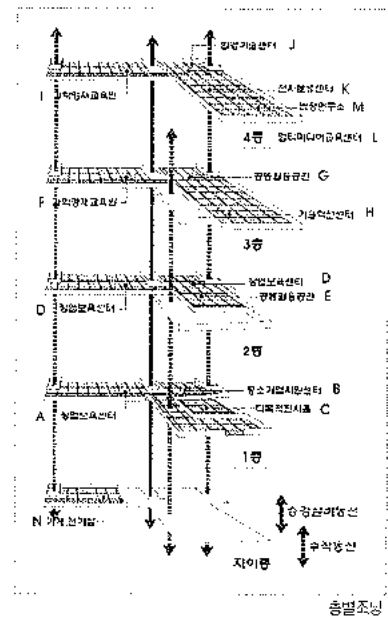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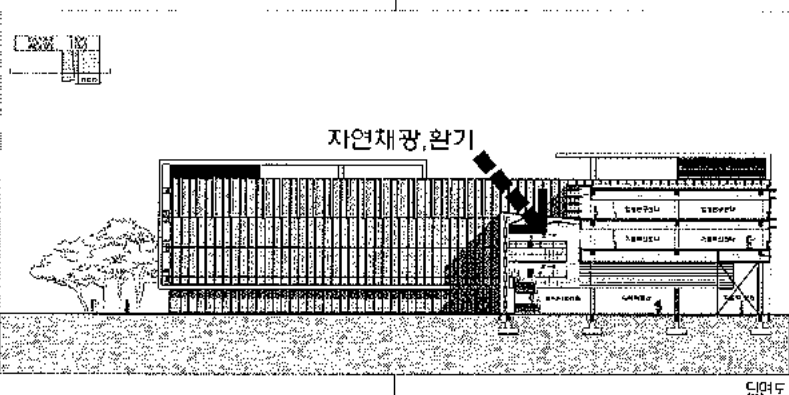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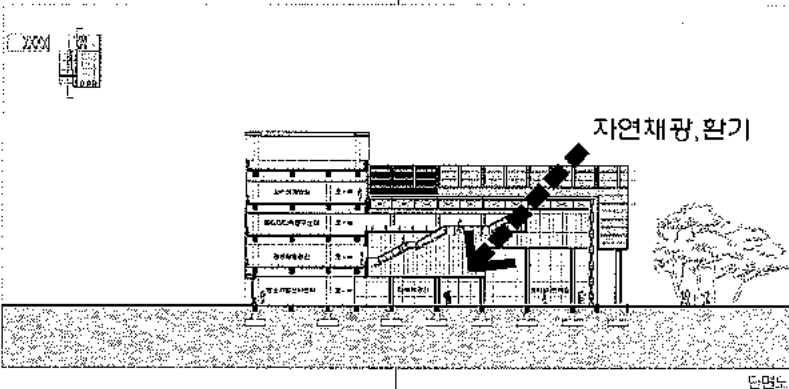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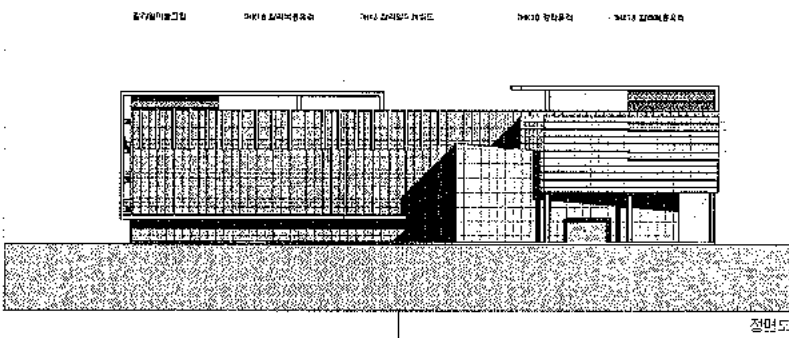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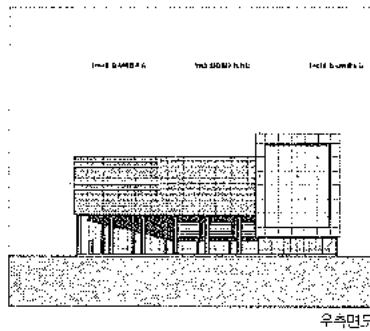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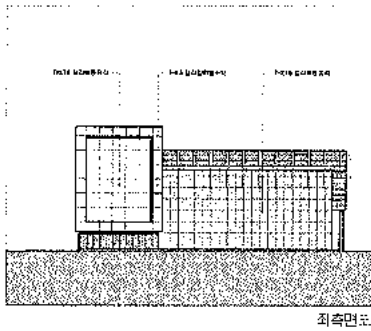


공동의 영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관디자인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Hi-tech 이미

지를 위해 유리 and metal을 주로 사용하고, 지역성을 고려하여 바다의 수평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 우수작 / (주)토우종합건축사
사무소(박형배) + (주)아키랩
건축사사무소(최종천)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
지역지구	준주거지역(산업기술단지)
대지면적	16,531㎡
건축면적	2,268.14㎡
연면적	8,191.06㎡
건폐율	13.72%
용적률	43.05%
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46대(장애인 2대, 중형차량 6대 포함)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외부 마감	세라믹 판넬, 알루미늄쉬트 / 루바, 16mm복층유리
설계팀	김학균, 전수현, 김주형, 김영자, 최창규, 이옥화, 강문선

계획목적

서해안시대를 맞아 동북아로 통하는 관문에 위치한 인천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약시켜 첨단정보산업 기술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송도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내에 시립 인천대학교의 산학협력 연구기관 및 국제 사업센터가 입주하여 지역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미래관을 건립하고자 함

계획의 전제

- 입지여건,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친환경적 계획
- 발전하는 대학교의 이미지에 맞는 열린 공간으로 시민에게 친숙한 미관 및 휴식 공간
- 효율적인 업무활동과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건축공간
- 기능성과 조형미를 함께 살린 건축계획
- 장래 증축과 시설현대화에 대비한 융통성

대지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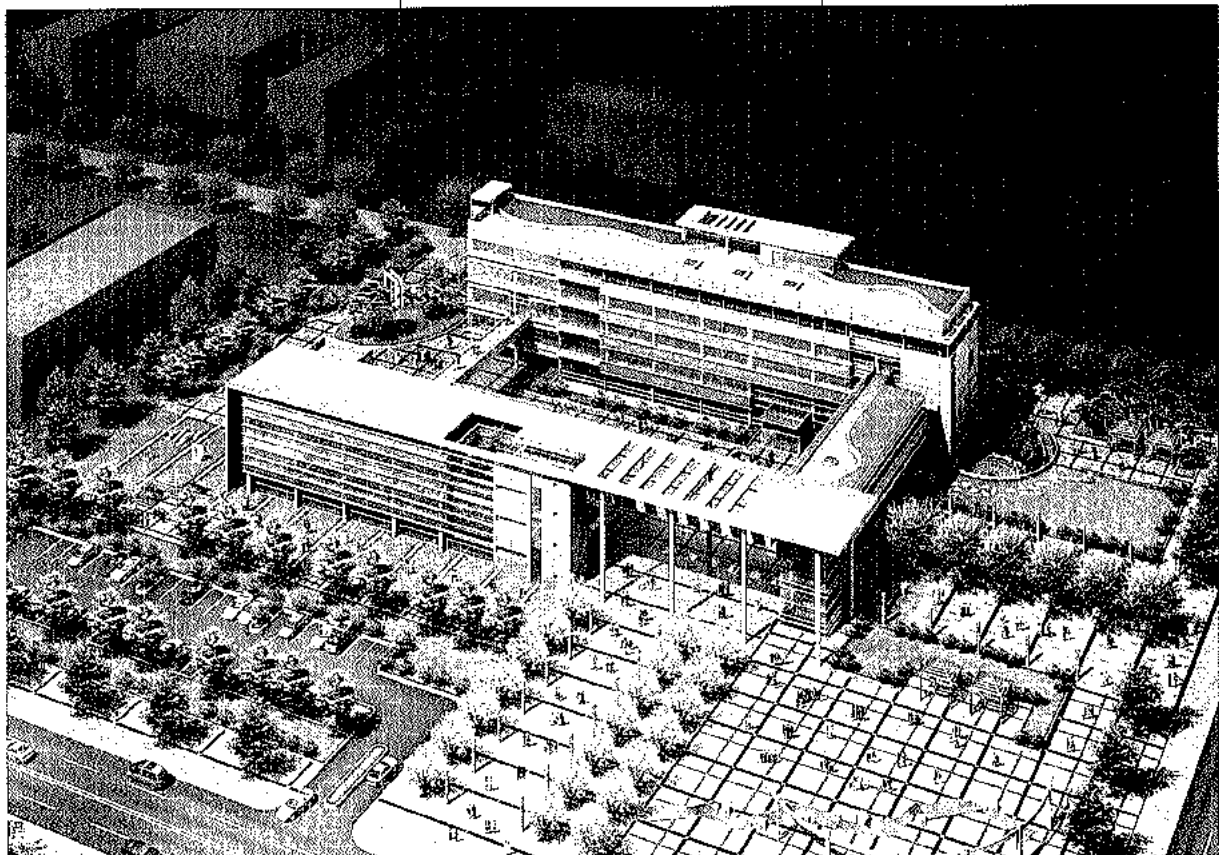
- 계획부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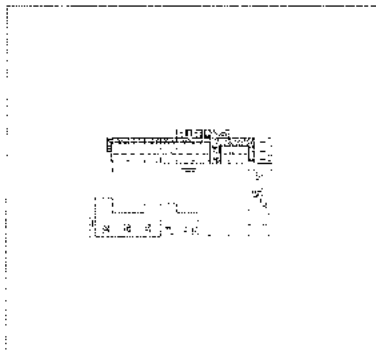
송도 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테크노파크 단지내

- 계획부지에 대응한 남동측에 제2경인고속국도와 연결되는 50M대로는 신도시의 주된 축을 형성
- 50M대로를 따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 예정
- 가로조직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도입 / 자연과 도시를 연계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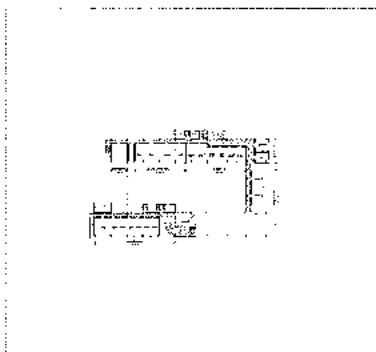
배치계획

- 상징성과 인지성 확보 (대문 : ceremony)
- 자유로운 흐름의 연결 : 필로티와 중정
- 전면 도로측에 적극적으로 대응 (기능 축)
- 업무기능 향상을 위한 영역분할과 효율적 동선계획
- 차량, 보행자동선 분리
- 사업부지내 서비스동선 확보
- 상징적 진입광장조성과 보행자전용도로와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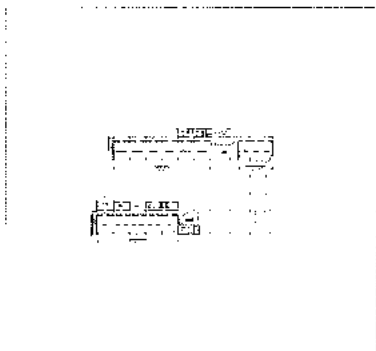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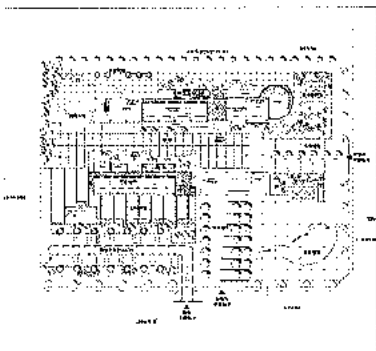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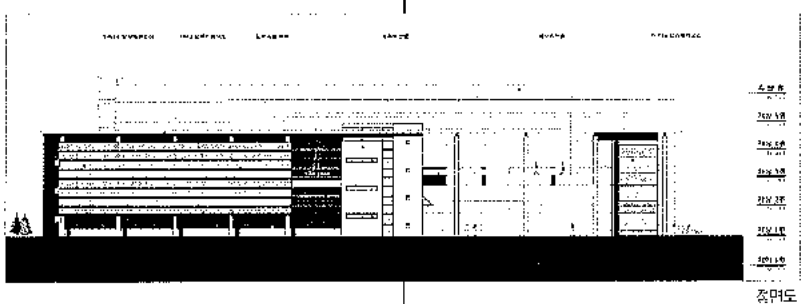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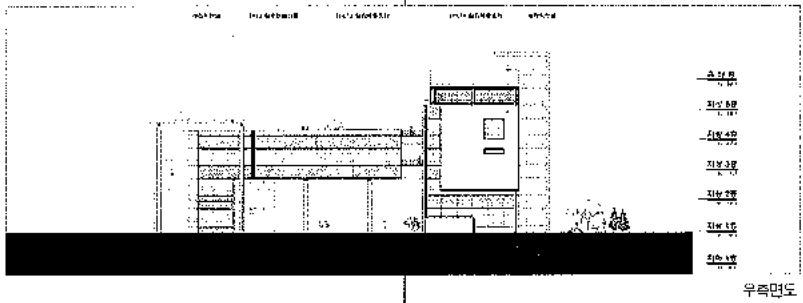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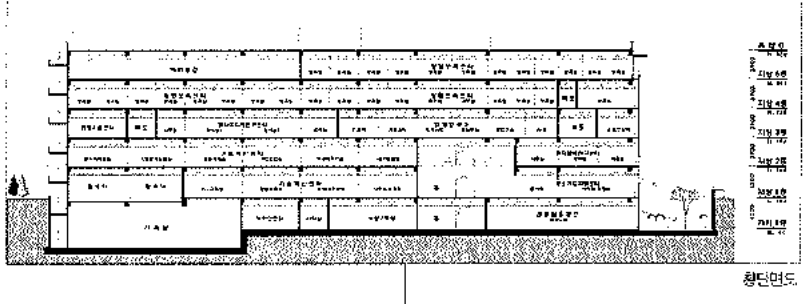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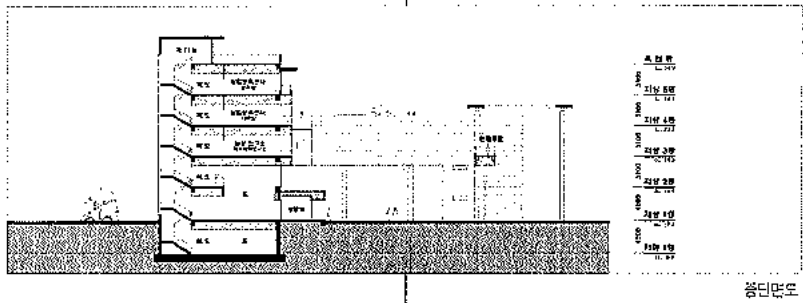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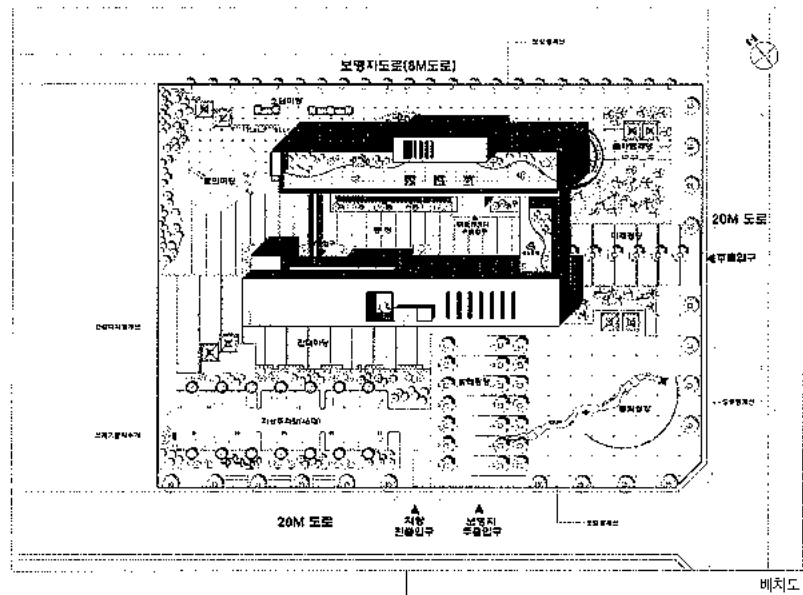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웅산청소년수련관

Yongsan Youth Train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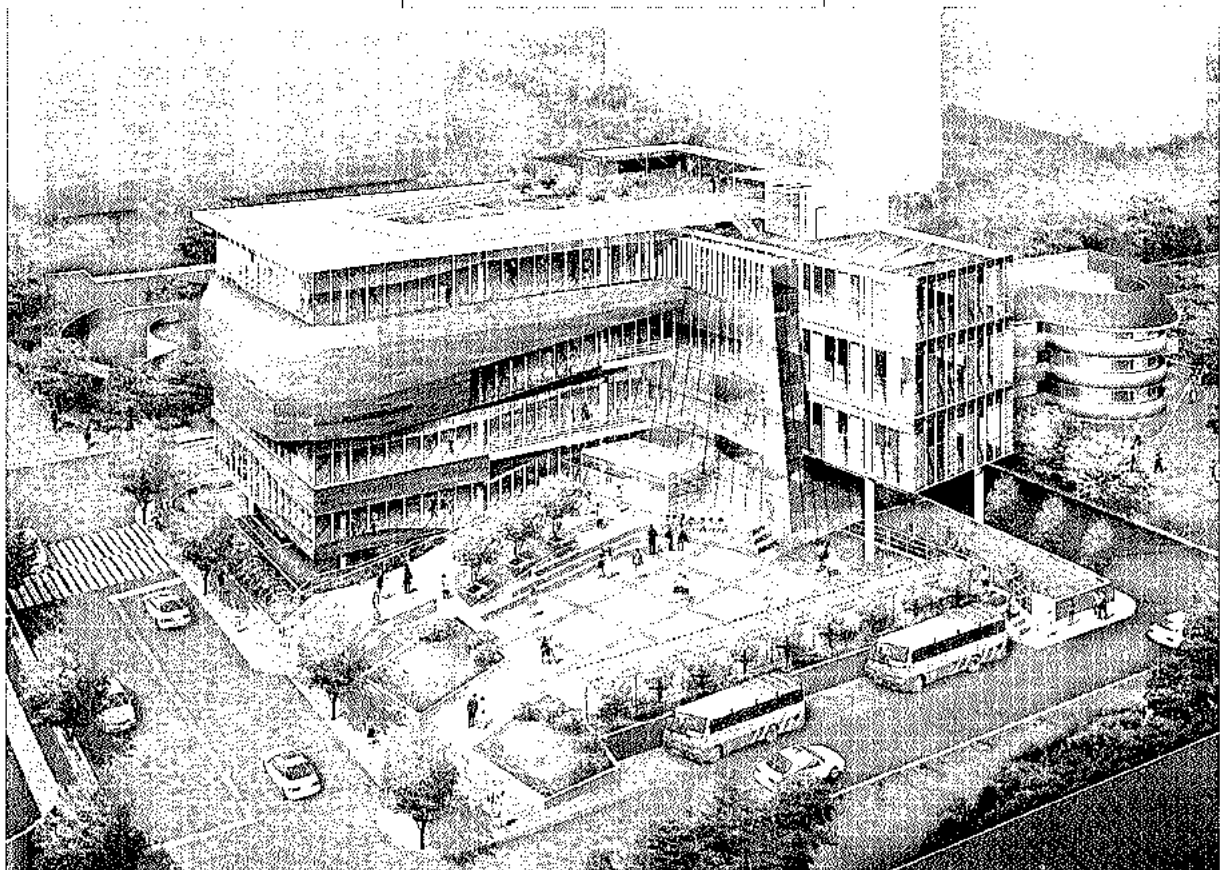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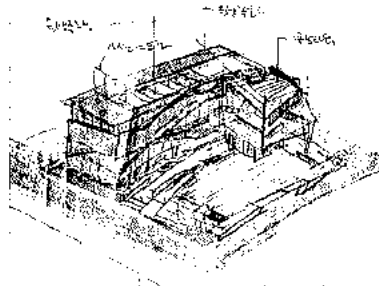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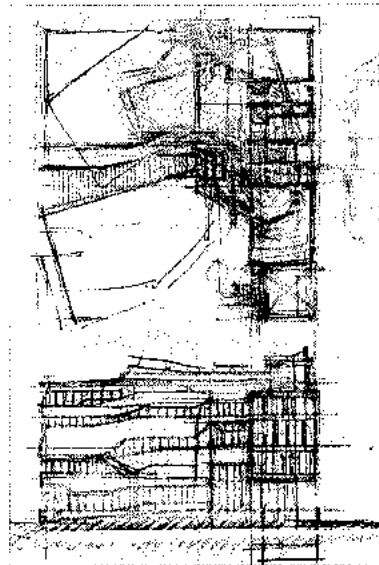
▶ 당선작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림 · 서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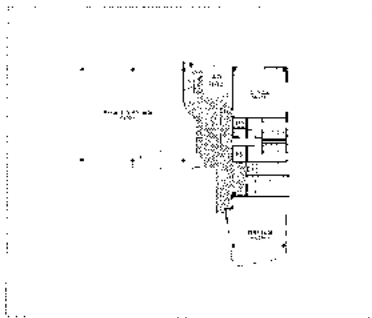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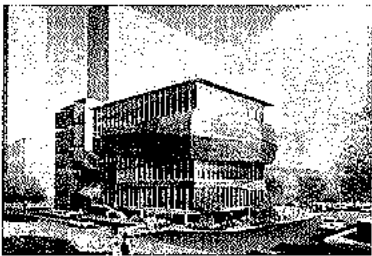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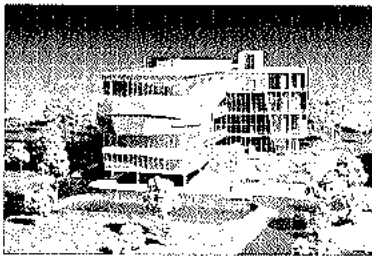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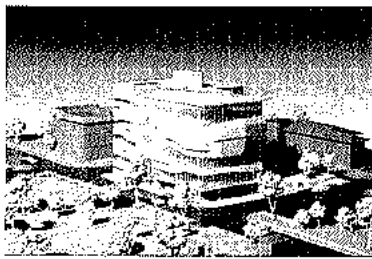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82, 301-179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대지면적	1,332.20㎡
건축면적	658.63㎡
연면적	6,579.08㎡
건폐율	49.40%
용적률	187.41%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하 3층, 지상 5층
주차대수	38대
외부마감	목재사이딩, 복층유리, 알루미늄패널

설계팀	이현중, 전진곤, 이주한, 이상희
발주처	웅산구청
구조	원우구조
기계전기	한일MEC
토목	CG E&C
조경	민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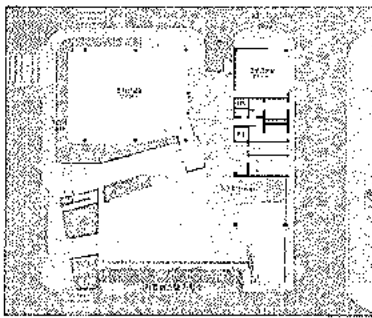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과 영역에 대한 경계와 공존의 논리, 고층 주거단지 내의 땅에 대한 바람-햇살 가득한 마당,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기를과 함께 청소년의 다양한 개성과 욕구, 지역 사회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더불어 어우러지며, 각 객체의 특성들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공간을 생각해 본다.

이러한 공간은 조직적이고, 다양한 내외부 공간과 역동적이고 투명한 매스로 형상화되어 청소년의 자유와 개성을 담아낼 것이며, 도시적 틀의 경계를 벗어나 사회와 청소년문화가 얹혀지며(Interaction), 상생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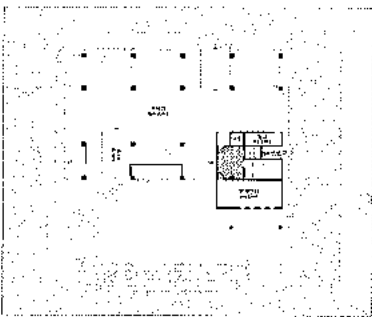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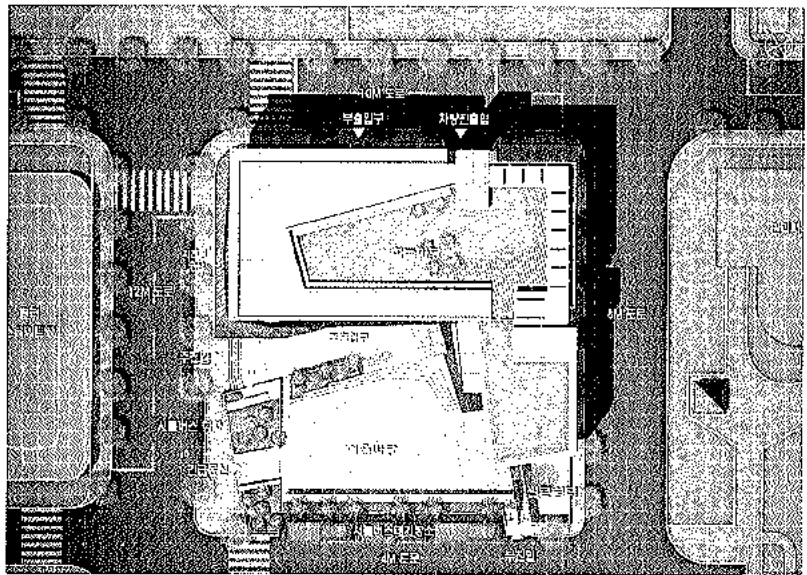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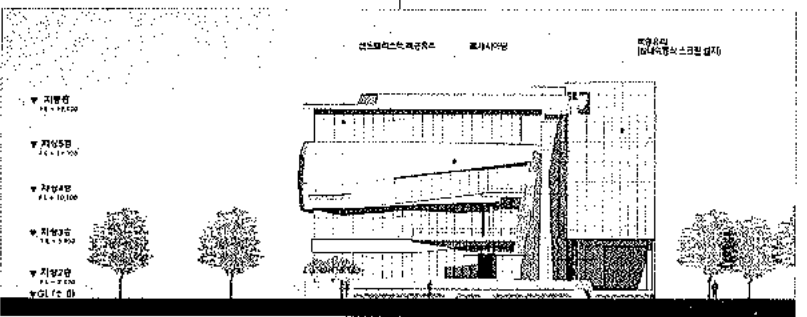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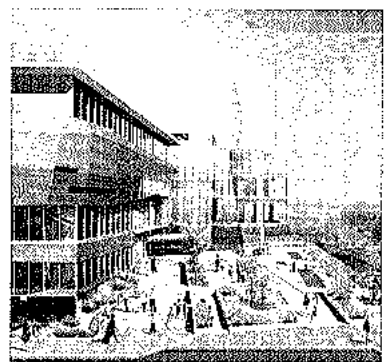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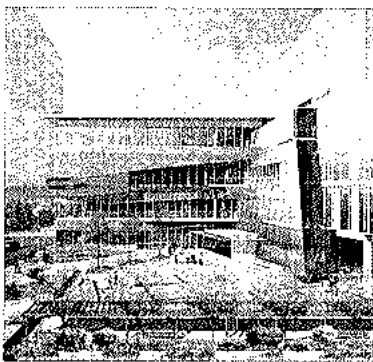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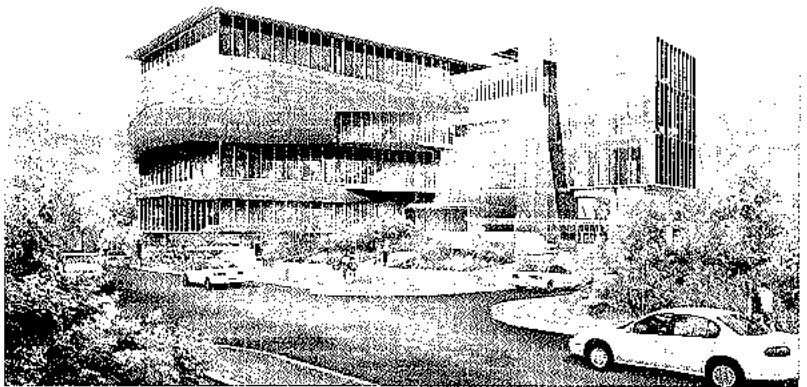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남측면도

▶ 우수작 / (주)범한종합건축사
사무소(최광수)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82, 301-179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청소년 수 련관)
대지면적	1,333.20㎡
건축면적	665.37㎡
연면적	6,424.51㎡
건폐율	49.91%
용적률	242.04%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주차대수	38대
외부미감	- 외벽 : 컬러 알루미늄 쉬트 - 창호 : T18컬러 복층유리

계획의 전제

- 동부이촌동 대단지 아파트군의 중앙부
에 있고 지하철역 인접, 편리한 교통으
로 청소년 접근성이 용이
- 북측은 국철선으로 단절되어 교통량이
혼잡하지 않아 청소년의 활동공간으로
는 최적공간
- 요구 규모에 비해 다소 협소한 대지 아
파트지구 건폐율 50%, 면적 및 층고에
제한이 됨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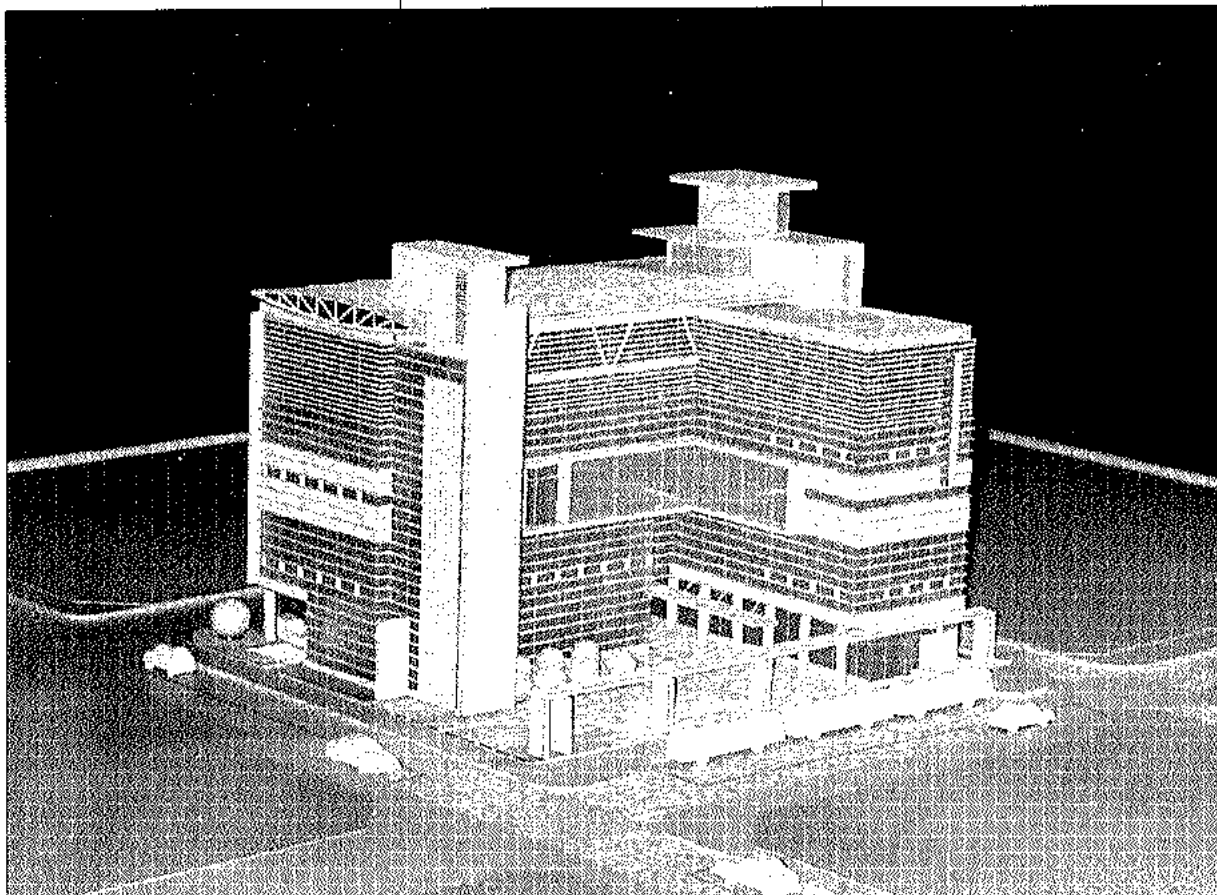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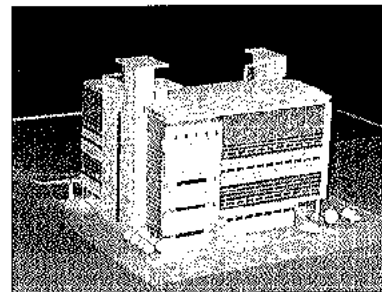
- 주차공간을 지하층에 배치 옥외 열린공
간, 개방감 확보
- 4면도로에서 원활한 진입을 위해 피로
타구조 접근성 용이
- 협소한 공간에 셔틀버스(3대) 주정차
공간의 확보를 위해 이촌동길 부근 대지
를 set back하여 승강장을 확보, 편의
성 역점
- 북측 이촌역 연결 보행자 전용도로와 열
린광장의 자연스런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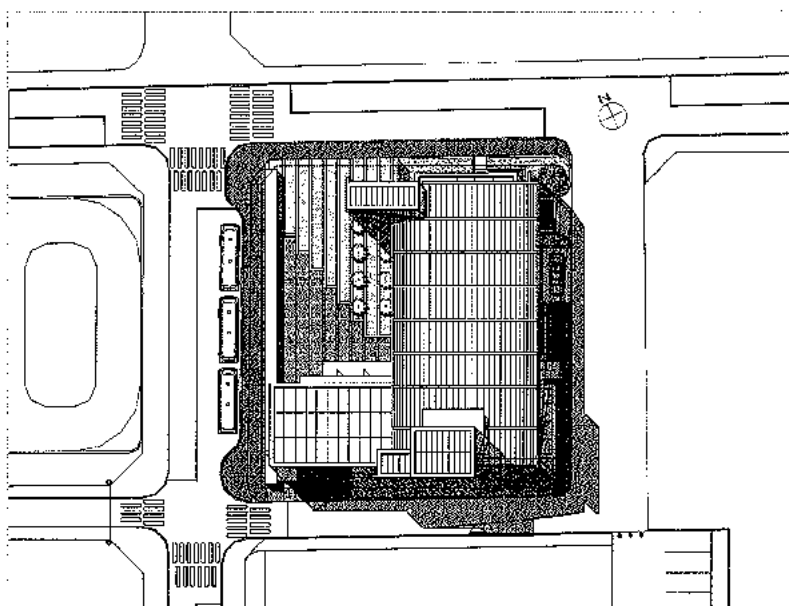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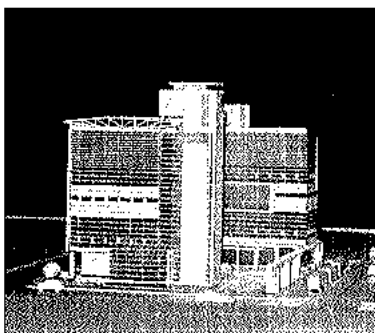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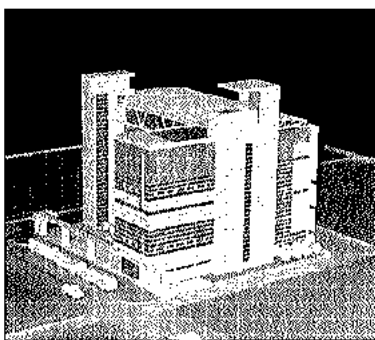
평면계획

- 메인코어와 주기능실과의 연계공간이
일체되어 풍부한 동선 및 기능공간연출
- 무대시설의 남녀비율에 적합한 기능별
공간구성
- 강당, 소체육관, 소극장, 수영장 등 장소
팬이 요구되는 실의 짜임새 있는 공간
배치로 공간 최대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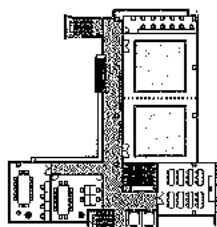
단면계획

- 제한된 높이에 대규모 강당, 극장, 체력
단련실, 소체육관 등 높은 층고가 요구
되는 실의 균형있는 높이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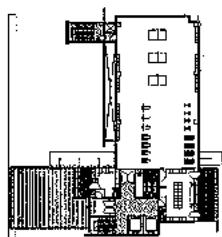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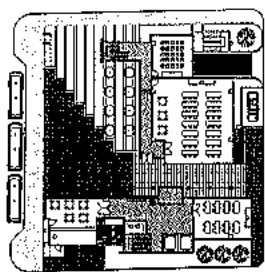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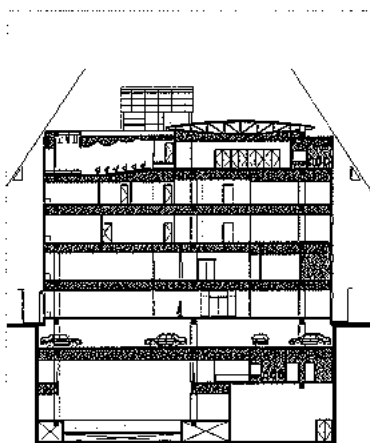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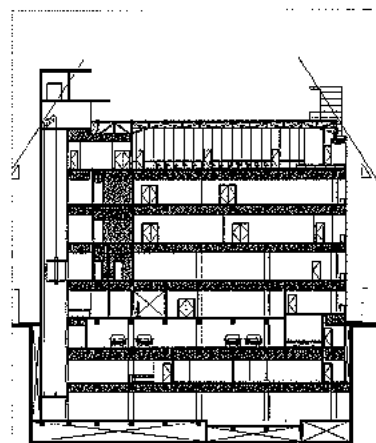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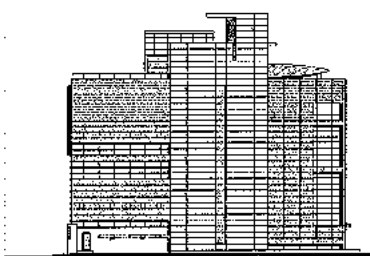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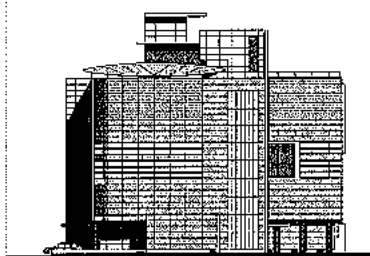
세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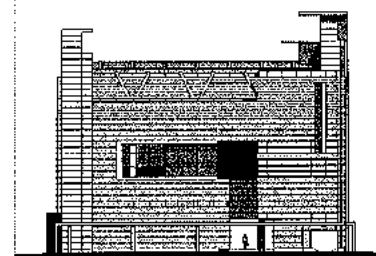
무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인천삼산지구 1지구 2블럭 아파트

Inchon Samsan District Apartment

▶ 당선작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안길원)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택지개발지구 2블럭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대지면적	87,555㎡
세대수	1,622세대 (전용 25평형)
연면적	204,843.7㎡
규모	지하 1층, 지상 22층
건폐율	13.23%
용적률	205.78%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설계팀	이희익 전무 김영우, 박문수, 최운석, 김기백,

정미량, 임종섭, 이마정, 조영수,
박수복, 진기호, 김지태, 김윤경,
정유진

인천삼산택지개발지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하며, 2km 이내에 부평구청, 삼산농수산물센터, 북구도서관 등의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 자연환경으로는 철마산, 계양산 등 자연녹지림의 원경과 굴포천, 청천천 등의 수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 지하철 갈산역, 경인고속도로, 향후 연장 될 지하철 7호선이 교차하는 도시환경이 조화되어 있다.

단지계획의 기본적인 개념은 'Space with space' 이다. 2블럭의 배치기본 개념은 택지개발지구의 각 블럭들이 독립적 계획에 의해 분할되어 있는 것보다는 공간 안의 공간으로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고려하여 각 블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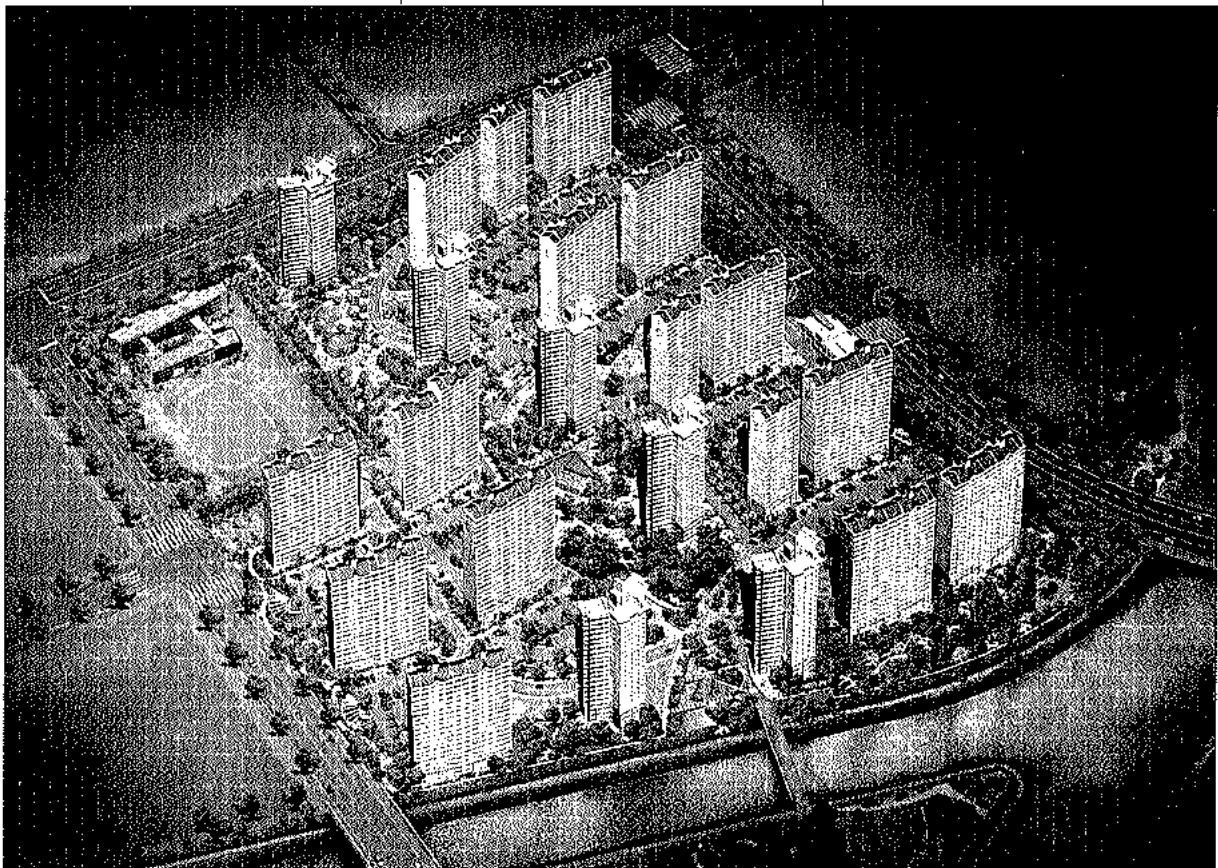
지개발지구내 Landmark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상위개념에 따라 하위개념들은 열린 경관, 원지반 보존을 통한 녹지, 수공간의 네트워크, 무장애 공간, 주민참여형 공동체로 나뉘어진다.

열린 경관

단지 외부 수, 녹의 자연요소 차경요소로 도입하여, 남측의 굴포천과 북측의 35m 도로변을 열어주는 '비람의 길'이라는 남북축을 설정하고, 단지 내외부가 관통하여 환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야간조명계획을 통하여 야간에 단지 Identity를 발산하도록 하였다.

친환경 디자인

단지 중앙부위에 원지반을 보존하여 토공사량을 줄이고, 녹지림과 수공간을 보존 단지외부의 차경요소와 연결시켜 GREEN NETWORK를 형성했다. 단지 남측으로 흐르는 굴포천의 흐름을 단지 주동의 배치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방향성을 부여하고, 수공



간체계를 녹지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무장애공간

사회적으로 약자일수 밖에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상, 거주상에 있어서 편의성과 안정성을 극대화시키려 하였다. 보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안내표지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등의 교통관련시설 계획을 하였으며, 주동 진출입간, 세대내부에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였다.

주민참여형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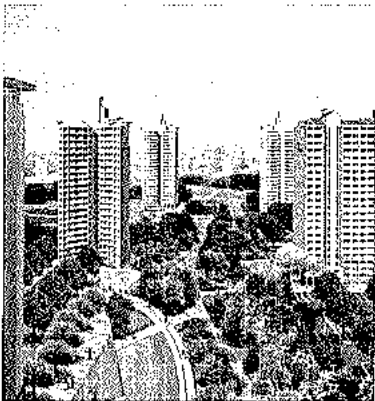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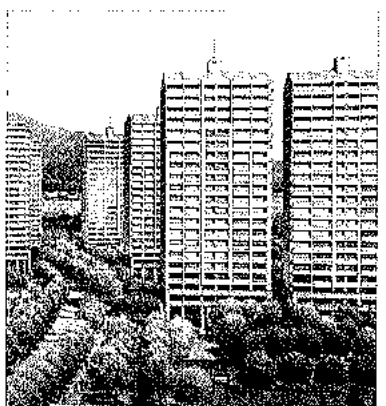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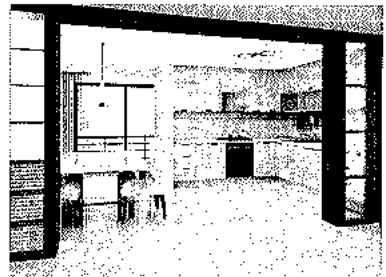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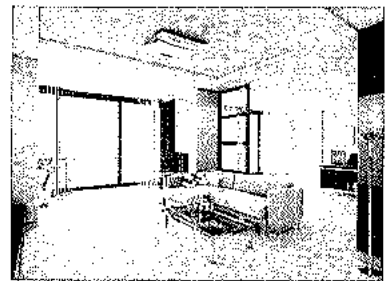
친환경생태공간과 건축가로의 개념을 주 보행동선과 연계하였다. 외부환경요소와 단지내 친환경요소를 연결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보행을 통한 다양한 생활 Activity가 발생하는 친환경생태공간과 보행동선에 필로티, 모빌, 오브제 등의 건

축적 요소를 가미시켜 주민참여형의 건축가로를 연계함으로써 보행자 동선과 삶의 터전이 교차하여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수있는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야간조명계획

야간조명계획은 색온도를 차별화하여 계획함으로써, 하절기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동절기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동에 부여하며, 보행동선의 이동에 따라 다양한 조도를 부여하고, 조명기기의 디자인을 다양화하여 좀더 다채로운 보행공간을 연출하게된다.

도시인프라 형성과 자연환경요소를 두루 갖춘 인천삼산1지구2블럭 아파트 프로젝트는 향후 거주성, 편리성을 갖춘 단지로서 개발잠재력이 풍부하며, 야간조명계획 및 친환경계획 수립, 타워동의 사용으로 택지개발지구내 특색있는 단지가 될 것이다.



200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2003년 5월

5월은 지난 1년 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신고대상자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 재산,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경과일수에 미납 부세액의 0.03%를 곱한 무거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의 계산은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의 비치·기장

-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구 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아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보건·사회·개인 및 기타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자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이종으로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를 적용대상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연도 매출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기준금액	
	2002년~2003년	2004년~2005년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아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1억5천만원 이상	9,000만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보건·사회·개인 및 기타서비스업)	6,000만원 이상	4,8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위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의 1.2배를 한도로 함

※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연도 매출액이 위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서울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9%	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소득세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564)

E-mail: ho25400@nts.go.kr